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씨남정기』 교육 연구

- 『林蘭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玉 知 靈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고전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상에 직면하여 중국인 고급 단계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林蘭香』과의 비교를 통한 『사씨남정기』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韓·中 양국은 오랫동안 공통 문화권을 향유해 온 만큼 문학에서도 일정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하지만 비슷한 장르의 작품일지라도 양국의 서사 전통에는 상이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학 교육에 있어서 韓·中 문학에서 비슷한 장르의 작품에 대한 비교·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양국 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한국문학과 중국 문학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인 비교문학적 관점에 대해 고찰하였고, 그 중에서도 비(非)영향 연구를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의 가정소설인 『사씨남정기』와 중국의 세정소설인 『林蘭香』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작품의 비교 항목으로는 인물, 갈등, 주제의 세 가지를 설정하여 이를 살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이어 Ⅲ장에서는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소설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두 작품의 갈등, 인물, 주제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는데, 먼저 갈등 면에서는 두 작품이 공통으로 다룬 처첩 갈등과 부부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의 핵심요소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다음 인물 면에서는 두 작품의 작중 인물을 여성 주인공, 남성 주인공, 그리고 여성 주인공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물, 조력 인물로 나누어 그들의 성격적 특징과 인품을 비롯한 인물상을 조명하였다. 주제 면에서는 두 작품이 '가(家)'를 중심에 두고 서사를 전개한 공통적 특징에 주목하여 개인과 가족, 국가의 상호관계에 주목한 경우와 삶에 대한 신념과 이념에 주목한 경

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였다.

Ⅳ장에서는『사씨남정기』와『林蘭香』비교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실험 수업을 거쳐 수집된 학습자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반응 양상들을 분석 정리한 후, 이러한 결과물들을 시사점으로 삼아 중국인 고급 단계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韓·中 고전소설『사씨남정기』와『林蘭香』의 비교를 통한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고전소설 교육, 비교문학,『사씨남정기』,『林蘭香』, 갈등, 인물, 주제

학 번: 2016-23065

목 차

국문 초록 ····· i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6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5

Ⅱ.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전제 ····· 22

1. 비교문학의 이론적 근거 ····· 22

1.1. 비교문학적 관점 ····· 22

1.2. 비(非)영향 연구의 방법론 ····· 24

2.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의 근거 ····· 26

2.1. 한국의 가정소설과 중국의 세정(世情)소설 ····· 26

2.2.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공통적 특성 ····· 29

3. 비교 교육의 항목 ····· 37

3.1. 갈등 ····· 37

3.2. 인물 ····· 38

3.3. 주제 ····· 40

Ⅲ.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내용 ····· 42

1. 갈등의 비교 ····· 42

1.1. 처첩 갈등 ····· 42

(1) 계후(繼後) 문제의 처첩 갈등 ····· 44

(2) 쟁총(爭寵)의 처첩 갈등 ····· 48

1.2. 부부 갈등 ····· 51
(1) 가권(家權) 문제의 부부 갈등 ····· 51
(2) 이념과 성격 문제의 부부 갈등 ····· 55
1.3. 인고(忍苦)와 희생(犧牲)을 통한 갈등 극복의 성공과 실패 ····· 59
2. 인물의 비교 ····· 63
2.1. 여성 주인공: 사정옥과 燕夢卿 ····· 63
2.2. 남성 주인공: 유연수와 耿朗 ····· 73
2.3. 적대적 인물: 교채란과 任香兒 ····· 80
2.4. 조력 인물: 두부인과 田春畹 ····· 86
3. 주제의 비교 ····· 88
3.1. 개인과 가족, 국가의 상호관계 ····· 88
(1) 가족, 국가의 공동체 의식 ····· 88
(2) 가성(家聲)의 현양 ····· 92
3.2 삶에 대한 신념과 이념 ····· 95
(1)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신념 ····· 95
(2) 입신(立身) 및 생사 이념 ····· 98

Ⅳ.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실제 ····· 102
1.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목표 ····· 102
2. 실험 수업 및 학습자 반응 양상 ····· 104
2.1. 실험 수업 ····· 105
2.1.1. 예비 조사 ····· 105
2.1.2. 실험 수업 ····· 107
2.2. 학습자 반응 양상 ····· 108
2.2.1. 작품 비교 학습의 효과 ····· 109
(1) 인물 관계 비교를 통한 갈등 이해 ····· 109
(2) 중심인물에 대한 비교와 공감적 이해 ····· 111

(3) 작품 비교를 통한 주제의 재발견 ····· 114
2.2.2. 작품 비교 학습에서 나타난 문제점 ····· 116
3.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방법 ····· 118
3.1.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읽기 자료 선정 ····· 118
3.2. 교수·학습 과정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 ····· 120
3.3.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활동 설계 ····· 123

Ⅴ. 결론 ····· 132

참고문헌 ····· 136
Abstract ····· 144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문학 교육으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를 통한 교수·학습 내용 및 방안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만약 의사소통-중심의 제2언어 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를 '목표언어로 어색함이 없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진행'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목표가 가리키는 언어능력은 분명히 단순한 언어구조와 문법 형태의 숙달 차원을 넘어, 적절한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하는 언어적 활동 기능의 수행을 의미하고 있다.[1] 이것은 한국어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위에서 제기한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때, 언어활동의 구체적인 실현태(實現態)이자 살아있는 언어 자료인 문학 작품에 대한 교육은 곧 언어교육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언어교육에서 문학은 언어활동의 본질을 위해서 혹은 문학 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교수·학습 제재이자 목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 구별되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가까운 것으로[2] 일상의 언어보다 감정과 정서를 세련하게 표현하고 담아내는 언어이기에 고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교육에 적합하고 유용하다.

그리고 문학 작품은 구어 학습이나 기타 읽기 텍스트 자료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풍부한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고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언어 구

---

1) 커넬(Canale)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의사소통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Canale, Michael & Swain, Merrill,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980, pp.29-31 참조.

2)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p.77.

사의 예를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주어지므로 학습자들은 자연스레 언어를 익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반영한 문화적 산물인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학습자는 문학적 언어의 다층적 성격을 통해 목표어 사회에 대한 이해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인간의 삶의 총체를 드러내는 문학 창작의 개방적인 구도와 반성적인 성격은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문학의 특성은 학습자들의 적극 참여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비판하기까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표현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가 있다.[3)]

본고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그중에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분야로 치부되는 고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고 싶다.

고전문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김종철은 "첫째, 한국어의 역사에서 그 정수적(精髓的) 표현을 얻은 것이 고전문학이며, 그러한 표현은 오늘날의 한국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전문학은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교재가 되고, 둘째,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틀과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고전문학이므로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잘 알 수 있고 그것의 표현 방식도 알 수 있게 되어 한국어를 고급한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셋째, 세계문학에 여러 고전이 있는데 인류사에서 한국인이 성취한 한국의 고전문학도 거기에 참여하고 한국어로 이루어진 고전을 배우는 것은 곧 한국문화가 세계 문화의 일원으로서 이룬 최고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이다."[4)]라고 밝히었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에서 관건적 일환을 이루는 문학교육의 중요성이 이미 충분히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한국문학 교육현장을 볼 때 여전히 결여된 부분이 많다. 특히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문학 교육이 그

---

3)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 『이화어문논집』 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2000, pp.213-214.

4) 김종철,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1』,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국어교육연구소 · 언어교육원 공편, 아카넷, 2014, p.523.

렇다. 자국어 교육과정 내에서 고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현실 문화나 대중문화를 반영한 현대문학 교육”[5]을 위주로 실시하되 한국 고전문학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모색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미숙하다.[6]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및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어휘·문법 중심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이 영역별로 분리되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영역별 교육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주로 광고, 신문 기사 혹은 여러 기능적 응용 설명문이나 현대문학 작품의 발췌문이다.[7] 간혹 <한국(조선)문학작품선독(韓國(朝鮮)文學作品選讀)>과 같은 한국문학을 다루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더라도 거의 현대 작품이 대다수이고 고전 작품은 한정된 극소수 편목의 일부만 실려 있다. 이처럼 고전문학을 포함한 문학교육은 홀시된 분야로 교육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이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의 실태이기도 하다.[8]

---

5) 윤여탁,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3, p.159.

6) 이인화의 연구조사에서는 2019년까지 서울 소재 14개 대학에서 발행한 총 130권의 문학작품이 수록된 66권의 교재를 선별한 뒤, 이 교재들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갈래별로 분류하고 수록된 횟수가 많은 경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 장르별로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중 고전시가 12편, 고전소설 6편, 설화 39편을 포함한 고전문학 작품 총 57편으로, 교재에 수록된 168편의 문학작품의 약 33.9% 차지함으로써 현대 작품에 비해 수량적으로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자가 지적한 문학작품 수록의 특징 및 시사점에서 고전문학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서동요>, <경기 아리랑>과 같은 고전시가, <혹부리 영감>, <토끼와 거북이>처럼 널리 알려진 짧은 작품(혹은 짧게 개작한 작품)들, 익숙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설화를 수록함으로써 한국어교육 교재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독성(易讀性) 경향을 밝히었다.
이인화, 「한국어교육 교재의 문학작품 수록 양상 분석」, 『국어교육』 제166집, 한국어교육학회, 2019, pp.237-278 참조.

7) 채미화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교는 90년대 중반 20여 개로부터, 2017년까지 250여 개(국립대, 전문대 포함)로 늘어났다.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문학과 관련된 것은 대체로 <한국문학사>, <문학작품>, <한국문학작품선독>, <한국현당대문학>, <비교문학>, <중한문학비교>, <한국고전문학감상>, <한국현대문학감상> 등이 있는데. 한국어 언어기능 영역의 교과목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다.
채미화, 「중국의 조선-한국학의 현황과 발전 과제, <東北亞文化共同體視域下的朝鮮-韓國文學研究)>, 『2017년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학술회의 논문집』,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2017, pp.1-13 참조.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보적 관계를 이루되 완전한 상호적 대체가 불가하며 각기 특성에 따라 일으키는 작용도 다른 한쪽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문학 교육현장에서 고전문학보다 현대문학의 분량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중의 하나가 바로 현대문학이 학습자와 함께 글로버 사회에서 공시적으로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의 삶과 가까이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에 의한 접근과 수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조건을 마련해 준다. 즉 고전문학과 비교할 때, 작품의 현실성과 대중성은 현대문학이 지닌 장점이자 우세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고전 작품은 지금과 상당한 거리를 두었고 거기에다가 학습하고 수용하는 대상자가 현대인이자 외국인일 경우, 시·공간상의 거리 때문에 생소감(生疏感)은 더 할 것이며 접근 그 차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고전 작품이 교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 쓰이는 한국어 그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축적 위에서 역할을 한다는 점"[9]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 축적'인 고전문학을 도외시할 수 없다.

요즘 중국에는 궁궐이나 대가족의 여러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 집단들이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남성(보통은 황제나 왕 혹은 대가족의 가부장)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며 갈등하는 소설들이 대세를 이루며 이러한 장르의 소설과 이에 근거하여 개작한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모았다.

사실 이런 소재의 작품은 요즘 돼서야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韓·中 고전 작품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다. 특히 한국의 가정소설이 바로 그러하다. 비록 현대 작품에 비해 이야기 구성 면에서 다소 단순하지만 후세 창작에 기본 플롯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또한 고전에 대한

---

8) 중국 북경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공시한 학부생 교수·학습 계획 시행 방안(2018년 7월 개정)을 볼 때, 개설된 교과목 중 문학과 관련된 것은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에 개강되는 필수과목 <한국(조선)문학간사(韓國(朝鮮)文學簡史)(上, 下)>과 선택과목 <한국(조선)문학작품선독(韓國(朝鮮)文學作品選讀)(上, 下)>으로 주당 2번씩 강의된다.

9) 김종철, 앞의 글, p.523.

계승과 변용의 체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틀과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문학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정소설이 바로 이러한 전승(傳承)의 변모(變貌)를 잘 보여주는 장르 중의 하나이다.

문학은 인류의 것이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가정을 기본 생활공간으로 하고 있기에 가정과 관련된 문제는 인간의 공동 관심사이기 마련이다. 때문에 가족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가족윤리의 변모 등에 의해 가족 내부의 갈등이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조선 후기에 가정을 단위로 그 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는 가정소설이 계속하여 창작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소설은 사회의 근본이자 축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단위로, '가(家)'라는 공간 내외에서 활동하는 여러 인물들이 겪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사회상과 인간상을 형상화하는 장르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족 혹은 국가와 상관없이 현대 가정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가정 내부의 문제와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더 나아가서 영화, 드라마 등 예술형식에서도 가정 중심의 소재를 빈번히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대상이 한국과 문화권을 공유해온 중국인 한국어 고급 단계 학습자라는 것과 최근 20대 학습자들이 문학 읽기에서 보이는 실제 취미를 고려하여 한국의 정전(Canon, 正典)이자 오랫동안 향유해 온 인기 작품 조선조 가정소설 서포 김만중(西浦 金萬重, 1637~1692)의 『사씨남정기』를 고전문학 교육의 적합한 교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학에서도 유사현상의 대비연구 방법을 차용하여 『사씨남정기』와 중국 작품 『林蘭香』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소설 교육 연구,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둘째, 연구 대상으로서 비교에 사용할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텍스트 자료를 선정하고, 연구 방법으로서 실험의 정보와 절차를 제시한다.

셋째,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전제로 비교문학의 이론적 발판을 다지고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의 근거를 논의하며 비교 교육의 항목을 선정한다.

넷째, 앞서 선정된 항목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으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작품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끝으로, 예비 조사 및 실험 수업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과 문제점을 밝히고, 앞장에서 제시한 모든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소설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말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중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에서 고전소설이 교육의 제재로서 지니는 가치와 효용성은 주로 전통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단순히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연구나 문화적 일면만 강조하는 교육 연구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문화적 측면과 언어의 기능적 측면이 통합된 문학교육 연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주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측면 혹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 혹은 두 측면을 문학과 통합시켜 고전소설을 교육하는 연구들은 축취영(2012), 증천부

(2014), 등정(2016), 양민정(2017), 주운학(2017), 김혜진(2017) 등이 있다.

축취영(2012)[10]은 연암소설과 <유림외사>의 비교·탐구를 통한 문학 교육 연구를 위하여 두 차례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예비 연구[11]에서는 <허생전>과 <儒林外史>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저술 배경에서 창작된 것, 봉건사회 사대부의 허위성 및 봉건 관료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비판하였다는 공통점을 비교 교육의 근거로 삼고,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인물 비교를 통한 허생전의 교수·학습 활동을 배경지식의 도입, 인물 형상에 대한 토의, 인물 대비를 통한 주제 도출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예비 연구[12]에서는 연암 박지원의 다른 한 명작 <양반전>과 <儒林外史>의 제3회 <范進中擧>를 비교하여 <양반전>의 교육 내용을 무능한 선비의 형상 구현, 반어, 역설, 조롱, 비유 등의 활용, 인간과 사회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하였다. 두 차례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축취영(2012)은 <허생전>과 <儒林外史>의 비교를 통한 한국문화 교육의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고 양국 문화의 동질성 및 이질성을 밝히고 구성주의적 원리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전소설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계획하고 제시하였다.

증천부(2014)[13]는 고전소설을 한국 전통문화의 집약체로 간주하면서 "한국인의 고유한 정신세계와 가치관, 신앙, 풍속, 예속 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의식주 등 생활양식과 정치, 사회, 교육 등 제도문화도 폭넓게 접촉할 수 있다"라며 고전소설 교육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언어적 측면으로는 한국어 이해에 필요한 배경 문화요소,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

10) 축취영,「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연암소설과 <유림외사>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1) 축취영,「중국대학 한국어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허생전> 교육 연구 -허생과 <유림외사>의 왕면의 비교를 중심으로」,『고전문학과 교육』제2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11(a), pp.133-167.

12) 축취영,「중국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양반전> 교육 내용 연구 -<범진 향시 급제(范進中擧)와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학』제8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1(b), pp.231-254.

13) 증천부,「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심청전>을 대상으로」,『Journal of Korean Culture』제27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4, pp.153-174.

한 속담, 의성어, 의태어와 관용적 표현 그리고 실제 담화 상황에서의 어휘, 표현, 문체 등 언어 사용 관습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문화와 언어가 통합된 고전소설 교육의 시론으로, <심청전>이 교육의 제재로 활용되기 위한 문화적 내용과 언어적 내용을 추출하고 교육 방안을 구상, 검토하였다.

등정(2016)[14]은 중국 대학교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고전소설 교육 연구에서 비교문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과 <續黃粱>을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비교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비교 학습 전후의 학습자 답안지를 대조 분석하면서 비교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작품의 주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현장 교육에서 얻은 피드백에 근거하여 <구운몽>과 <續黃粱>의 비교 교육의 실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양민정(2017)[15]의 연구는 <춘향전>과 <쿤창과 쿤팬의 이야기>가 모두 서민의 삶을 반영한 서민문학이자 애정소설이라는 공통점을 비교의 근거로 삼고 애정담(愛情談) 중심의 상호 비교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문학 교육의 내용 요소 추출을 위한 시론이었다.

주운학(2017)[16]의 연구는 조선조 애정소설 장르 소설군(小說群)을 선정하여, 애정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혼사장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고전소설 교육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또한 모티프란 문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연구 방향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

김혜진(2017)[17]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적 문식력 신장 교육으로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를 배경지식과 경험지식, 가치와 가치 판단

14) 등정,「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구운몽> 교육 연구 -중국 소설 <續黃粱>의 주제 비교를 중심으로」,『겨레어문학』제56집, 겨레어문학회, 2016, pp.65-85.
15) 양민정,「<춘향전>과 <쿤팬의 이야기>의 애정담 및 여성의식 비교 연구」,『외국문학연구』제6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 pp.301-327.
16) 주운학,「혼사장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조선조 애정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7) 김혜진,「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그리고 실제 교육 방안의 설계에서는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을 교육의 제재로 삼아 3부의 고전 속에 반영된 문화적 문식력의 구성 요소를 하나는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요소로, 즉 전통사회의 제도와 관습 및 언어·문화로 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윤리와 가치 갈등의 요소로 보아 사회 윤리와 가치 갈등의 양상과 인물의 가치 실현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내용을 추출하고 다루었다.

이상,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소설 교육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 총적인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제재로써 고전소설이 지니는 가치와 효용성을 강조했고 주로 전통문화 교육의 측면과 관련지어 다루었다. 둘째, 교육의 제재로 활용되는 작품으로 볼 때, <춘향전>, <심청전>을 비롯한 판소리 계열 소설의 이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상응하게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소설이 몇몇 작품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조선조 시기 대량으로 창작되고 향유해왔던 장르인 가정소설의 대표작 『사씨남정기』를 같은 장르의 비슷한 내용의 작품 『林蘭香』과 비교하면서 중국인 한국어 고급 단계 학습자에게 교육하고자 한다.

2.2 『사씨남정기』에 관한 연구

『사씨남정기』 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작품론의 심화와 더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사씨남정기』에서 여성 수난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는 이중적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자들은 당대 시대적 상황과 이념적 기반, 작자의 계층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내 갈등의 구조와 의미, 등장인물의 성격, 작자 의식과 이념 등을 치밀한 작품 분석을 통해 밝히었다.[18)]

---

18) 이원수, 「남북한 <사씨남정기> 연구의 경과와 전망」, 『한국문학논총』 제39집, 한국문학회, 2005, pp.6-7.

작품 내 갈등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이상구(2000), 신재홍(200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처첩 갈등을 선악 대결의 형태로 형상화하고 있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각도에서 심화, 발전시켰다.

이상구(2000)[19]는 『사씨남정기』의 기본적인 구도를 유연수를 정점으로 하는 사씨와 교씨의 대립을 비롯하여 천자를 정점으로 한 유연수와 엄승의 대립을 이룬 이중적 삼각구조로 분석하였고, 『사씨남정기』는 처 사씨를 선인의 전형으로, 첩 교씨를 악인의 전형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처첩 간의 갈등을 선과 악의 가치 대립으로 보면서 작품의 사실주의적 성격에 주목하여 봉건적 축첩제도의 질곡에 대한 서포의 불철저한 인식, 사대부적 위기의식과 악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현실적 인식으로 규명하고 있다.

신재홍(2001)[20]은 사건 전개의 축을 선의 길, 악의 길, 개과의 길로 파악하여 이 작품이 사람의 마음에 내재한 선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일종의 '심정소설'이라고 논했다.

등장인물의 성격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사정옥형' 인물과 '교채란형' 인물, 가부장 유연수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사정옥을 당대 윤리 규준을 지키고 가치를 내면화하는 인물로, 교채란를 사씨와 대립하여 욕망적이고 사악한 인물로 보는 입장, 유연수를 수동적이고 무능한 가부장으로부터 성숙해가는 인물로 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합의된 연구 성과에서 좀 더 발전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인물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연숙(2000)[21]은 여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소극적·관념적 인물로 인식되어 온 사씨의 삶에서 적극성과 현실성을 긍정하고 밝히었는데 『사씨남정기』를 "한미한 집안의 딸 사씨가 도덕과 이념을 무기로 부귀한 가문의

---

19)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 『배달말』 제27집, 배달말학회, 2000, pp.371-396.

20) 신재홍, 「<사씨남정기>의 선악구도」, 『한국문학연구』 제2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pp.175-207.

21)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제17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0, pp.146-172.

총부가 되고, 위기를 거쳐 지위를 공고히 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파악하고, 이를 사씨의 출신, 성격, 행동으로 나누어 살피며 “사씨는 추상화된 선(善)이 아니라 현실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살아 있는 인물”이라고 밝히면서 평가했다.

황병홍(2013)[22]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유연수를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인물보다는 “가부장으로서 가문의 안정을 꾀하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사씨남정기』의 주인공들이 “가문에서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층 성숙한 인물로 변모”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작품을 선악 대립 구조가 아닌 ‘처-가부장=신-황제’의 중첩적 병렬 구조로 가정과 나라를 연계시켜 분석하였다.

조선 후기 가족주의 이념이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연관하여 처첩 갈등이란 현상의 이면에 담긴 사회사적 함의를 밝힌 연구[23]로는 박일용(1998), 정출헌(2000), 강상순(2001) 등이 있다.

박일용(1998)[24]의 연구에서는 『사씨남정기』는 사대부 부녀층이 처한 역설적 상황을 사씨를 매개로 반영하면서 당대의 축첩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출헌(2000)[25]은 『사씨남정기』의 인물 분석을 통하여 가부장제의 질곡이 인물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사씨남정기』를 교육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김종철(2000), 이상일(2008), 장미(2010) 등이 있다.

김종철(2000)[26]의 연구에서는 주체 형성으로서 『사씨남정기』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사씨남정기』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시사점을

---

22) 황병홍, 「<남정기>의 구조와 의미 -유연수의 성격분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0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pp.79-112.
23) 이원수, 앞의 글, p.7.
24)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 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217-245.
25) 정출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배달말』 제27집, 배달말학회, 2000, pp.397-424.
26) 김종철, 「소설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소설교육 -<사씨남정기>의 경우」, 『국어교육』 제101집, 한국어교육학회, 2000, pp.187-209.

제공하였는바 즉 독자가 작품 수용을 통해 개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 공동체의 관계로 긍정적으로 확대시켜 주체성의 자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작품을 교육하는 현대적 의미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일(2008)[27]은 『사씨남정기』의 선악 대립의 양상과 해결 과정에 주목하여, 학습자가 소설 작품 속에 담긴 선악 대립의 서사적 갈등을 단순한 '선'과 '악' '좋고 나쁨'의 이원적 판단을 떠나 어떻게 경험하고 가치화해야 할 것인가를 '비평적 가치화'라고 명명하고 사씨를 '선(善)-이념 지향적 인물'로, 교씨를 '악(惡)-욕망 지향적 인물'로 유형화하여 『사씨남정기』의 비평적 가치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미(2010)[28]는 텍스트 해석을 통해 플롯을 구조화하는 능력을 서사적 이해 능력의 하나로 간주하고 작품 속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목적을 인간의 욕망으로 보면서 이를 '심층적 갈등'이라고 명명하고 개념화하였으며 『사씨남정기』의 표층적 갈등과 심층적 갈등을 분석한 다음 심층적 갈등 중심의 플롯 이해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외에 이승복(2010)[29]의 연구에서는 『사씨남정기』의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념과 욕망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일으키는 독자들의 읽기 흥미보다는 작품 자체의 감동과 독자의 공감을 기반으로 작품이 수용되어왔음을 밝히면서 작품이 오랫동안 유행하고 향유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정서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는 『사씨남정기』 교육을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3 『林蘭香』에 관한 연구

『林蘭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작품이 발굴 및 출판된 이후로부터

27) 이상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선악 대립의 구조와 비평적 가치화 방법」, 『국어교육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2008, pp.117-142.
28) 장미, 「심층적 갈등 중심의 플롯 이해 교육 연구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9) 이승복, 「<사씨남정기>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1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pp.9-35.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연구사는 최근 40년 정도에 불과하며 작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까지 중국 학술계에서 이루어진 『林蘭香』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대개로 창작 연대에 대한 추정 연구,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 연구, 작품에 반영된 주제와 작가의식 및 가치관과 같은 작품의 사상성과 작품성에 대한 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林蘭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 작가 및 창작 연대에 대한 논의에서 작가는 미상으로, 수연하사(隨緣下士)에 의하여 편찬된 것에 대해서는 별 큰 논쟁이 없지만, 창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학계에서 비교적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주장 중의 하나가 바로 진홍(陳洪)에 의해 제기된 '강희(康熙) 중기 창작설(創作說)[30]'이다.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林蘭香』의 창작 연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명말청초(明末淸初)에 창작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31] 따라서 본 연구도 '명말청초 창작설'을 따르고자 한다.

『林蘭香』의 인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 주인공 燕夢卿을 중심[32]으로

---

30) 진홍의 의견에 따르면, "<林蘭香>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순치(順治)·강희(康熙) 연간에 발생한 사건들로, <林蘭香>은 강희 중반,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강희 36년 좌우에 창작된 것으로 유추된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은 강희 중기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넉넉하게 추정한다고 하여도 옹정(雍正), 건륭(乾隆)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陳洪,「<林蘭香>創作年代小考」,『明淸小說硏究』第3期, 江蘇省社會科學院, 1988, pp. 151-155 참조.

31) 최근의 연구에서 유명(劉銘)은 작품 속의 구체적인 지명과 사건, 배경에 대해 다시 살피면서 <林蘭香>의 창작 연대의 범위를 좁혀 더욱 정밀하게 재 추정한 결과, 바로 '1676년, 즉 강희 초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우면서 진홍(陳洪)의 '강희 중반 창작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명말청초 창작설'에 대해 큰 논쟁이 없다.
劉銘,「<林蘭香>的成書年代考論」, 阿壩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9年 第1期, pp.29-31 참조.

32) 李受珉[韓],「封建"淑女"的理想化與世俗化 -以燕夢卿、林黛玉、薛寶釵的悲劇命運為中心」,『紅樓夢學刊』第3期, 中國藝術硏究院, 2001, pp.299-309.
蔡美雲,「<林蘭香>與中國士人的"棄婦"情節」,『明淸小說硏究』 第2期, 江蘇省社會科學院, 2005, pp.235-243.
劉春玲,「<林蘭香>人物形象硏究」, 濟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楊 淼,「淸代長篇家庭小說妾婦形象硏究」, 新疆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2010.

이루어졌고 종합해보면 그녀를 봉건적 예교의 가르침을 받아 정직하게 살아가는 당시 사회에 가장 완벽한 요조숙녀의 여성상으로 평가하고, 동시에 봉건적 예교를 굳건하게 믿고 실천함이 바로 燕夢卿의 정신적 고통, 혼인의 불행과 비극적인 삶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여성 주인공 燕夢卿에 대한 연구와 비해 기타 인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 任正君·牛景麗(2013)[33]는 燕夢卿과 갈등되는 여성 인물 任香兒에 대해 "『林蘭香』에서는 任香兒를 실제 신분에 맞게 그녀의 계급과 출신에 부합한 인물 형상을 부각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재주(財主) 집의 딸로, 부유하지만 고귀하지 않은 민간 시정(市井) 출신인 任香兒의 성격적 특징을 언어와 행동 표현으로 제시했다.

남성 주인공에 대한 연구는 이수민(2003), 秦曉梅(2015), 朱莉華·唐愛明(2017) 등이 있는데 이수민(2003)[34]은 『林蘭香』을 포함한 중국의 대표적 세정소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작품 속에 드러난 부정적인 부군(夫群) 형상들을 정신적 역량의 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의식 결핍형(倫理意識 缺乏型)", "공처형(恐妻型)", "주관의식 결핍형(主觀意識 缺乏型)"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秦曉梅(2015)[35], 朱莉華·唐愛明(2017)[36]은 중국 명청(明清) 시대 세정소설 속 남성 주인공 형상의 공통적인 문제점 즉 삼강오륜을 고수하는 가부장 형상을 제시하면서 남성 인물들이 '남존여비(男尊女卑)'를 고수하고 낙후한 봉건적 가부장제 및 혼인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신 및 가정의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였다고 밝히었다.

『林蘭香』의 주제와 작가의식 및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지어 전개되었는데 聶春豔(1998)[37]은 『林蘭香』의 심층적

33) 任正君·牛景麗, 「<林蘭香>中任香兒形象的文化解讀」, 『天中學刊』 第3期, 2013, pp.32-34.
34) 이수민, 「世情小說中의 夫君形象 小考 -否定的인 夫君形象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26집, 중국학연구회, 2003, pp.275-296.
35) 秦曉梅, 「清前中期世情小說中的公子形象」,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36) 朱莉華·唐愛明, 「恪守禮教下的人生悲歌 -以<林蘭香>中的男性形象為例」, 綏化學院學報, 2017年 第5期, pp.62-65.
37) 聶春豔, 「性別角色轉換與文本深層內涵 -解讀<林蘭香>」,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1

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여성 주인공 燕夢卿의 인물 형상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저자는 燕夢卿의 전통적 여성상 이면에는 '충신(忠臣)'의 인격이 내재한다고 보면서『林蘭香』은 그녀의 비극적 운명을 빌어 당시 사인계층(士人階層)의 불우한 운명과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張勇(2009)[38]은『林蘭香』에 드러난 봉건대가족 속 '부친의 부재' 즉 '가부장 결여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을 남성중심의 가족문화와 부권 쇄락의 반영이라 밝히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재덕겸비한 여성 주인공의 비극적이고 불행한 운명에 주목하여 당시 문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역사적, 윤리적, 비극적 측면으로 논하였다.

何新岭·蔡美雲(2015)[39]은『林蘭香』의 주제에 대해 논하였는데『林蘭香』은 유교적 윤리란 이념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과 괴리를 어떻게 메꾸고 극복해 나가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탐구한 작품으로 보았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사씨남정기』는 초기 가정소설로서 후대 가정 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가정소설의 유형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만큼『사씨남정기』는 한국 고전문학을 논할 때 초기 가정소설[40]로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의 작품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사재

998年 第5期, pp.69-75.

38) 張勇,「<林蘭香> -文人化的世情之作」,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39) 何新岭·蔡美雲,「情與理的衝突與消解 -<林蘭香>對女性生存之道的思考」, 陝西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5年 5月 第2期, pp.71-74.

40) 이원수,「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47.

동은 “『구운몽』과 쌍벽을 이루는 수(秀)작으로, 그 구조나 수법 면에서는 오히려 미묘(微妙)하고 세련(洗練)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41]고 하였으며, 우쾌제는 “『구운몽』과 함께 한국 소설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42]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씨남정기』는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던 작품으로 문학의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 류준경은 “약 1000종 가까이 되는 고전소설 중 일곱 번째로 많은 이본이 전한다는 사실은 『사씨남정기』의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43]라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사씨남정기』의 인기는 어느 한정된 한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문 필사본의 독자 대상이 주로 상층 남성들이었다면 상층 여성들이 주로 읽었던 한글 필사본이 상당수 전하였고, 서민들은 민간에서 간행되는 방각본을 읽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씨남정기』의 독자 대상이 서민부터 사대부까지 거의 모든 계층을 넘나들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사씨남정기』는 작품성으로 높이 평가받은 동시에 모든 계층으로부터 애독 받는 대중성을 지닌 작품이기도 하다.

하여 『사씨남정기』의 문학사적 지위와 작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소설 교육의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단계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사씨남정기』 텍스트 자료를 아래 [표Ⅰ-1]과 같이 선택하였다.

[표Ⅰ-1] 『사씨남정기』[44] 텍스트 자료	
『사씨남정기』,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사씨남정기』는 지속적인 생명력과 호소력이 있는 정전(正典, Canon)이자 학습독자들이 원본과 현대역 및 한문판을 대조하며 읽을 수 있도록 원본과 현대역 및 번역본이 한 권에 실려 출판되어 있다.
	류준경이 연세대학교 도소관 소장 한문필사본 『南征記-白蘋洲重逢記』(고서 811.36 김만중 사-필-가, 이하 연세대

41) 사재동, 「<사씨남정기>의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논총』, 다곡 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8, p.409.
42) 우쾌제, 『고전소설의 탐구』, 국학자료원, 2007, p.245.
43)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p.430.

	본이라 칭한다.)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본『南征記』(도서번호: 4-6789, 이하 장서각본이라 칭한다.) 두 본에 각각 주석 작업을 하였고 연세대본과 장서각본을 대조하고 함께 참조하면서 현대어역(譯)으로 옮겼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명말청초(明末淸初) 시기에 창작된 세정소설(世情小說)『林蘭香』을『사씨남정기』와 비교할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한국에서 가정소설은 "공간적 배경을 가정 내로 하고, 가족 구성원을 작중인물로 하여 처첩 간과 계모와 전실소생(前室所生) 간의 갈등, 알력, 불화로 인한 비극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양적 가족제도의 모순과 건전한 가정윤리의 제고를 주제로 하고"[45]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상응한 소설 장르는 세정소설이다.

중국에서 세정소설은 "가정과 혼인을 중심으로 인간사회의 일상생활과 세태의 변화를 묘사하고, 묘사의 대상이 평범한 인간사회(魯迅이 말한바 인사(人事)를 기록하는), 다시 말해 당시 현실사회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46]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록 세정소설은 세상의 물정, 세태와 인정을 묘사하는 작품으로서 가정소설보다는 범주가 넓지만, 명청(明淸)시기에 창작된 세정소설 역시 남녀 간의 사랑과 혼인,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 내부, 가족 간의 갈등을 둘러싸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사회상을 반영하였기에 한국의 가정소설과 제재 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47]

---

44)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이하, 별도의 언급 없이 이 단행본에 의거하여 현대어 원문을 인용하며 페이지 수를 함께 표기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45) 김귀석,『朝鮮時代 家庭小說論』, 국학자료원, 1997, pp.21-22.

46) 송진영,『明淸世情小說硏究』, 한국학술정보, 2005, p.17.

47) 양승민은 동아시아문명권의 시각에서 <사씨남정기>는 선악의 대비 내지 갈등을 통해 인성(人性)의 문제를 제기한 <金瓶梅>와 같은 통속인정소설 계열의 전통에 귀속된다고 전제하며 비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한 <사씨남정기>의 합리적인 독법에 대해 모색했다.
양승민,「<금병매>를 통해 본 <사씨남정기>」,『고소설 연구』제13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pp.83-111 참조.
본 연구의 대상 <林蘭香> 역시 <金瓶梅>의 전통을 이어 받은 소설로 중국에서는 같은

『林蘭香』은 주로 남자 주인공 耿朗과 여자 주인공 燕夢卿 그리고 첩 任香兒를 비롯한 부부 및 처첩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을 주축으로 하면서 가정 내부의 일상으로부터 대가족의 흥망성쇠와도 관련되는 사회상까지 소설 속에 폭넓게 담아 창작된 작품이다. 때문에 작품의 이야기와 구성상으로 보았을 때 『사씨남정기』와 유사하다.

다음, 당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눈을 통해 그 시대의 언어, 문화, 관습, 풍습 등을 드러내는 소설 작품의 배경은 행동의 주체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48]

두 작품의 창작 연대로 보았을 때, 『사씨남정기』는 17세기 후반 조선 후기에 창작되었고 『任蘭香』은 명말청초(明末淸初)에 창작된 것으로 역시 17세기 후반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소설의 배경은 자연적 배경,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시대·사회적 배경의 유사성은 작품 내용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데서 『사씨남정기』와 『任蘭香』은 동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비교 연구의 전제에 충족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세정소설의 대표작으로 공인되는 작품은 이 장르의 개산지작(開山之作)인 『金瓶梅』와 중국 고전문학의 최고 성과를 이룬 『紅樓夢』이라 할 수 있다. 『林蘭香』은 두 작품 사이를 이어준 과도(過渡)시기 작품으로, 문학성에서 두 작품을 따르지 못하고, '사대명저(四大名著)'의 으뜸으로 꼽히는 『紅樓夢』보다 널리 읽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지만, 韓·中 작품의 비교를 통하여 『사씨남정기』를 교육하고 『사씨남정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할 때, 작품의 창작연대,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사씨남정기』와 더욱 유사한 『林蘭香』이 『金瓶梅』나 『紅樓夢』보다 비교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선정하였다.

『林蘭香』 텍스트 자료의 선택은 아래 [표Ⅰ-2]와 같다.

세정소설(世情小說) 계열에 속하기에 <사씨남정기>와 함께 통속인정소설의 전통에 일단 서있다고 판단된다.

48) 구인환·구창환 공저, 『문학개론』, 삼영사, 1981, p.201.

[표 Ⅰ-2]『林蘭香』[49] 텍스트 자료	
『林蘭香』, 隨緣下士(淸) 著, 鄭福田, 王槐茂 主編 , 北京:金城出版社, 2000.	소장된 판본 중, 연대가 가장 오랜 대련도서관장 도광十八年戊戌(1838)본아장판본[大連圖書館藏道光十八年戊戌(1838)本衙藏版本]을 저본(底本)으로 교주하고 출간하였다.

3.2 연구 방법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연구의 목적을 조망하여 본고는 한국어 문학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한국 고전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고전 읽기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한국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참신한 시도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교육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 대상이 한국과 공동 문화권을 향유해온 중국인이기에 작품의 유사현상을 비교하는 대비연구의 방법을 차용하여 韓·中 양국의 유사한 문학 작품의 비교를 통해 한국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50]

따라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필

---

49) 隨緣下士(淸) 著, 鄭福田, 王槐茂 主編,『林蘭香』, 北京: 金城出版社, 2000.
한국에 아직 번역문이 출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하, 별도의 언급 없이 본 연구에서는 이 단행본에 의거하여 인용할 원문을 직접 번역하여 제시하고, 각주에 원문(한문)과 페이지수를 병기하면서 표시하도록 한다.

50) 김흥규가 「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고전문학은 "오늘날의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자의" 문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고전문학을 수용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인의 "우리"와는 달리 상대되는 '타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의 이해와 해석은 비슷할 수도 있으나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김흥규,「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국어국문학회 편,『대학의 국문학교육』, 지식산업사, 1993 참조.
따라서 타자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각자가 지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시각으로 한국 고전을 이해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대다수 한민족(韓民族) 구성원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고전문학의 전통을 파악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은 또한 비교문학 관점을 적용한 고전문학 교육이 가지는 의의이기도 하다.
고정희,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pp.143-144 참조.

요한 작업인 작품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비교문학적 관점을 적용한 유사현상 대비의 비(非)영향 연구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방법론적 제시는 Ⅱ장에서 단독으로 상세하게 논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교육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 고전소설의 중요한 장르인 가정소설의 대표작 『사씨남정기』의 교육 방안을 형성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으며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한 비교· 학습의 과정을 거쳐 텍스트 독해 능력과 한국어 표현 능력의 향상 나아가 문학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아울러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교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L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 고급(TOPIK Ⅱ) 5, 6급을 통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와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8년 9~10월 한 달 사이에 25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실험 수업은 9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9년 7~8월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예비 조사와 실험 수업을 토대로 함께 최종 교수·학습 방안을 형성하였다. 실업 수업의 과정에 대한 소개는 Ⅳ장에서 다룰 것이고 구체적인 실험 정보는 아래 [표Ⅰ-3]으로 제시한다.

[표Ⅰ-3] 실험 정보

실험 차수	실험 시간	실험 대상
예비 조사	2018년 9~10월 1개월	중국 L대학교 한국어 전공 한국어능력시험 고급(TOPIK Ⅱ) 5, 6급을 통과한 학습자 총 25명
조사 목적	사전 예비조사로 학습자들의 韓·中 고전 소설에 대한 관심도를 체크하고 한국 고전 텍스트 독해 능력을 파악한다.	
실험 내용	설문지(25부)/개인 면담 총 약 310분	
실험 제재	『사씨남정기』,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현대어 역 텍스트, 남녀 주인공 혼담 과정 삽화.	
실험 수업	2019년 7~8월 1개월	중국 L대학교 한국어 전공 한국어능력시험 고급(TOPIK Ⅱ) 5, 6급을

		통과한 학습자 총 9명(예비 조사 참여)
실험 목적	韓·中 작품 비교를 통한『사씨남정기』교육 방안의 설계.	
실험 내용	본 수업(400분)/수업 과제(9부)/1대1 심층면담(360분)	
실험 제재	『사씨남정기』,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林蘭香』, 隨緣下士(淸) 著, 北京: 金城出版社, 2000.	
*예비 조사, 실험 수업의 학습자 대상은 모두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족(漢族) 학생으로, 대학 입학 전에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해본 경력이 없다.		

Ⅱ.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전제

1. 비교문학의 이론적 근거

1.1 비교문학적 관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학 교육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점과 방법들은 다양한데, 본 연구는 비교문학(比較文學)을 선택하고자 한다.

비교문학은 특정한 나라의 한계를 넘어선 문학의 연구로, 한 나라의 문학과 다른 혹은 수개의 문학의 비교이며, 더 나아가 다른 인간의 표현 영역의 비교이다.[51]

비교문학에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이 있다. 하나는 프랑스 학자에 의해 확립한 영향관계의 비교연구, 즉 문학적 영향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인과론적 방법으로 발당스뻬르제, 아자르, 빵띠겜, 까레, 귀아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비교문학의 전통이론에 반론을 제기한 웰렉이나 워렌 등과 같은 미국학자들에 의해서 비롯된 유사성의 대비연구, 즉 작가나 작품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학현상을 대상으로 문학 간의 유사성을 대비하여 보편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일반문학적인 방법을 이른다. 만약 전자가 문학 외적인 연구에 편향하고 있다면 후자는 작품의 내재적 미학의 고찰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문학사의 한 분야로서 사실적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 학파에 의해 개척된 전통적인 비교문학의 특징을 귀납해보면 "첫째, 국제간 문학교류사를 전제로 한다. 둘째, 수용 및 영향 관계에 있는 문학의 비교를 중시하고 영향과 수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셋째, 문학작품 자체의 비교를 강조한다. 넷째, 영향관계가 없는 문학 간의 비교는 '비교'가 아니라 '대비'로 본다."[52]

---

51) 이혜순 편, 『比較文學Ⅱ: 論文選』, 中央出版, 1981, p.178.

하지만 1960년대 비교문학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옮겨가면서부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종래로 영향 관계에만 입각한 한정된 연구에서 벗어나 대비연구까지 포함시켜 연구 영역이 확대되어 비교문학과 일반문학이 합류될 수 있는 계기와 접점이 생겼다.

프랑스 학자와 달리, 보편성을 추구하여 일반문학으로 비교문학을 폭넓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미국 학자들은 문학의 비교는 그들 상호 간의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지 않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학 간의 유사성에 대한 대비연구를 중요하게 취급하였다.[53]

대비연구에 대해 김학동은 "작품과 작품 간의 비교에서 어떤 유기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 유사현상을 선택하여 해석하는 것"[54]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비연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유사한 문학적 소재, 모티프, 이데아 등"[55]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사현상과 비유상현상의 고찰을 통해 이동성(異同性)을 구명하는 대비연구에서 "영향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유사현상의 판단이나 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56], 작품의 유사현상의 발생은 우연이 아닌 당시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및 시대 상황과 환경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하며 대비연구에서 궁극적으로는 선정된 유사현상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비교문학은 "유사성, 동류성, 영향 관계들의 탐색을 통해 문학을 표현이나 인식의 다른 분야들에 접근시키고, 비록 동일한 전통의 일부분이지만 여러 언어나 문화에 속해 있어서 시간이나 공간상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문학적 사실들이나 문학 텍스트들을 더 잘 묘사하고 이해하며 음미하기 위해 서로 비교하는 방법론적 기술이다."[57]

---

52)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2005, p.47.
53) 이혜순 외, 『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태학사, 2002, pp.24-25.
54) 김학동, 『比較文學論』, 새문社, 1984, p.56.
55) 김학동, 위의 책, p.56.
56) 김학동, 위의 책, p.57.
57) Claude Pichois & André-M. Rousseau, *La Littérature comparée*, A. Colin, 196

1.2 비(非)영향 연구의 방법론

韓·中 양국은 문화 교류역사가 오래됐고 서포 김만중 또한 한문에 정통(精通)했지만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두 작품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입증한 실증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으니, 이 두 작품의 창작연대가 동시적인 것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비(非)영향 연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 유사현상을 대비하는 비(非)영향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문학 간의 유기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대비연구에서 유사한 문학적 소재, 모티프, 아데아 등이 유사현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기고 한다.

알드릿지(Aldridge)는 문학작품에서의 유사현상을 편의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바로 표현형식의 유사성과 사고의 유사성과 인간관계의 유사성이다. 그중 표현형식의 유사성은 시, 소설 그리고 극과 같은 문학의 주요 양식이 있고, 사고의 유사성으로는 철학과 종교가 대표적이며, 인간관계의 유사성은 소설이나 연극 같은 데 나타나 있는 인간행동의 복잡성으로, 그 플롯이나 성격묘사나 주제에 의해서 표현된다.[58]

여기에서 특히 '인간관계의 유사성은 소설이나 연극 같은 데 그 플롯이나 성격묘사나 주제에 의해서 표현되는 인간행동의 복잡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설 문학의 유사현상 비교에서 작품에 반영되는 인간관계에 주목하여 작품의 구성 즉 플롯, 인물의 성격적 특징 그리고 주제에 주목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작품의 플롯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시·공간을 달리하는 민족과 국가 사이의 사유방식, 심미 취미, 풍속 습관, 도덕윤리의 공통점과 차이점[59]을 밝힐 수 있다는 데서 대비연구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역으로

7, p.174. (Yves CHEVREL, *La Littérature comparée*, 박성창 옮김,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2002, p.41에서 재인용.)

58) Alfred Owen Aldridge, 『比較文學-日本と西洋』, 南雲堂, 1979, pp.49-52 참조. (김학동, 앞의 책, pp.56-57에서 재인용.)

작품의 유사현상 대비에 있어서 플롯 비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 연구에서 인물, 주제에 대한 연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임은 불언자명하다. 비교문학에서 역시 인물과 주제를 다루는데 이 모두 주제학(thematology)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비교문학에서의 주제학은 광범위한 용어로서 같은 공동체 문학의 유사한 제재, 인물, 모티프, 주제 대해 연구하기도 하고 다른 민족의 문학에서 같은 제재, 인물, 모티프, 주제 상황, 이미지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기도 한다.[60]

소설 연구에서 인물 연구가 중요하듯이 주제학에서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물에 대한 연구는 보통 전형적 인물의 대비연구를 말한다. 전형적 인물은 다양한 민족과 작가들에 의해 널리 창작되어온 고대 신화나 민간 전설 중의 원형적(原型的) 인물 형상 혹은 작품이 창작된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 형상 더 나아가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인물 형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품 속 등장하는 전형적 인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유사성으로부터 인간 행위의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고, 차이점으로부터 인물을 통하여 구현된 한 민족 혹은 집단, 나라의 민족성과 시대적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주제는 문학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중심 사상, 핵심적인 의미이자 더 나아가 당하(當下)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의 표출이기도 하다. 비교문학에서 주제의 대비는 공통된 주제를 찾아내어 주제 형성의 근원(根源)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대비를 통하여 작가의 문제의식과 사상을 파악함으로써 비교되는 문학의 공통성과 연관성을 알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 표현의 차이점으로부터 두 나라의 사회와 문화, 사상과 이념 등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이 할 수 있는

---

59) 王向遠,『比較文學學科新論』, 1962, 문대일 옮김,『비교문학의 열쇠』, 한국학술정보, 2011, p.165 참조.

60) 主題學的研究對象包括對文化作品的主題、母題、意象、人物、情境和慣用語的研究。
주제학의 연구 대상은 문화작품의 주제, 모티프, 이미지, 인물(캐릭터), 환경과 관용어 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方漢文,『比較文學基本原理』, 蘇州大學出版社, 2005, pp.93-98 참조.

것이다.

이렇게 비교문학 연구는 “문학 간의 단순한 수용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문학의 보편성과 독창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6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교문학의 방법을 차용하여 『林蘭香』과의 비교를 통한 『사씨남정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2.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의 근거

2.1 한국의 가정소설과 중국의 세정(世情)소설

한국에서 가정소설은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로서 그 개념에 대해서는 그간 선학(先學)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언급되어져 왔다.

최초로 가정소설이란 명칭과 유형을 언급했던 학자는 안확(安廓)이다. 그 후 김태준은 공안류(公案類)에 계모소설을 언급하면서 제재 측면에서 가정소설의 의미를 밝히었다.

조윤제(趙潤濟)는 “가정소설이라 한 것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실에서 취재한 소설을 의미하고자 한 것인데 가정 내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로 계모와 선처소생(先妻所生)과의 관계사(關係事) 혹은 처첩 간에 일어나는 사실 등이 되겠다”[62]고 언급하여 가정소설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취재한 소설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정주동, 김기동, 소재영, 김광순은 유교적 윤리에 기반을 둔 동양의 가족제도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기에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는 사건들을 소재로 다룬 작품을 가정소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김광순은 “가정소설은 가정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혈연적 조직체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61) 축취영, 앞의 글, 2012, p.30.
62) 趙潤濟, 『國文學槪說』, 乙酉文化社, 1975, p.150. (김귀석, 앞의 책, p.20에서 재인용.)

갈등이나 가정과 가정 혹은 한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63]이라고 보았다.

우쾌제는 가정의 기본적 구성요소에 의해 가정소설의 개념을 “가족 구성원 간의 윤리적이고 이질적인 신분적 갈등을 표현한 작품”[64]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귀석은 가정소설의 공통성을 추출하고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가정소설은 “공간적 배경을 가정 내로 하고, 가족 구성원을 작중인물로 하며 처첩 간과 계모와 전실소생(前室所生) 간의 갈등, 알력, 불화로 인한 비극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양적 가족제도의 모순과 건전한 가정윤리의 제고를 주제로 한 소설”[65]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리고 가정소설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66]

(1) 가정 내의 문제를 소재로 한다.

(2) 가정의 구성원인 자연적 구성원(혈연관계)과 비자연적 구성원(비혈연적 관계) 간의 불조화로 사건이 일어난다.

(3) 가정과 관련한 제도적 모순과 가화(家禍)의 폐해를 시정, 경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올바른 가족윤리, 가정도덕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가정(문)소설’은 ‘가(家)’를 배경으로 하여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가문 내 갈등 또는 가문 간 갈등을 다룬 소설로 정의[67]할 수 있다.

중국의 가정소설은 세정소설(世情小說)의 맥을 이어왔기에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단독으로 꺼내어 독립적인 장르로 취급하지 않고 세정소설의

63) 金光淳,『韓國古小說史와 論』, 새문社, 1990, p.481. (김귀석, 앞의 책, p.21에서 재인용.)
64) 우쾌제,「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열녀전>의 전래와 수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28.
65) 김귀석, 위의 책, pp.21-22.
66) 김귀석, 위의 책, pp.22-23.
67) 정보미,「플롯 중심의 고전소설 교육 연구 -17세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29.

하위 장르로 포함시켜 함께 다루곤 한다.

세정소설은 글자 의미 그대로 세태와 인정을 다루고 묘사하는 소설 장르이다. 이 부류의 소설을 최초로 하나의 장르로 인식하고 명명한 학자는 노신(魯迅)이다. 그 후 세정소설이란 용어에 대한 논쟁(세정인가 인정(人情)인가)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류의 소설이 전대의 역사연의, 신마소설과 제재상으로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즉 '가정가 혼인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의 일상생활과 세태의 변화를 묘사하고, 묘사의 대상이 평범한 인간 사회(노신이 말한 바 인사(人事)를 기록하는), 다시 말해 당시 현실 사회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다른 유형의 소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68]

사실 현실 생활에 주목하여 가정사(家庭事)를 다루는 전통은 세정소설의 등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이미 강사(講史)나 신마소설(神魔小說)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단지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한 조각에 불과했고, 명대(明代) 중엽에 이르러 등장한 <金瓶梅>에서 '가(家)'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고 인사(人事)를 중심에 두고 묘사하면서 '가정과 혼인을 중심에 두고 인사와 세태를 기록하는' 세정소설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69]

<金瓶梅>의 성공 이후 세정소설은 명말청초의 발전을 거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는데 거기에는 한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삶의 희비를 그리는 가정소설이 있고, 남녀의 사랑과 혼인에 초점을 좁힌 재자가인소설이 있으며, 연애와 결혼생활이 결합된 인정소설 등이 있다.[70]

비록 포함되는 유형이 잡다하지만 세정소설이라는 장르가 혼인과 가정을 주축으로 하여 광범위한 세정을 두루 반영하며, 한층 더 나아가 국가의 흥망까지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때[71], 한국의 가정소설보다 그 범주가 넓지만, 서사의 중점을 역시 남녀의 사랑과 혼인, 가족 내부 구성원

68) 송진영, 앞의 책, pp.12-17 참조.
69) 韓石,「略論中國古代家庭小說類型的興起與演進」, 南京師大學報, 2010年 11月 第6期, p.86 참조.
70) 송진영,「世情小說의 名稱에 관한 고찰」,『기전어문학』제17집,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5, pp.181-182.
71) 송진영, 위의 책, p.18.

간의 갈등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는데 두고 현실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데 놓고 있기에 한국의 가정소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韓·中 양국의 가정소설과 세정소설은 모두 사회형성의 기본이며 최소 단위인 '가(家)'[72]의 문제를 주대상(主對象)으로 하고 인간의 현실 그 사소한 생활까지 중요히 다룬다는 데서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갖는다.

2.2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공통적 특성

본 절에서는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이 비록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지만 작품의 창작이 공시적인 것, 그리고 유사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비교의 근거로 두 작품의 공통적 특성에 대해 논하겠다.

『사씨남정기』는 17세기 후반 조선 후기에 서포 김만중(西浦, 金萬重, 1637~1692)이 창작한 것으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추측하고, 『林蘭香』의 창작 연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명(明)나라 말기부터 청(淸)나라 초기 사이에 창작된 견해, 즉 강희(康熙)(1654~1722)시기 창작설(創作說)을 따르겠다.[73]

---

72) 가문(family)이란 개념은 개별적인 단위가 아니라, 가능성들의 모체(matrix), 그 안에서 성적 지속과 붕괴, 부부 생활의 지속이나 붕괴, 부모 관계의 지속과 붕괴, 세대 관계의 지속이나 붕괴 등에 기여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의 모체로 이해된다.
Denis Jonnes, *The Matrix of Narrative-Family Systems and The Semiotics of Story*, Mouton de Gruyter, 1990, p.89.

73) <林蘭香>의 구체적인 창작 연대에 대한 견해는 아래 3가지가 있다.
① 청대[淸代] 강희[康熙](1654~1722)시기에 창작되었다고 보는 견해,
② 청대[淸代] 건룡[乾龍](1711~1799)시기에 창작되었다고 보는 견해,
③ 청대[淸代] 도광[道光](1782~1850)시기에 창작되었다고 보는 견해.
<林蘭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20세기 80년대부터 활발하기 시작했고 <林蘭香>의 창작 연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명말청초(明末淸初)에 창작된 것, 즉 강희(康熙, 1654~1722)시기, 17~18세기에 창작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첫 번째 견해 강희시기 창작설(創作說)을 따르겠다.
작품의 구체적 창작 시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사씨남정기』는 조선조에 창작된 것으로, <林蘭香>은 청대(淸代)에 창작된 것으로, 두 나라는 모두 봉건적 유교사회를 겪고 있기에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서포가 주로 활동했던 17세기 후반은 봉건적 제관계(諸關係)가 급변을 겪던 시대로, 농업생산력의 발전 및 상품화폐경제의 새로운 전개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힘겹게 유지하는 양반층의 몰락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봉건적 신분제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의 충격으로 흔들리고 서서히 무너지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새로운 생산관계의 전변으로 작용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봉건지배층의 탐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결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늘어난 생산량의 절대 부분은 봉건정부와 양반지주의 수탈 대상으로 되었고[74] 이로 인해 매관매직과 탐학이 공공연히 감행되면서 관리임명제도 역시 문란한 상태에 빠졌다.

> 동청은 진류에 부임한 뒤 오로지 탐욕만을 일삼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엄숭에게 보냈다.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여겨 엄숭에게 편지를 보냈다. … 엄숭이 그 글을 보고 즉시 천자에게 아뢰었다. … 마침내 동청이 계림 태수가 되게 했다. (pp.114-115.)

위 인용문은 매관매직과 탐학의 역사적 현실을 『사씨남정기』에서 사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작품 배경을 중국 명나라 가정(嘉靖)황제 연간이라는 실제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장기간 국정(國政)을 농단하고 탐욕하며 『명사(明史)』에 육대간신(六大姦臣)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릴 만큼 악랄한 실존인물 엄숭(嚴嵩)[75]을 빌어 당시 시대의 혼란상과 폐정(弊政)을 폭로했다.

『林蘭香』이 창작된 명말청초(明末淸初),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건국하며 역시 사회가 급격히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명(明) 중엽(中葉) 자본

74) 한국역사연구회 편, 『한국사 강의』, 한올아카데미, 1990, p.196.
75) 엄숭(嚴嵩)은 재상 자리에 올라 장장 20년 동안 국정을 농단하면서 아들 엄세번(嚴世蕃)과 더불어 기탄(忌憚)없이 뇌물수수 등 행위를 휘두르고 하언(夏言) 등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면서 붕당(朋黨) 세력을 키워 당쟁(黨爭)을 심화시켰다. 張顯淸, 『嚴嵩傳』, 中國科學院圖書館, 2014, p.2 참조.

주의의 물결이 당시 침체한 사회생활에 생기와 희망을 안겨줬지만, 명청(明淸)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르러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고 상업에 대한 열기는 중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쪽이 아닌 부패와 비리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울였다.[76] 이러한 혼란한 사회상과 통치자의 무능함은 작품의 시작부분 여자 주인공 燕夢卿의 부친 燕玉이 과장무폐안(科場無弊案)에 연루되어 누명을 쓰는 데에서 일부 반영되었고, 또한 燕夢卿과 적대적 관계에 위치한 인물 任香兒의 부친 任自立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도 그 당시 이치(吏治)의 부패와 정치의 타락상[77]을 다소 알아 볼 수 있다.

> 부친은 원래 선비였는데, 자립은 어릴 적부터 학문을 닦지 않고, 장사를 하다가…나중에 돈으로 잡직雜職을 사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노새 타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의 경봉敬奉을 구걸했다.[78]

이렇게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은 비슷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작품은 어느 시대보다도 유교적인 이데올로기가 가장 철저하게 지배하였던 17세기 후반 韓·中 사회를 그 창작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봉건적 가부장제를 비롯한 가족제도를 실행하는 '가(家)'를 중심에 두고 다룬 소설로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고전소설 소설 작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회이고 사회는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되고 있다. "주인공의 행·불행은 모두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성립되는 사회에 기인하고 있어, 때로는 사회와의 투쟁(鬪爭)을 통해 삶의 욕구를 발산하고 그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거나 종국으로는 사회의 반도덕적 횡포에 의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진다. 비록

---

76) 史式 지음, 김영수 옮김, 『청렴과 탐욕의 중국사: 중국 관료 열전』, 돌베개, 2007, pp. 102-103.

77) <林蘭香>은 <사씨남정기>와 마찬가지로 환관(宦官) 조길상(曹吉祥)이란 실존 인물에 의하여 발동한 조석지변(曹石之變)이란 역사적 사건을 빌어 당쟁(黨爭)이 심한 나라의 국면을 반영했다.

78) "父親原是秀才，自立幼不讀書，只作買賣…他又捐個雜職，帶頂頭巾，騎匹騾馬，呼么喝六，討人敬奉。"(p.31.)

소설 속의 사실이지만 한 시대를 가장 영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위치이면서도 다수의 경우는 아니나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여인들”[79]이 있는데 『사씨남정기』의 사정옥과 『林蘭香』의 燕夢卿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

정실이라 하면 가정의 규방을 점령하는 권위적인 존재인 만큼 책임도 함께 따른다. 한 가족의 정실로서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 하고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하며 가문의 번영을 이룩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사정옥은 부덕과 재색을 겸비한 어진 여인이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속(嗣續)의 문제가 하나의 갈등요소로써 스토리의 골격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속의 문제는 전통적 이조(李朝)사회의 가부장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개인 차원을 넘어 가문의 유지까지 확대되어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기에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고 사정옥은 스스로 인고(忍苦)의 삶을 결정한다. 그녀는 자신의 천거에 영입된 첩 교채란의 참소와 모함에 갖은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남편의 의심과 오해로 유문(劉門)에서 축출당한다. 그러나 사정옥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부모님의 묘하에 가서 지내며 유씨(劉氏) 가문의 총부(冢婦)로 끝까지 가문을 받들고 부덕을 실천한다. 심지어 신변에 위험이 있게 되자 친정보다 남편의 고모 두부인을 의탁하러 결국 남정(南征)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 그녀는 정처없이 헤매고 방랑생활을 하면서 온갖 풍상고초를 겪다가 절망하여 자살을 시도하며 죽을 지경까지 이르다가 나중에 남편과 상봉하고 백년해로 한다.

燕夢卿[80] 역시 뛰어난 미모와 고결한 품성의 소유자다. 소설의 첫 시작에 그녀는 누명을 쓴 부친을 위해 혼약을 깨고 상서하여 노비로 된다. 『林蘭香』에서는 일부종사의 윤리와 수절의 문제가 하나의 갈등요소로써

---

79) 김귀석, 「<사씨남정기>의 정실, ‘사씨’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18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p.359.

80) <林蘭香> 중에서 ‘蘭’은 ‘燕夢卿’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이야기 ‘연전몽란(燕鑱夢蘭)’에서 비롯하였다. ‘연전몽란’은 <左傳•宣公三年>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연길몽란(燕姞夢蘭)’이라고도 한다. ‘몽란유조(夢蘭有兆)’와 같은 뜻으로 중국 춘추시대 정문공(鄭文公)의 첩 연길(燕姞)이 하늘에서 내린 난초를 얻는 꿈을 꾸고 문공의 총애를 받아 자식 정목공(鄭穆公)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난(蘭)으로 지은 이야기이다. 중국에서는 ‘난(蘭)’을 군자의 고결한 품성을 비유하는데 쓰기도 한다.

스토리를 이끈다. 실제로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봉건사회에서는 일부종사의 윤리와 여성의 수절을 덕목으로 간주하기에 풀려나온 燕夢卿은 상대방이 취처(娶妻)하고 심지어 첩까지 있어도 스스로 측실(側室)로 자청한다. 燕夢卿은 순천부(順天府) 고귀한 출신과 [효녀절부]라는 명예를 안고 경가(耿家)에 들어가 정실 못지않은 대접을 받아도 본분을 지킨다. 애초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첩 任香兒의 참소와 남편의 오해로 부부간에 불화를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燕夢卿은 매사에 인내하면서 병세가 위독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잉태한 몸으로 손가락을 베어내고 완치하도록 묵묵히 보살피며 출정(出征) 나가는 남편을 위해 긴 머리를 잘라 연갑(軟甲)을 만들어 보내지만 남편은 그녀의 고심을 모른다. 남편이 보내온 가서(家書)에 자신만 언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燕夢卿은 극심한 울분에 시 한 수와 아들 耿順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나중에 耿順은 국공자리를 물려받고 燕夢卿은 [사국절효부인(泗國節孝夫人)]으로 추봉 받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작품의 유사현상에 대해 알드릿지(Aldridge)는 “인간관계의 유사성은 소설이나 연극 같은 데 나타나 있는 인간행동의 복잡성으로, 그 플롯이나 성격묘사나 주제에 의해서 표현된다”고 논의한바가 있는데 소설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연구와 주제 연구가 비교문학에서는 모두 주제학(thematology)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주제는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중심 사상, 핵심적인 의미, 더 나아가 당하(當下)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사고이자 독특한 인생관의 표출이다. 또한 주제는 인물과 플롯을 통하여 구체화된 작품의 추상적인 주지(主旨)이기도하다. 거기에 갈등이 얽혔다가 풀어지는 과정이 플롯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하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가(家)’는 서사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이러한 ‘가(家)’는 서사 전개 과정에서 재건하거나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할 공간으로서 엄존[81]하는 성격을 가진

81) 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국어교육』 제112집,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 pp.406-407.

다. 비록 소설이 가지는 세계는 가공의 허구적 세계이지만 오히려 삶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여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아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의 문제 등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수행[82]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갈등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해소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고 있다.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은 표면적으로 모두 처첩갈등과 부부갈등을 다루었다는 데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하지만 『사씨남정기』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치열한 처첩 갈등이 핵심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첩에 매혹된 가장의 암매함 때문에 은폐되어 있던 부부 갈등이 점점 부상되고, 『林蘭香』은 남녀 주인공의 삶에 대한 이념과 성격상의 현격한 차이로 기인한 부부갈등이 쟁총이라는 처첩 갈등의 작용으로 점점 심화되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갈등을 대처하는 인물의 성격을 비교하거나 더 나아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주제적 차이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양상을 드러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소설의 인물은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 속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83] 인물의 대비 연구 역시 주제학 연구의 중요한 하위 범주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비교되는 인물은 시대와 긴밀히 관련되고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형적 인물이 되는 인물 유형이어야 한다.[84]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나라 문학작품의 전형적 인물의 비교를 통해 주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의 보편성, 특정 집단의 사회성이나 나라의 시대성을 알아낼 수 있다.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사정옥과 燕夢卿의 수난은 17세기 후반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韓·中 양국 사회의 불합리적인 일면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정옥과 燕夢卿은 유교사회 속 '가(家)'를 영위해

82) 김윤식·김현 공저,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p.26.
83)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p.178.
84) 축취영, 앞의 글, 2012, p.29.

나가는 바람직한 여성의 전형으로, 두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인물의 비교와 더불어 이들의 수난에 관여하는 가장 유연수, 耿朗을 비롯한 여타의 인물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들이 여성 중심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조명하고 비교분석하면 인물 창조와 주제 구현에 있어 韓·中 양국 문학의 서사전통의 이동(異同)을 구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씨남정기』는 사정옥 수난의 서사, 『林蘭香』은 燕夢卿 수난의 서사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사씨남정기』에서는 다른 여성을 주선해서라도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려는 봉건시대 가정의 총부의 모습을 사정옥이란 인물을 통해 형상화하였고 『林蘭香』에서는 고귀한 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종사의 뜻을 굽히지 않는 절부의 모습을 燕夢卿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또한 두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의 수난은 다름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기인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현부와 숙덕이라는 명목이 여성에게는 수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시대 속에서 여성의 특수한 운명을 여실히 반영하고 보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의 이면에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성격도 없지 않다. 단지 결말로 놓고 보았을 때, 부부재회와 함께 사정옥은 다시 정실의 자리에 복귀하면서 수난의 결속을 의미하고 교채란은 죽음을 맞이하는 파국으로부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사정옥의 경우 굳건한 신념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추구하던 삶을 되찾음으로써 가부장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공고히 되었고, 교채란의 경우 개인의 욕망 추구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설정되어 파국을 맞이함으로써, 가부장제의 힘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85] 『林蘭香』도 마찬가지로 비록 燕夢卿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은 국공의 자리를 물려받아 대신 보상을 얻었으며 그녀 사후의 미명은 온 천하에 가득했고 [사국절효부인(泗國

85) 이재영, 「조선조 고소설의 서사전략과 이데올로기 연구 -<사씨남정기>,<옹고집전>, <배비장전>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1.

節孝夫人)]으로 추봉까지 받은 것으로 작중 다른 인물들이 절대로 따르지 못하는 상당한 보상을 얻은 셈이다. 즉 이러한 보상기제는 결과적으로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두 작품에서는 여성 중심인물 및 그녀와 적대적 관계에 위치한 인물 사이의 갈등 대립을 선악 대립 구도로 범주화하여 이러한 인물들 사이의 갈등 대립상황이 『사씨남정기』에서는 '권선징악, 사필귀정(勸善懲惡, 事必歸正)'의 논리를, 『林蘭香』에서는 불교(佛敎)의 인과응보(因果應報)와 도교(道敎)의 승부설(承負說)[86]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기능과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은 여성수난 서사이자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소설 작품으로, 이중 서사라는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 서사의 성격으로 인해 17세기 후반기의 韓·中 가정소설은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사회, 가정윤리와 관습의 굴레에서 여성부정적 의식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론적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성격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가정소설 계층을 망라하여 시대의 질곡에 고통하고 있는 가정 내의 여인들의 현실적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소설이 바로 여성소설적인 성격을 띤 장르인 점도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87]

아울러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은 정치적으로 혼돈을 겪고,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봉건적 신분제의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현실을 가부장 제도에 근간을 둔 사대부가 내에서 사정옥과 燕夢卿이라는 전형적 인물을 중심축에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며 형상화하여 반영한 작품이다. 물론 작자에 의해 창조된 인물 형상과 소설에 드러나는 사회적 배경

---

86)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저질렀어도 입신출세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불평등현상이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보응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해답을 도교(道敎)는 '승부설(承負說)'로 시도했다. 현세(現世)의 불행을 모두 선대의 과오로 돌렸는데 이것이 바로 '승부(承負)'의 작용이다. 한 사람의 조우(遭遇)는 그 조상들 행위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행위 역시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승부설(承負說)'이다.
송진영, 앞의 책, pp.84-85.

87) 김귀석, 앞의 책, pp.18-19.

은 작자의 세계관을 통해 굴절된 현상이라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나 작중 인물을 포함한 제 사회 현상들은 당시 사회의 중요한 면모를 개괄적, 집중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예술적 진실성에 의해 돌출된 역사적 상징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88]에서 두 작품의 이러한 유사현상들은 우연이 아니고 비교 연구의 전제를 충족한다고 하겠다.

3. 비교 교육의 항목

3.1 갈등

서사 문학에서 갈등은 등장인물들의 연쇄적인 행위의 무의미한 나열이나 단순한 일상적인 삶의 반복의 재현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얼크러지게 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자 플롯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하며 선명하게 드러난다.[89]

특히 서사 문학을 대표하는 하위 장르인 소설은 “갈등관계를 드러내는 양식”이며 소설에서 구성은 “갈등 구조가 맺혔다가 풀어지는”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장치로써 작동[90]하는데 이로써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양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91] 갈등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해소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갈등은 작중인물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자는 사건을 생산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갈등되는 인물들의 행위들을 통하여 나타낸다. 나아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이나 탐구를 통하여 주제에 이르게 한다.[92]

문학교육은 작품의 정밀한 검토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적어도 교육의 장

88) 조병한,「홍루몽의 사회학적 분석」,『부산사학』 제11집, 부산사학회, 1986, p.93.
89) 한용환,『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01, pp.21-22.
90) 조남현,『소설원론』, 고려원, 1991, pp.191-192.
91) 한용환, 위의 책, p.22.
92) 현길언,『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길사, 1994, p.241.

속에서 존재하는 작품은 단순한 읽을거리로서 독서의 대상이 아닌, 진지하게 천착해야 할 탐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학교육은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질서를 이미 전제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된다.[93] 갈등의 주체인 인물에 대한 분석, 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분석, 해결에 대한 탐색이 바로 그것이다. 갈등에 주목하면 작품을 통합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인물의 욕망과 그 추구과정, 즉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작품에 그려지고 그것의 창작 및 수용에 관련된 여러 사회 현실과, 그들을 지배하는 이념, 사상, 제도 등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94]

한 작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엮여 있으며, 하나 이상이 갈등이 존재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갈등관계에 놓여 있으며, 드러난 갈등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심층의 갈등도 내포되어 있다. 즉, 서사 문학에서 갈등은 플롯의 지배적 요소로 사건을 단계적으로 이끌어가며, 작중 인물 간의 차이를 드러내며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기여한다. 작품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갈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할 때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의 핵심 내용을 온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인물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며, 갈등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각 작품의 양상에 알맞게 읽어야 한다.[95]

따라서 작품의 비교에서 갈등에 대한 비교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작중 인물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갈등을 통하여 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를 알아낼 수 있고 나아가 갈등의 전개와 해소 과정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에 대한 이해까지 이르게 된다.

3.2 인물

소설교육, 나아가 서사교육, 문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인물(人物, charac

93) 김상욱, 『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84.
94)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 지성사, 2010, p.98.
95) 최시한, 위의 책, p.92.

ter)'은 서사 양식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로 소설 교육의 주요 내용이며,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 영역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내용 요소이기도 하다.[96]

소설 읽기 교육에서 말하는 인물은 해석 대상으로서의 인물 형상, 즉 특정 작품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텍스트 상에 언어적 형상으로 존재한다. 이는 독자의 읽기 과정에서 의미가 구현되는, 독자의 탐구 대상으로서의 '인물'이다.[97] 즉 형식적 구성요소로서 인물은 소설에 등장하는 개개인들을 의미하고, 해석 대상으로서의 인물은 등장하는 개개인들을 구성하는 관심(interests), 욕망(desires), 감정(emotions) 그리고 도덕적 기준(moral principle)의 복합체 즉 성격을 의미한다.[98]

실질적으로 인물 읽기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작품에서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통해 파악되는 욕망, 심리적 동기 등은 인물 이해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인물의 성격 파악에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와 함께 궁극적으로 그의 행동이 어떤 중심사건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으로 수렴되는가, 즉 그것이 주제적 논리나 중심사건을 추동하는 핵심적 갈등의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99]

따라서 작중인물 이해는 소설 텍스트에 언어적 구조물로 존재하는 인물의 성격을 해석하고 이를 자기화하는 활동으로, 학습독자들이 소설 텍스트를 읽으면서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의 전개 양상 속에서 작중 인물을 해석하는 데 표지가 되는 언술을 찾아내어 그 인물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특질을 발견하고, 그러한 특질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이다.

작가는 소설작품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삶

---

96) 이상일, 「고전소설의 인물 이해 교육 연구 -인물 정보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1.

97) 이상일, 위의 글, p.33.

98) "The term character" is commonly used in two ways: it designates the individuals who appear in the story, as in "How many character are there? " and moral principles that make up each of these individuals, as in "How would you describe his character? " Robert Stanton, *An Introduction to Fic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99) 최시한, 앞의 책, 2005, pp.175-182 참조.

의 가치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소설에서 표현된 작가의 가치관, 인생관은 작중 인물의 성격 즉, 그들의 행위나 언어, 사고에 의해서 표현된다. 소설에서 사건의 주체는 인물이다. 독자는 소설작품을 읽고 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에 흥미와 감동을 느끼면서 인물들 내면 혹은 사이에 생기는 충돌과 갈등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주제를 이해한다.

특히 고전소설은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의미를 살피는데 있어서 인물 대비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하며 의미 있다.[100]

3.3 주제

주제는 스토리에 대한 의미이다. 주제는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의 존재 의미를 밝혀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하나의 문학 작품의 근본적 의도, 본질적 개념, 지배적 태도, 전체적 의미의 구현이자[101]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중심 사상, 핵심적인 의미, 더 나아가 當下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사고이자 독특한 인생관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소설은 작가의 주제의식이 형상화된 허구의 세계이지만 가치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있으므로 작가가 소재를 다루어 나가는 통일 원리가 곧 주제[102]이고 작품의 총체적 가치체계라 할 만하다.

또한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여 스스로 묻고 독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작가는 선택된 제재를 가지고 알맞은 기법으로 자신이 다루고자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심하고 노력한다. 이때 소설에서의 갈등은 사건 전개의 주된 동인이 되고 소설의 주제형성 구조에 근간이 된다. 갈등이 없는 소설은 구성에서 인과성이 미약하므로 주

---

100) 김경미, 「<사씨남정기> 작중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4.
101) 이재선·신동욱 공저, 『文學의 理論』, 學文社, 1990, p.115.
102) 김동리, 『소설작법』, 청운출판사, 1966, p.24.

제형성에 명확성이 결여된다. 갈등이 빚어지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작가가 나타내려는 그 무엇이 곧 작품의 주제이다. 따라서 주제는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사상이요,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창작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인생의 존재를 밝히고 모순된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그것을 초극할 수 있는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103]

한마디로 주제란 작가가 제재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다. 소설작품의 감상은 주제의 정확한 파악이 요체이다. 사실 그간의 문학교육에서주제 교육은 학교 현장에 다소 도식적으로 적용된 면이 없지 않지만, 문학 작품을 읽어서 작품이 갖는 의미를 찾아내고 작가의 의도를 추리해보는 '주제 파악하기 '활동은 여전히 교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일 것이다.[104]

한 편의 소설작품은 작자에 의해 하나의 주제로 형상화되어 있고, 독자는 자신의 문학적 이해력을 동원하는 과정을 거쳐[105]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제의 이해는 곧 작품의 완전한 감상을 의미하며 또한 문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다. 하여 작품에 대한 전면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비교가 빠져서는 안 되고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103) 김상욱, 「전형성의 이해와 소설교육」, 『小說敎育倫』, 평민사, 1995, p.322.
104) 우한용, 「소설 텍스트 중심으로 본 문학능력과 한국어교육」, 『한국어와 문화』 제7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0, p.232.
105) 이봉채, 『소설구조론』, 새문社, 1992, p.166.

Ⅲ.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내용

1. 갈등 비교

『사씨남정기』는 '처첩 갈등'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명하다. 사정옥과 교채란이란 인물 형상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두 인물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林蘭香』 역시 '가(家)'를 중심에 두고 처첩 갈등과 부부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사씨남정기』와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갈등일지라도 그 핵심요소는 각각 다르고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갈등의 핵심요소와 해소방식에 주목하여 두 작품의 갈등을 비교하도록 한다.

1.1. 처첩 갈등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갈등을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두 작품의 서사를 남녀 주인공 인물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표Ⅲ-1]과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표Ⅲ-1]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작품 내용 요약	
『사씨남정기』	『林蘭香』
(1) 유연수 및 사정옥의 출신 및 가세를 소개하다. (2) 유연수와 사정옥은 혼인하고 10년 넘게 혈육이 없다. (3) 사정옥의 권유로 들인 첩 교채란이 아들 장주를 낳다. (4) 사정옥이 탄금하는 교채란에게 충고하다.	(1) 耿朗 및 燕夢卿의 출신 및 가세를 소개하다. (2) 燕夢卿은 누명을 쓴 부친을 위해 혼약을 깨고 상서하여 노비로 되다. (3) 燕夢卿이 입궁하는 동안 耿朗은 처 林雲屛과 첩 任香兒을 들이다. (4) 풀려나온 燕夢卿은 耿朗의 측실(側室)로 될 것을 자청하다.

(5) 교채란이 음률을 사양하며 사정옥을 참소하다. (6) 교채란은 사정옥을 낙태시키는데 실패하고 적남(嫡男) 인아가 태어나다. (7) 유연수가 인아를 편애하다. (8) 장주가 병에 들자 교채란은 납매, 동청과 함께 사정옥을 모함하다. (9) 교채란은 동청, 냉진과 함께 간통의 누명을 사정옥에게 씌우다. (10) 교채란은 동청과 설매가 장주를 교살함을 알고도 사정옥을 모함하다. (11) 사정옥은 축출당해 유씨 선영 아래에 거처하고 교채란은 정실이 되다. (12) 교채란과 동청은 냉진에게 사정옥을 속여서 같이 살라고 시키다. (13) 사정옥은 현몽한 시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급히 남행길에 나서다. (14) 교채란은 동청더러 엄승상을 책동하여 유연수를 유배시키다. (15) 교채란은 인아를 죽이라고 시키지만 회심한 설매는 인아를 놓아주다. (16) 교채란은 가중 시비와 보물을 챙겨 동청 따라 부임하러 떠나다. (17) 유연수가 회심하고 해배되며 설매를 만나 사초지종을 알게 되다. (18) 유연수가 사정옥과 재회하다. (19) 동청, 냉진이 몰락하고 죽다. (20) 사정옥이 임추영을 첩으로 천거하고 인아를 되찾다. (21) 창기로 살던 교채란이 징치되고	(5) 燕夢卿은 임금으로부터 [효녀절부] 편액(扁額)을 하사 받다. (6) 耿朗이 燕夢卿의 재덕을 칭찬하자 任香兒는 시기하며 말로 이간질하다. (7) 林雲屛은 정누(正樓)를 넘겨주지만 燕夢卿은 사양하고 매사에 양보하다. (8) 燕夢卿은 耿朗에게 정직한 봉우를 사귈 것을 간언하다. (9) 燕夢卿의 글씨가 실린 부채를 동생이 갖고 있자 耿朗은 의심하다. (10) 과음하여 오염된 옷을 보고 耿朗은 燕夢卿이 간언의 뜻으로 걸어놓았다고 오해하고 반감해하다. (11) 任香兒는 부채는 燕夢卿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참언하다. (12) 耿朗은 燕夢卿이 매사 권고하고 간언할까봐 꺼리어하고 멀리하다. (13) 任香兒는 燕夢卿이 귀신이라고 耿朗에게 겁 먹이다. (14) 任香兒는 가권을 얻고 거처를 옮기며 燕夢卿의 침대까지 뺏다. (15) 燕夢卿은 잉태한 몸에 손가락을 베어내어 위독한 耿朗을 구하다. (16) 燕夢卿은 시녀 田春畹에게 태어날 아이를 부탁하고 첩으로서 지킬 본분을 일러주다. (17) 燕夢卿은 출정 가는 耿朗을 위해 긴 머리를 잘라 연갑(軟甲)을 만들다. (18) 燕夢卿은 아들 耿順을 낳고 그녀의 고심을 耿朗만 모르다.

유문(劉門)이 번영하다.	(19) 耿朗이 보내온 가서(家書)에 자신만 언급하지 않음을 알고 燕夢卿은 극심한 울분에 숨을 거두다. (20) 任香兒는 田春畹과 耿順을 해치지만 田春畹은 燕夢卿의 가르침에 따라 적발하지 않고 참다. (21) 田春畹은 耿順을 정성스레 키우고 임금은 燕夢卿, 田春畹, 耿順을 후하게 봉하다. (22) 耿順은 국공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거생활을 하다가 죽고 경가(耿家)는 희곡 속 이야기로만 남다.

(1) 계후(繼後) 문제의 처첩 갈등

전통적인 조선사회의 가부장제도 하에서 소설의 시작에는 항상 후사(後嗣) 문제가 서두를 이루어 주인공의 귀한 출신을 말함으로써 하나의 구성적 특징이 되고 있지만『사씨남정기』에서는 후사의 문제를 작품의 시작에서 다루는 형식적 서두 말고도 사속(嗣續)의 문제가 하나의 갈등요소로써 전반 스토리의 골격이 되고 있다.[106]

또한 실제로 사속의 문제는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가계의 계승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한 가문의 유지라는 차원으로 확대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였다.[107]

따라서 혼인 후 10년이 넘도록 자식을 출산하지 못한 사정옥은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자식을 나을 첩을 구하다가 마침 교채란을 들이게 된 것이고 교채란은 또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들을 낳았다. 사실 교채란은 애초

106) 송하춘,「<사씨남정기> 재고」,『어문논집』제17집, 민족어문학회, 1976, p.96.
107) 김귀석, 앞의 글, p.363.

부터 자신의 소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부와 귀를 겸전한 사대부 '가(家)'인 유문(劉門)으로 들어와 첩으로 된 것이다.[108]

교씨가 진맥하게 하니, 십랑이 말했다.
"맥으로 보건대 분명히 여자의 태기입니다."
교씨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말했다.
"상공께서 나를 취한 것은 내가 사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후사를 보기 위해서인데 딸이라면 낳지 않느니만 못하다." (pp.34-35.)

그런데 더 나아가 가문 유지의 핵심은 누가 계후(繼後)하는 가에 달려 있다. 즉 정처인 사정옥이 계속하여 후계자를 출산하지 못한다면 교채란의 아들 장주가 순조롭게 유문을 계승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교채란의 뒤를 이어 사정옥도 남아를 낳게 되니 장주는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려난 것과 다를 바 없다.[109] 교채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으며 심중으로 크게 우려한다.[110]

"내가 용모와 자태에서 사씨와 짝할 수 없고, 솜씨 또한 저에 미치지 못하지. 게다가 처와 첩이란 차이마저 있어. 다만 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저는 아들이 없어서 내가 상공의 공경을 받았지. 허나 이제 저가 아들 인아를 낳았으니 장차 그 아이가 이 집주인이 될 것이야. 이제 내 아이는 어디

108) 교채란이 거처하는 곳을 백자당(百子堂)이라 짓는 등 유연수의 행동에 대해 정출헌은 "후사에 대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편집증적인 열망"이 드러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정출헌, 앞의 글, p.400 참조.

109) 조선 태종 때 세워져 『경국대전』에 수록된 <서얼금고법>은 서얼의 신분, 거주, 상속권 등을 제한하고 벼슬길을 막음으로써 한정된 관직을 독점하고 가정재산의 분할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첩과 그의 자식을 사회적 또는 가정내적으로 천시하는 인습을 낳았다.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pp.298-300. (최시한, 「가정소설의 구조와 전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44에서 재인용.)

110) 남편과의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첩은 일단 처와 대등한 관계에 있으나, 처는 가정의 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첩은 언제나 부차적인 존재이며, 주로 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입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신분적 위계는 더욱 분명해지며 첩은 이미 열등한 지위에 처해있고 신분적 갈등은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교채란의 영입에 따라 잠재되었던 갈등의 소지는 교채란이 먼저 남아를 낳고 그 뒤를 이어 사정옥도 득남에 이르러 차츰 표면화 되었다.

에 쓰겠어? 사씨 또한 비록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풀지만 화원에서 꾸짖으며 한 말은 분명 시기였어. 한림에게 한 번 참소하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이 사씨에게 두텁게 치우쳤으니, 나의 앞길을 어찌 걱정하지 않겠어?"

(pp.42-43.)

교채란은 자신과 사정옥의 첩과 처란 신분적 차이로 자기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서 차이로 인해 장래 집 주인은 사정옥의 아들일 거라며 단정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사정옥을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모함의 계략을 세우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사정옥의 득남(得男)은 첫째, 직접적으로 교채란의 아들이 가문을 계승하고 상속할 자격을 잃는 것을 초래하고 둘째, 간접적으로는 아들 상속권의 상실과 함께 자신의 지위 하락이 수반되는 것이다.[111] 즉 사정옥이 남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유가(劉家) 내에서 교채란이 원하는 지위나 권력 혹은 부귀영화 등의 획득은 실질적으로 그녀 아들의 상속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교채란의 아들 장주가 순조롭게 가문을 계승하게 되면 가장의 친모로서 그녀의 신분과 권력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부귀영화는 함께 따르는 셈이다.

때문에 사정옥이 아들을 낳자 교채란은 그녀의 "아들이 장차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적첩의 차이'로 표상되는 첩의 자식의 불안한 입지를 인식"[112]하고 위기의식에 빠지게 되면서 사정옥을 갈등의 대상으

111) "애당초 교씨의 영입 목적이 후사 생산에 있었던 것만큼, '교씨의 존재가치=후사의 생산'이라는 등식관계는 사씨가 생남하지 못 할 경우에만 성립되며, 교씨의 신분 보장 역시 후사 생산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즉 교씨의 후사 생산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사씨에게 후사가 없을 때에만 한한다. 적자 중심이던 당시 사회에 있어서 서자는 적자가 없을 때만 중요시되며, 적장자가 있게 되면 서자는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본처인 사씨의 생남은 적자에 의한 후사 계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자인 장주의 상대적인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주의 가치 하락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씨 자신의 존재 가치 상실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씨의 생남은 그 자식인 장주의 가치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으며, 교씨 자신은 물론 그 자식인 장주의 가치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교씨는 자식을 못 낳는 사씨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했는데, 사씨 스스로 자신의 결함을 충족시켜 버렸기에 교씨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상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원수, 앞의 글, 1991, p.117.

112) 장미, 앞의 글, p.33.

로 여기고 사정옥 모자(母子)를 제거하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 하루는 교씨가 십랑에게 말했다.
> "내가 여자로 다른 사람 아래 있으니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앞날의 화복 역시 미리 헤아릴 수 없다네. … 듣기에 세상에 저주하는 일이 성행한다고 하니 자네는 분명 잘 알 것이네. 만일 나를 위해 사씨와 인아 둘을 없애준다면 이 몸이 죽을 때까지 어찌 은혜를 잊겠나?" (p.45.)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통의 대가로 동청을 끌어들여 사정옥을 모함하는 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 과정에 교채란은 자신의 아들을 교살(絞殺)하는 것을 방조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계후를 핵심으로 하는 처첩 갈등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그녀의 본래의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113)]

동청은 친자를 살해하여 황후로 되는 측천무후(則天武后)의 고사를 교채란에게 들려주면서 큰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장주를 죽여 그 죄를 사정옥에게 씌워 정실이 되라는 제안을 하지만 교채란은 자신의 친자를 이용하는 동청의 계략을 바로 거절한다. 그러나 동청의 독단으로 장주는 납매에 의해 살해되고 장주가 죽게 되자 교채란은 그 배후에 동청이 있음을 눈치 챈다.

---

113) "… 하루는 황후가 방에서 아이와 놀다 나왔는데, 소의(昭儀)가 즉시 그 딸을 눌러 죽이고서 '누가 내 딸을 죽였나'하며 대성통곡했소. 궁인들을 심문하니 모두 '황후가 방에서 나왔다'고 하였소. 황후는 끝내 무죄를 밝힐 수 없었고 고종(高宗)은 마침내 황후를 폐하고 소의를 황후로 삼았으니 바로 측천무후(則天武后, 당나라 고종의 황후로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제(女帝)가 되었다)요. …"
교씨가 동청의 등을 치면서 말했다.
"호랑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돼서 어찌 자식을 죽이겠어요? 당신 의도를 보니, 이는 분명 다른 아이를 죽이고 자기 자식만 보호하려는 계책이에요." (중략)
"이 계책은 차마 쓸 수 없으니 다시 다른 계책을 생각해보세요." (중략)
"낭자의 사람됨으로는 내 계책을 쓰지 못할 것 같다. … 너는 틈을 타서 반드시 이 계책을 실행토록 해라."
납매가 받아들이고, 기회를 틈타 손을 쓰고자 했다. (중략)
교씨가 대성통곡하며 급히 뛰어나와 보았다. 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었다. 동청이 쓴 계책임을 알았으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계책을 이루기 위해 한림에게 달려가 알렸다. (pp.62-64.)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 교채란은 동청의 자식인 봉추만 남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며, 사정옥이 축출당하지 않으면 자신이 쫓겨날 처지이자 스스로도 사정옥을 모함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악행을 해왔는지 자각하고 있기에 동청의 소행이라 밝히지 않고 그 죄를 사정옥에게 씌워 계략을 계속 완수하기로 결정한다.

즉 자식은 이미 죽었고 사정옥과 갈등하기에 앞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 우선이기에 교채란의 일련의 선택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곤경은 교채란 스스로에 의해 자처한 것임은 자명하고 그녀의 행동을 통해 자식의 죽음보다 자신의 처지가 먼저임을 보아낼 수 있다. 사정옥이 축출당한 후 교채란의 행동 역시 사정옥의 복귀를 막아 자신의 악행이 적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씨남정기』에서는 대량의 편폭으로 사정옥과 교채란 사이의 갈등을 첨예하게 그렸으며 이러한 처첩 갈등의 핵심요소는 적서 차별로 기인한 계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쟁총(爭寵)의 처첩 갈등

『林蘭香』에서도 역시 처첩 갈등이 부각되었다. 처음 任香兒는 부친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계책을 꾸며 조당(朝堂)에서 세력이 강한 경가(耿家)에 시녀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초면에 耿朗에게 반하여 耿朗의 환심을 얻어 燕夢卿보다 먼저 첩으로 되는데, 사실 燕夢卿이 경가로 들어오기 전, 그녀의 귀한 가세와 임금한테서 하사받은 [효녀절부]라는 편액(扁額)이 있기 때문에 경가에서는 예를 갖춰 혼사를 정중히 준비하였고 이때로부터 임향아는 이미 시기와 질투를 느꼈다.

> 유독 임향아만 무척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는 몽경의 미모를 꺼려하고 그리고 몽경의 재능을 시기했으며, 더 나아가 둘은 똑같은 측실이지만 자신과 달리, 몽경은 어마마한 내력에 친정의 가세 또한 부귀하기에 강부인

과 임소저를 비롯한 친척 노비까지 모두 정중하게 상대하니 자기만 비천해 보였다.[114]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처음에 任香兒는 둘은 다 같은 첩이지만 출신의 차이로 경가에서 받는 대접의 차이를 느껴 燕夢卿에게 시기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다가 燕夢卿이 경가로 들어온 다음에 부실(副室)인 燕夢卿이 남편과 어르신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가권까지 장악하고 정처 林雲屛과 함께 주모(主母)의 역할을 담당하자 任香兒는 자신의 처지와 선명한 대조를 느끼면서 우려하고 燕夢卿을 적대시하고 참언하였다.

향아가 말했다. "나는 누구인가? 낭군의 곁에서 아들이나 딸 하나를 낳고 천시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또한 낭군의 사랑을 오래오래 받아야만 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 경랑이 말하였다. "너는 돈을 주어 사온 것이고 아니고, 친정이 작은 집안도 아닌데 어찌 이런 대접을 받겠느냐?" 향아가 말하였다. "나는 팔려온 신세는 아니나, 필경 낭군이 직접 취해 들여온 것이 아니다 보니, 내 괴로움은 나만 알 터이니 다른 이는 모를 터이다."[115]

당시 일부다처 및 축첩제도를 병행하는 제도 하에서 정처가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제2부인과 첩은 별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燕夢卿은 명분상으로 任香兒보다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처 林雲屛 대신 진정한 여주인 역할을 행한 것이다.

위의 대화에서 보아 낼 수 있다시피, 任香兒의 친정은 돈 많은 상인(商人)이지만 당시 사회는 상인보다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했던 燕夢卿의 출신이 더 귀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燕夢卿은 애초에 耿朗과 혼약을

114) 獨任香兒一人心甚不喜，一則忌夢卿之貌，二則忌夢卿之才，三則同為側室，而夢卿來頭正大，家素富貴，與自己娘家不同。四則康夫人、林小姐必皆重待，而親戚奴僕亦必欽敬，顯得自己卑微。 (p.64.)

115) 香兒道："我是何人？ 在妳身邊能生一男半女，不落人眼下就是萬幸，還須要長得你的歡心，方不受人作弄。" … 耿朗道："你又並非銀錢買來，娘家又非小戶，如何會有變更？ 香兒道："我雖不是買來，究與娶的兩樣。自家苦処自家知曉。"(p.71.)

맺었던 것으로 정실로 경가에 들어와야 했는데, 누명을 쓴 부친을 위하여 혼약을 깼다가 나중에 다시 제2부인(二娘)의 신분으로 경가에 들어와 남편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정처 못지않은 지위와 존대를 받았다.

이렇게 두 사람은 모두 정실이 아니지만 任香兒는 곳곳에서 일지독수의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燕夢卿과의 차이를 느꼈고 그녀를 시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와 열등의식으로부터 任香兒는 燕夢卿을 쟁총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쟁총에서 흔히 보이는 수단 '참언'의 방식으로 燕夢卿과 耿朗 사이를 이간질 했을 뿐 더 과한 행동은 없었다. 따라서 燕夢卿에 대한 任香兒의 적의는 비교적 단순하되 '쟁총'으로 귀결하는 것이 적당하다.

쟁총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중에서도 수평축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일컫는다. 즉 한 남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성들 간의 갈등, 즉 처와 첩 혹은 처와 처 사이의 총애다툼을 일컫는다.[116]

만약 任香兒가 원하는 것이 정실의 지위나 주모의 권력이었다면 燕夢卿이 경가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처인 林雲屛도 함께 시기하고 질투해야 합리적인데 유독 燕夢卿에 향한 적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았을 때 결국 남편의 총애 때문이고 그녀는 남편의 총애를 획득하는 것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근본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모두 정실이 아니지만 원래 정처로 경가에 들어와야 하는 燕夢卿은 임금으로부터 [효녀절부]란 편액까지 하사받고 육예(六禮)를 거쳐 영입되었고 任香兒는 예를 갖추지 못하고 첩실로 된 것이다. 그리고 燕夢卿의 대갓집 규수 출신과 任香兒의 상인(商人) 가정 출신, 학문과 식견의 차이 등은 경가에서 두 사람의 신분적 우열과 받는 대접의 차이가 현격해 질 수밖에 없는 부차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任香兒의 열등감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쟁총의 갈등을 심하게 느끼게 한다.

더 나아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애정관계는 배타적인 독점성을 요구한다.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초윤리적(超倫理的)인 감성

116)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적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첩을 두는 부부관계는 독점성이라는 기본적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이런 남녀 간의 결합은 그 자체 내에 문제점과 갈등을 내포하기 마련이고 불안정적인 것이다.[117)]

즉 다처제 혹은 축첩제도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둘 이상의 여지가 결합함으로써 애정의 배타적인 독점욕이 충족되지 못하기에 이미 그 내부에 갈등의 소지를 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애정은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공평한 분배가 불가능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애정편중은 배타적인 독점욕을 한층 더 발휘하여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아 『林蘭香』에서 燕夢卿과 任香兒 사이의 갈등의 핵심은 任香兒의 총애 다툼을 핵심으로 하는 쟁총의 처첩 갈등이라 할 수 있다.

1.2. 부부 갈등

(1) 가권(家權) 문제의 부부 갈등

『사씨남정기』는 사정옥의 고난과 처첩간의 갈등을 통해 '가(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형상화하면서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가(家)'를 경영하는 데 제일 중심적 위치에 있고 '가(家)' 내외에서 핵심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은 당연 가부장인 유연수이다.[118)]

---

117) 성해하(成海霞)의 연구에서는 일부다처제도 하에 처첩 사이의 갈등을 쟁총으로 보고 있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한 가정에서 처와 첩이 남편을 중심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총애를 다투기 위하여 경쟁할 것이며 일부다처제의 불합리성이 혼인구조의 평형성을 파괴하였다"고 밝히면서 "혼인생활 속에서 여성들은 '타자'의 개입을 용납해야 했고 그들의 남편이 일단 어느 한쪽에 기울이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의 지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嫡庶之間的'邀寵'與'固寵'之爭是中國古代家庭中的普遍現象。妻與妾被編織在了以丈夫為中心的家庭網絡當中，就不得不為爭取丈夫的寵愛而進行激烈的競爭。因為一夫多妻這一不合理的婚姻制度，直接破壞了婚姻結構的平衡性。女人們的情感以及生活的各方面都不得不接受'他者'的介入，她們共同的丈夫'夫主'，在她們之間的任何感情傾斜都足以導致她們實際上的地位不平等。" 成海霞, 「明清長篇小說"家庭矛盾"之解析」, 大慶師範學院學報, 2009年 5月 第2期, p.105.

작중 유연수는 사정옥의 고난에 깊이 관여하고 간접적으로는 교채란의 악행을 일조하기도 하며 처첩 갈등에 휘말린 인물인 동시에 작품의 말미에 가서는 교채란을 응징하여 갈등을 궁극적으로 종결 짓는 역할을 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작품에 드러난 부부간의 갈등 양상은 유연수와 사정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 유연수와 사정옥 사이의 갈등은 교채란의 이간질에 의해 갈수록 깊어지다가 둘 사이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연수와 사정옥 부부 간의 갈등은 처 사정옥을 향한 첩 교채란의 지속적인 공격과 모해로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채란에 의해 매혹되어 한 가문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암매한 가장 유연수와 이러한 상황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가치를 철저히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정옥 사이의 부부 갈등으로, 즉 사정옥이 사회적 가치인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유연수가 가장으로서의 권한과 그 영역에까지 간섭하고 침범하는 데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 동청이 들어온 뒤, 사씨 역시 들은 바가 있어 조용히 한림에게 말했다.
> "제가 듣기에 동청은 사람이 바르지 못한 정도가 아니어서 여러 곳에서 받아주지 않아 여기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공께서는 모름지기 들이지 마시어 뒷날 폐단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 "나 역시 동청에 대해 오래전부터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데다 내가 그를 머물게 한 것은 그저 그 붓을 빌려 수고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붕우朋友의 도리가 있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그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겠습니까?"
> "상공께서 비록 그와 붕우의 도리가 없다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미혹함에 물들어 모르는 사이에 간사한 데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을 집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엄숙히 집안을 다스리는 도리

118) 보통의 경우, 계후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가권(家權)은 '집안을 다스리는 권리'로 가내에 집중되어 있기에 여성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부장제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가(家)' 내외를 비롯하여 다스리는 그 최고의 권력자이자 핵심 권력의 소유자는 언제나 남성인 가장이다.

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소사께서 살아계실 때 일찍이 잡객雜客을 들이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중략)

사씨는 동청을 매우 싫어하지만, 한림은 아주 가깝게 여겨 신임하는 것을 교씨가 알았다. (pp.44-45.)

위의 인용문은 유연수가 동청을 자신의 기실(記室)로 들이려고 하자, 사정옥이 동청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유연수에게 간언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간언에 대해 유연수는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바가 없고 또한 벗이 아닌 다만 글 쓰는 수고를 대신하는 사이라며 사정옥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동청을 신임하고 그와 가까이 한다.

사리분별 능력이 약한 유연수와 달리 “사정옥은 매양 내실에 거처하는 일개의 부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일의 정보까지 수집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유가(劉家)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119]

사실 가신(家臣)이나 기실을 들이는 문제는 남성 사대부가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옥은 이상적인 처가 지녀야할 덕목으로 남편에게 정직하게 간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자신이 관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며 심지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가법을 내세워 유연수를 절제(節制)하려고 한다.”[120]

---

119) 장미, 앞의 글, p.47.

120) 지연숙의 연구에서는 “친가 사가(謝家)는 유가(劉家)에 비해 기울어진 집안이라 한미한 사가(謝家)가 부귀한 유가(劉家)와 대등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명분(名分)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옥은 부친 사급사의 청명에 더욱 매달리고 유교적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규준에 맞춰 자기를 엄격하게 절제하고 매사에 완전무결해짐으로써 자신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찾고자 했다”고 논한바 있다. 정출헌은 이런 사정옥의 모습에 대해 “여성의 얼굴을 한 남성 그것도 가부장적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한 가부장”이라고 평가했다. 지연숙, 앞의 글, p.157. 정출헌, 앞의 글, p.411.

장미의 연구에서는 “사정옥이 표층적으로는 사회적 유교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따르지만 이면에서는 은폐된 권력욕을 실질적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유연수가 ‘가(家)’를 지켜내기에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자 무의식적으로 가문을 경영하고자 하는 권력욕이 표출된다”고 보았다. 장미, 앞의 글, p.49.

이상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정옥이 어떠한 심리나 목적 혹은 욕망을 가지고 행동했던 간에 그녀가 당대 윤리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에 남편 유연수가 가장으로써의 권위와 권한까지 무의식적으로 도전하고 침범하게 되어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유연수는 사정옥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동청은 기실의 소임을 맡게 되면서 유연수의 신임을 얻게 되고 이후에 교채란과 한 패가 되어 사정옥을 모함하게 되는데 “교채란의 모해가 극대화되면 될수록 유연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며 부부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사정옥의 고난은 그만큼 극대화된다.”[121] 즉 첩 교채란의 참소와 모함은 시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유연수를 통해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으로 효과를 나타냈고 유연수는 그의 부친 유소사처럼 가문의 성덕(盛德)을 유지할 만큼 현명하지 못한 인물이었음을 전반 서사 전개를 통해서도 보아낼 수 있다.

유연수가 결정적으로 사정옥을 의심하게 된 것은 옥지환 분실 사건 때문이다. 사정옥이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누었으며 그 정표로 유씨(劉氏) 가문의 보물인 옥지환을 주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해명할 수 없는 허물인 것이다. 유연수가 자신을 의심하자 사정옥은 다음과 같이 변론한다.

> “첩의 평소 행동이 무상無狀하여 상공께서 이처럼 의심하시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상공께 달려 있으니 뜻대로 처분하세요. 옛 시에 ‘현인군자賢人君子는 모함하는 말을 믿지 않고, 모함하는 자를 승냥이와 호랑이에게 던진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분명 교묘히 모함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상공께서는 살피십시오.” (p.56.)

여기에서 사정옥은 구구한 변명은 한마디도 안하고 대신 『시경(詩經)』 소아(小雅) <청승편(靑蠅篇)>에서 “현인군자(賢人君子)는 모함하는 말을 믿지 않고”, <항백편(巷伯篇)>에서 “모함하는 자를 승냥이와 호랑이에게 던진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 <청승편>은 군주에게 참언을 듣지 말라고 경계하는 시이고, <항백편>은 『시경』 300편 가운데 가장 극렬한 분노와 미움을 표현한 시로, 참소한 자에 대한 강한 증오를 표출하는 바이다. 이 두 시는 모두 서주(西周) 마지막 임금인 유왕(幽王)의 혼암함을 풍자한 시로 사정옥은 유연수를 유왕에 비기고 있는 셈이며 참소하는 자는 집안에

121) 박일용, 앞의 글, p.226.

있으며 망국한 유왕의 이야기를 빌어 참소와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책임은 유연수에게 있음을 간언하는 것이다.[122] 이처럼 사정옥은 의심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변명보다는 유연수가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결코 가볍지 않는 반론을 논리정연하게 펼치고 있으며 단호히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유연수와 갈등하고 있다.[123]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편으로, 유연수는 가문을 지키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성숙한 가장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사정옥은 유교적 가치를 철저히 실천하는 과정에 가장인 유연수의 권력을 도전하거나 권한을 침범하면서 은폐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부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처를 향한 첩의 공격과 모함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갈등의 핵심은 가정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영역에서 생기는 가권의 문제인 것이다. 즉 여성이 가내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어려운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당시 가부장 사회의 현실과 함께 유교적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충실히 실천하는 사정옥이 유연수의 관할 영역인 동청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유연수의 암매함으로 인해 난가(亂家)의 우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 유연수가 가장으로써의 권한과 충돌하는 데서 비롯한 부부 갈등이다.

(2) 이념과 성격 문제의 부부 갈등

『林蘭香』의 경우, 燕夢卿과 耿朗사이의 갈등은 남녀 주인공 사이의 이념과 성격적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이 과정에 여성에 대한 耿朗의 이중적

---

122) 지연숙, 앞의 글, pp.165-166 참조.

123) 박길희의 연구에서는 “참언으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곡해하는 가부장에게 과연 그가 '신실한 군자'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 한다. 또한 그런 가부장을 원망하며 책망하기까지 한다. 유한림의 잘못에 대해 목숨을 내어 놓고 직언을 하는 사씨의 태도는 가부장권에 대해 반기를 든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이다.”라고 평가했다.
박길희, 「<사씨남정기> 여주인공 사씨의 성격 재고」, 『남도문화연구』 제20집, 순천대학교, 2011, p.290.

인식이 두 사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소극적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 경랑이 말했다. "향기 가득한 술을 마시며 귀한 화초들을 구경하는 것은 이미 인생의 쾌사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꽃다운 나이의 경국지색까지 함께 하니 더욱 부러울 것이 없구나!" 이 말을 들은 몽경은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경랑이 "우울하고 즐겁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심사心事가 있느냐?"라고 묻자 몽경은 "소첩이 비약鄙弱한 몸으로 상공을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인데 어찌 불쾌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고 웃어른을 잘 섬겨 아홉 도련님들의 본보기가 되고 아래로는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려 후손에게 법도를 세우기 바라는 것 일 뿐이죠. … 혹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그릇된 일에 시간만 낭비하고 나중에 본성을 잃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답한다.[124]

위 인용문은 꽃향기 가득한 밤에 耿朗과 燕夢卿이 대음(對飮)하면서 나눈 대화인데 이것을 통하여 전형적 세가(世家) 귀공자인 耿朗이 추구하는 바는 향기로운 술을 마시면서 귀하고 기이한 화초를 구경하며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있어주는 향락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 법도를 내세워 耿朗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아 燕夢卿은 그와 반대로, 자율하고 절제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삶의 이념 문제로부터 그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을 보아 낼 수 있다.

거기에 耿朗은 귀가 얇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며 여성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두 사람의 갈등은 더 깊어 질 수밖에 없다. 처음, 耿朗은 燕夢卿이 누명을 쓴 부친을 위해 입궁한 효행에 감동되고, 또한 일부종사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귀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측실로 들어오겠다는 것, 그리고 전에 벽에서 발견한 절묘한 시작(詩作) 역시 燕夢卿이 남긴 것임을 알고 그녀에 대한 사랑의 정이 깊었는데 이 모든 것

---

124) 耿朗道："飮香醪，看名卉，已是人生快事，況又國色相對，各在芳齡、志願足矣，又何求哉！"夢卿聽了，低頭不語。耿朗道："卿何心事，忽忽不樂？"夢卿道："妾以鄙弱之質得侍君子，私心自幸，有何不喜？惟願上則尊祖敬宗，以作九個叔叔領袖。下則修身齊家，以為後世子孫法度。… 若不知檢點，則費時失事，滅性傷生，在所難免。"(p.87.)

이 任香兒의 말 한 마디로 변질해버린 것이다.

> 처음 경랑은 부친 대신 죄를 짊어지는 연몽경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존경하고 사모의 정이 생겼고, 다음에 측실로 자청하는 모습을 보며 은애하는 사랑이 생겼으며, 후에는 그녀의 학문과 풍아함에 가의可意의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향아의 말을 들어 보니 또한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는 '여자는 재주와 명성이 있는 것을 제일 꺼린다. 재주가 있으면 자만할 것이고 명성을 얻으면 남을 업신여기니, 이러다가 나중에 처첩들의 불화를 초래할 것이다.'고 가만히 생각했다.[125]

위 인용문에서도 보아 낼 수 있다시피 耿朗은 재덕겸비한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면서도 그러한 여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인식의 소유자이다. 거기에다 사대부가의 부녀자로서 '정숙함'은 가장 기본적인 '도(道)'이자 현처(賢妻)로 되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필수적 조건이기에 현처의 삶을 지향하는 燕夢卿은 현부(賢婦)로서의 명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교적 예법에 따라 본인의 일신을 가다듬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를 행하도록 적극 요구한다. 이는 일후 부부 사이 갈등의 심화를 가속시키기도 한다.[126]

> 혹 경랑의 행실이 도를 넘었을 때, … 유독 몽경은 매사마다 직간하여 경

---

125) "耿朗初見夢卿求代父罪, 生了一番敬慕之心。次見夢卿甘為側室, 又生了一番恩愛之心。後見夢卿文學風雅, 復生了一番可意之心。及至聞香兒之言, 不免又生出一番不足之心。因想道: "婦人最忌有才有名。有才未免自是，有名未免欺人。我若不裁抑二三，恐將來與林、宣、任三人不能相下。" (p.73.)

126) 양명귀(楊明貴)의 연구에서는 연몽경의 인생 비극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연구자는 비극의 근원을 남녀 주인공 사이의 관계에 입각하여 "그녀는 남편을 유교문화에서 간주하는 '영웅'이나 진정한 남자로 만들고자 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수신제가'식으로 끝없이 설교하는 것뿐이다. 즉 '구원자'와 '피구원자'사이의 현격한 가치관적 차이와 이탈은 그녀의 인생 비극을 빚어낸 근원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히었다.
"她一心想把自己的丈夫改造為儒教文化视阈下的"英雄"或是真男人，她所憑藉的手段只是喋喋不休進行"修齊治平"的說教。可以說，拯救者和被拯救者之間無法修正的價值觀錯位，是造成她人生悲劇的根本原因。" 楊明貴, 「論<林蘭香>死亡敘事的悲劇意蘊」, 湖北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年 第4期, p.38.

랑은 듣고 싶어 하면서도 듣는 것을 무서워하여 피하기도 했다.[127]

애초 耿朗은 燕夢卿의 권고와 간언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간의 삶의 태도와 이념적 차이가 점점 드러나고 任香兒의 참언과 더불어 의심 많은 耿朗은 매사에 권고하는 燕夢卿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며 심지어 자신이 과한 행동을 했다고 자각했을 때, 그녀가 꼭 옆에서 설교할 것이라고 의심까지 한다. 燕夢卿은 자신의 직간 행위가 耿朗의 반감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보고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耿朗은 자격지심에 그녀를 멀리한다.

동쪽 칸에 들어가 보니, 변색된 옷 한 장이 걸려 있는데, 추석날에 취중 남김이 분명하다. 이에 간언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 경랑은 안색이 급변하여, 한 잔의 차와 탕도 마시지 않고 바로 앙연히 방을 나간다. 몽경은 이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 옷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차리고, "사람의 의심이 이 정도로 많다니!"라고 말하고는 시녀더러 옷을 치우게 하고는 다시 꺼내어 입지 않았다.[128]

위 인용문은 耿朗이 취중에 燕夢卿의 옷에 토사물을 묻혀 그녀가 옷을 말리기 위해 곁에 걸어둔 것뿐인데 耿朗은 燕夢卿이 고의로 자기에게 보여줌으로써 간언의 뜻을 전하고자하는 행동으로 오해하고 화를 내며 자리를 뜨는 장면이다. 이것을 알아차린 燕夢卿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燕夢卿이 보기에 뛰어난 말재주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변명하는 것은 남편의 체면을 깎는 일로 무례한 것이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풀릴 것이며 현명한 군자로써 시비를 똑똑하게 가리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29]

---

127) "若遇耿朗有過, … 惟有夢卿, 事事皆勸, 以此耿朗又愛聽又怕聽。"(p.146.)

128) "見東套間衣架上搭著一件染過衣服, 便是中秋夜酒污的, 只道夢卿有意又要藉此諫勸, 幡然變色, 茶不飲, 湯不用, 怏怏然走了出去。夢卿看見這光景, 茫然不知所以。乃悟道: "何人之多疑以至於如此!" 因令侍女將衣收過, 永不穿用。(p.157.)

129) 몽경이 말했다. "암매한 일들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명할

이와 같이 성격상의 차이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耿朗과 燕夢卿 부부는 마음을 터놓는 부분이 없이 물 흐르듯이 수동적인 태도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부부 갈등을 초래하고 심화시키는 내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요컨대 귀가 얇고 의심이 많은 耿朗은 향락주의 삶을 추구하고 말수가 적고 과묵한 燕夢卿은 자율적이고 절제의 삶을 지향하기에 둘 사이의 갈등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즉 이념과 성격 문제의 갈등이다.

1.3. 인고(忍苦)와 희생(犧牲)을 통한 갈등 극복의 성공과 실패

가부장제 사회에서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삶으로 일관해 온 여성의 전형으로 사정옥과 燕夢卿은 일단 한번 맺어진 인연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인 한 후에는 더욱이 가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생(生)을 마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은 시아버지의 유언을 받들 듯, 남편이 심성이 바르지 못한 동청과 가까이 할 때 정직하게 간언하면서 아내이자 집의 안주인으로써의 도리를 지키고 유문(劉門)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 『林蘭香』에서 燕夢卿은 과거에 자신과 혼약을 맺었던 耿朗의 측실로 되기를 자청했다.

가정 내부의 갈등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두 여성 중심인물 사정옥과 燕夢卿은 모두 자신보다는 가문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가문의 핵심 인물인 가장을 우선시하여 고려하면서 인고(忍苦)와 희생(犧牲)의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교채란의 모함으로 축출된 사정옥은 결국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유문이라 굳게 믿었고 선영 아래에 거처하면서 동생에게 한번 친정으로 돌

것이니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자신만 위해 변명하다가 서방님의 체면이 깎이는 일은 아내로써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梦卿道：“暗昧事体，如何分辨得？必须日久自明…若必口巧舌能，就使辨得乾净，然令丈夫怀羞，自己得志，亦非为妇之道，…”(p.177.)

아가면 유씨 집안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고 유연수 또한 회심의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면서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묘하에서 늙어죽겠다고 친정으로 함께 돌아가자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130] 그러다가 냉진의 겁탈을 피하기 위해 유씨 집안에서도 일정한 권위와 책임을 갖고 있는 인물 시고모 두부인을 찾으러 남정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 온갖 풍상고초를 겪고 만나지를 못하는 등 거듭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고와 자아희생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극복하고자 한다.

燕夢卿의 경우, 역시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任香兒의 참언 때문에 의심이 많고 귀가 얇은 남편 耿朗의 오해를 받아 부부간의 불화를 겪게 되는데, 가문의 화목과 남편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燕夢卿은 일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任香兒와 정면충돌을 피하고 곳곳에서 인내하고 양보하며 나중에 耿朗의 첩으로 되어 자기 대신 아들을 키워줄 田春畹에게도 똑같게 당부한다.[131] 또한 燕夢卿은 잉태한 몸으로 손가락을 베어내어 병세가 위독한 남편을 구하고 완치하도록 묵묵히 보살피며 긴 머리를 잘라 연갑(軟甲)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러

---

130)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겠으며, 또 어머님의 혼백을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다만 생각건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야. 또 나는 본디 털끝만큼의 죄악도 없고, 한림 또한 현명한 군자니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어찌 없겠니? 설혹 한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소사의 묘 아래 늙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아우는 이상하게 생각지 마라.” (p.73.)

131)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과 겨루고 따져서는 안 된다. … 춘낭 필히 매사에 공손하고, 재간을 부려 총애를 다투지 말 것이며, 자색으로 어여쁨을 얻어서도 안 될 것이다.”
“而四娘、五娘，亦不可與之較量。… 春娘須委婉順事，不可以才爭寵，不可以色取憐。” (p.169.)
몽경이 말했다. “암매한 일들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명할 것이니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자신만 위해 변명하다가 서방님의 체면이 깎이는 일은 아내로써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형부인이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자네가 고생이 많겠네.” 몽경이 말한다. “제가 고생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안락하시지 못하고 서방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매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야 말로 정말 큰일입니다.”
梦卿道：“暗昧事体，如何分辨得？必须日久自明…若必口巧舌能，就使辨得乾净，然令丈夫怀羞，自己得志，亦非为妇之道，…” 荆夫人道：“理固当然，却不免自家受苦。” 梦卿道：“自家受苦事小，若是尊长不喜，丈夫不乐，姊妹有失，那事便大了。” (p.177.)

한 점에서 燕夢卿은 사정옥과 마찬가지로 인고와 자아희생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가(家)'에서 생겨나는 갈등인 것만큼 여성 주인공의 일방적인 '인고(忍苦)'와 '희생(犧牲)' 행위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부족하고 갈등의 해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즉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인물, 남성 주인공의 진심어린 '깨달음'과 '뉘우침'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갈등의 극복과 해소가 가능하다.[132] 때문에 두 작품에서 사정옥과 燕夢卿은 모두 인고(忍苦)와 자아희생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수와 耿朗의 대응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그 결과는 천양지간이다.

앞장에서 언급했다시피 가내 핵심 권력의 소유자로써 가정 내부 갈등의 해결은 가장과 직접적 관계가 있고 가장의 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씨남정기』에서 집안을 난가(亂家)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 유연수는 교채란에게 매혹되어 유배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는 갈등의 궁극에까지 가서야 비로소 개과천선하며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나중에 백빈주(白蘋洲)에서 사정옥에 의해 구원되고 이를 계기로 몰락된 집안이 재기하는데, 여기에서 유연수의 진심어린 회심과 개과는 일시적인 체험이나 충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는 자신이 대결하고자 했던 상대방의, 즉 사정옥의 '인고'와 '희생'을 통해 깨닫는 것이다.[133]

---

132) 김종철은 17세기 소설에 그려진 '가(家)'의 운영 방식에 대해 작품 속에서 '가(家)'의 운영은 안팎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조절하는가를 통해 표현된다고 밝히면서 '가(家)'의 운영에 있어서 부부의 상호 주체성이란 기본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혈연으로 뭉친 '가(家)'의 공동체 속성을 강조하였다. 김종철, 앞의 글, pp.417-424 참조.

133)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이 남정하던 중, 꿈속에서 만난 낭랑이 '유한림은 단아한 군자이지만, 어린 나이에 현달하여 천하의 많은 일들을 두루 경험하지는 못했지요. 따라서 하늘이 짐짓 일시적인 재앙을 내려 크게 깨우치고,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대가 아내가 되게 하여 그의 부족한 부분을 돕도록 하려는 것이랍니다. (p.94.)'라고 하며 유연수의 사리에 주밀치 못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아황(娥皇)·여영(女英)이 현몽하여 사정옥이 왜 고난에 찬 삶을 견뎌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설정은 '가장 유연수를 바로세우는 것'이 바로 사정옥의 과제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즉 유연수가 올바른 가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정옥의 고난은 필수적이었던 것이고 그녀의 인고(忍苦)와 희생은 삶에 대한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유연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배려와 기

작품의 말미에 가서 자신의 과오를 진정으로 깨달은 유연수는 예를 갖추어 사정옥을 다시 정실로 복귀시키고 교채란을 응징하면서 갈등은 근본적으로 종식되는 것이다.

『林蘭香』의 경우, 耿朗은 주색잡기에 빠져 목숨이 위독할 지경에 잉태한 燕夢卿이 손가락을 베어 구해주고 보살피는 덕분에 살게 된다. 하지만 회심하고 개과한 유연수와 달리 耿朗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뉘우치지 못했고 예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지낸다.[134]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축첩을 허용한 '가(家)'의 근본적 모순을 『사씨남정기』에서는 유문이 몰락하고 유연수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상황으로, 『林蘭香』에서는 耿朗과 첩들의 주색잡기로 병세가 위독해진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전자와 비교해 볼 때 후자가 갈등의 궁극까지 몰리는 파멸의 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135] 따라서 유연수처럼 파멸하기 일보직전이거나 갈등의 궁극에까지 몰리지 않는 이상 燕夢卿이 아무리 인고하고 희생적이어도 耿朗의 깨달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죽음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耿朗은 회심하지 못했으며 또한 燕夢卿의 고심과 희생을 알아주지 못하였기에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지고 燕夢卿은 우울하게 죽음으로 생을 마친다.

아울러 사정옥과 燕夢卿은 모두 인고와 희생의 방식으로 갈등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갈등의 궁극과 파멸의 순간까지 몰리는 유연수의 '깨달음'과 그렇지 못한 耿朗의 차이로 『사씨남정기』에서는 갈등 극복에 성공했고 『林蘭香』에서는 燕夢卿의 죽음으로 갈등 극복에 실패한 것으로 끝맺었다.

다림의 과정인 것이다.

134) 차시, 경랑은 향아, 채운과 더불어 가무를 즐기는데 아주 빠지게 되며, 이번에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생각하니 더욱 은애하고야 만다.
耿朗此時，益發與香兒、彩雲歌舞快樂，不知此去離別幾年，更加一番恩愛。(p.172.)

135) 김종철은 '가(家)'의 운영 방식과 갈등의 해소 방법에 대해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들이 갈등의 궁극에까지 가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밝히었고, 갈등의 궁극에 가서야 깨닫는 설정의 의미를 하나는 이들이 유발한 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수 없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욕망의 궁극에 가야 비로소 올바른 데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온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는 것으로 천명하였다.
김종철, 앞의 글, pp.422-423 참조.

2. 인물의 비교

이 항에서는『사씨남정기』와『林蘭香』에 등장한 주요인물의 이동(異同)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물을 해석하는 데 표지가 되는 언술을 찾아내어 분석하면서 작품의 여성 주인공, 남성 주인공, 적대적 인물, 조력 인물의 성격적 특징 및 인품을 비롯한 인물상을 밝히고자 한다.

2.1. 여성 주인공: 사정옥과 燕夢卿

정직하고 곧은 절개로 온 천하에 명성이 자자한 급사(給事) 사담(謝潭)의 딸 사정옥은 아름다운 외모와 출중한 재덕을 겸비한 사족 규수이다. 부친이 직간하다가 죽었기에 집안이 부귀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부친의 성덕(盛德)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이어받아 실천했다.

> "… 유씨 집안에서 납폐納幣, 혼인 예물을 보내는 일하는 날이 곧 소저께서 명부命婦,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가 되는 날입니다. …"
>
> "… 또한 옛날 어진 부인들은 반드시 덕으로 사람을 섬겼고 군자는 색으로 부인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파가 말한 것은 색이었으니 소녀는 이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주파가 유씨 문중의 부귀와 권세를 크게 칭송했습니다만 저희 집 선급사돌아가신 사급사. 곧 선친의 맑은 이름과 곧은 절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파가 어리석어 소사의 뜻을 모두 전달할 수 없었던 듯합니다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유소사가 어질다는 명성은 모두 모두 헛된 것일 터이니, 소녀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p.24.)

위 인용문에서 매파는 사정옥이 유씨 집안의 폐백을 받는 날 바로 명부가 될 것이라며 훗날의 부귀영화를 장담하는데 사정옥은 모친(사급사 부

인)에게 구혼을 거절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즉 하나는 매파가 자신의 덕성보다 색을 언급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유씨 문중의 부귀와 권세를 크게 칭송하면서도 자신의 부친 사급사의 청명(淸名)과 성덕(盛德)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 또한 매파가 유소사의 뜻을 잘못 전하지 않았다면 유소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정옥은 혼인하는 것만으로도 명부(命婦)에 이름이 올라 모든 여성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부귀와 명예 등 현실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부친처럼 '덕(德)'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추구[136]하였기에 매파가 자신의 미모와 상대방의 권세를 들어 혼사를 제안했으니 자기의 진정한 가치와 지향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이고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다.

어사(御史) 燕玉의 딸 燕夢卿은 반소(班昭)와 채염(蔡琰)에 비견할 만한 식견, 고결한 품성 그리고 경국지색까지 겸한 사대부가 규수이다. 그녀 역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되는 봉건적 사회에서 배우고 자란 여성으로 당시의 사회적 이념과 가치에 충실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작품 첫 시작에 등장한다.

> 몽경이 말한다. "… 또한 이미 예물을 받았으니 살아 있을 때에는 경가의 사람으로, 죽은 후에는 경가의 혼백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
> 전의가 말한다. "… 경가는 이미 다른 배필이 있으니, 소저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인연을 맺어도 해로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
> 몽경이 말한다. "약속 맺은 바 있으니 지켜야 하고, 비록 부부의 사실이

136) 사정옥의 형상에 대한 연구 중 이념 지향적인 측면에 관련된 논의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한 인물"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금희(1990)는 '윤리의 화신인 성녀'로, 이상일(2008)은 '선(善)-이념 지향적 인물'로 박길희(2011)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덕(德)과 인(仁)'을 실천하는 진정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사정옥의 이념 지향성을 밝히었다. 이금희,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서포의 여성관 -양면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69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0.

없더라도 이미 부부의 명분은 있는 셈이니, 명분이 정해진 이상 다른 사람을 헤매면 초례[醮禮]137) 두 번 치르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138)

위 인용문에서 燕夢卿이 부친을 위하여 입궁하는 동안 耿朗은 이미 정실부인을 들인 상황이기에 全義가 그녀에게 다른 인연을 찾도록 제안하는데 그녀는 거절하면서 일부종사의 뜻을 밝힌다. 즉 耿朗은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한 상태이기에 燕夢卿과의 혼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면서 그녀는 다시 혼인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全義가 말했다시피 燕夢卿이 다른 남자와 혼인을 맺어도 무리가 없지만139) 그녀는 자기와 耿朗은 이미 혼약을 맺었던 사이로 부부의 사실은 없으나 명분이 있다며 좋든 싫든 자기는 이미 경가(耿家) 집안의 사람임을 주장하면서 유교적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140)

앞에서 제시된 부분을 단서로, 향후 작품의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여성 중심인물로 등장한 사정옥과 燕夢卿은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당시 韓·中 사회의 윤리적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는 전형적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덕(德)"은 두 여성 인물이 삶에서 추구하고 지향하는 일체 가치의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두 인물은 모두 전통적인 여성상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념 지향적이지만

---

137)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

138) 夢卿道："… 二則既已受聘，則生為耿家之人，死為耿家之鬼，豈敢有二？"
全義道："… 耿家早另有佳偶，小姐已無所歸。別結紅絲，亦何所害？"
夢卿道："盟好既申，雖無夫婦之實，已有夫婦之名。名分既定，又適他人，則與再醮何異？"(p.60.)

139) 비록 당시 耿朗과의 혼약이 깨진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해도 무리가 없지만 일후 燕夢卿의 효행과 일부종사의 수절행위에 대한 耿朗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심지어 임금으로부터 <효녀절부>의 편액(扁額)까지 하사받은 것으로 보아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여성의 이러한 수절 행위를 여성의 덕행으로 찬양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140) 李受珉[韓](2001)은 "유교적 윤리규범을 정신적 신앙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봉건적 숙녀의 이상형 인물(將封建淑女氣質內化為自己的精神信仰的理想化人物)"이라며 燕夢卿의 유교적 윤리규범을 충실히 실천하는 봉건 사대부가의 규수 형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李受珉[韓], 앞의 글, pp.301-303 참조.

이러한 이념적인 인간형은 거의 모든 문학 작품에 등장하되 이념에 충실한 일면 외에 인간으로서의 성격과 개성 감정과 욕망 등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사정옥과 燕夢卿이 구체적으로 지향하고 이루고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의 어떠한 성격적 특징을 체현하였는가?

> "신부가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 장차 어떻게 남편을 도와 바른길로 이끌 것이냐?"
>
> "… 어머님께서 첩을 보내실 때 중문中門에 이르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지아비의 뜻에 어긋나지 마라'하셨으니, …"
>
> "지아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실로 부덕婦德이다만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순종할 것이냐?"
>
>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부부의 도리 또한 오륜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 어찌 오직 부부의 경우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p.28.)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정옥이 유문에 입문하자마자 유소사는 남편을 어떻게 이끌 것 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은 그녀가 유씨 집안으로 들어와 향후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그 실질은 한 가문의 총부(冢婦)로써의 소임에 대한 논의이며 사정옥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녀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첫 시작부터 사정옥은 친정의 성덕(盛德)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덕을 잇고자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141] 자신의 혼인의 결정에 있어서도 덕을 최우선적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상대방 가족의 덕망을 중히 여기고 있다. 그럼 사정옥은 "자신의 친정이 성덕으로 인정받았듯이 유문에 입문하면서 이곳 역시 성덕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142]이고 따라서 시가(媤家)의 맑은 명성 즉 유문의 가성(家聲)을 유지

141) 김종철, 앞의 글, 2000, p.202.

하고 드높이는 것을 지향함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아래 유소사의 임종 전 당부의 내용에서도 반영된다.

> "공손히 제사를 받들거라. 가풍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모두 네 한 몸에 달려 있으니 충효를 다하고 학문에 힘쓰도록 해라. 고모의 말을 나의 가르침인 듯이 듣고 모든 일을 며느리와 상의하여 결정하거라. 며느리의 효행과 식견이 범상한 자에 비할 바가 아니니 분명 너를 올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p.29.)

이처럼 '가풍을 떨어뜨리지 말 것', 즉 '가성(家聲)'을 유지하는 것이 곧 유소사가 바라는 것이고 위에 제시된 유소사의 말을 통해 사정옥을 유연수와 함께 유씨 집안의 주체로써 가문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역량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정옥이 지향하는 것 역시 남편을 도와 가문의 성덕과 가성을 드높이는 데 있기에 유문에 입문 후 그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여 시아버지의 신뢰를 갖게 된 것이다.

즉 사정옥은 유연수와 혼인하는 동시에 유씨 집안과 긴밀한 공동체 관계를 맺게 되면서 유씨 가문의 일원이자 여주인의 책임과 자각으로 '가성'의 유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143] 이 과정은 순탄할 일이 없고 각종 곤란한 상황과 사건이 찾아오는데 사정옥은 굳건한 신념으로 극복하면서 의리가 있고 자존적인 여성의 풍모를 체현하였다.

> "… 또 나는 본디 털끝만큼의 죄악도 없고, 한림 또한 현명한 군자니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어찌 없겠니? 설혹

142) 장미, 앞의 글, p.49.

143) 김종철은 "가부장제 자체의 한계를 비판하는 일과 17세시 후반 내지 18세기의 시점에서 그 사회의 주체적 일원으로서 여성을 자각하게 하는 일은 다른 층위의 일이라고 밝히면서" 여성의 주체 형성으로서 <사씨남정기>의 새로운 독법에 대해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정옥이 교채란을 첩으로 들이고, 그로 인해 결국 커다란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문의 대(代)를 잇기 위해 임추영을 첩으로 천거하는 행위, 탄금하고 시문을 읊는 교채란을 꾸짖는 것, 누명 쓰고 축출당했을 때 친정이 아닌 시부모의 묘소 밑에서 거처하는 것 등은 그녀가 유씨 가문의 일원이며 주체임을 분명히 자각한 바탕위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철, 앞의 글, pp.205-206 참조.

한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소사의 묘 아래 늙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p.73.)

위 인용문은 축출당하고 시부모의 묘소 밑에서 거처하는 사정옥을 찾아가 친정으로 함께 돌아가자는 동생의 제안을 거절할 때 그녀가 한 말이다. 사실 당시 기혼 여성이 시가(媤家)에서 축출당하면 의지할 곳이 없기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하지만 사정옥은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고 또한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후대를 받았으니 이대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나 유씨 집안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시부모님의 묘소를 지킨다. 이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밝히려는 의지이자, 자기를 후대한 시아버님에 대한 보답이고, 더 나아가 유씨 집안의 며느리로써의 의리를 지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그녀의 자존적인 성격을 보아낼 수 있다.

“상공께서 첩을 버리지 않는다면 첩이 어찌 감히 상공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처지에 계시니 어찌 도울 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첩이 시댁을 나올 때 친족을 모아 조상 신령께 떠남을 아뢰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려는데 어찌 절차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첩이 감히 지난 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것이 하늘의 상도常道이지만, 시집을 나갔다 다시 드는 것 또한 변례變禮입니다. 어찌 구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p.130.)

위 인용문은 사정옥과 유연수가 우여곡절 끝에 재회하여 유연수가 그동안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정옥에게 고하며 용서를 구한다음 그녀와 더불어 무창(武昌)으로 동행할 것을 청하는데, 이에 대해 사정옥이 의연한 태도로 거절하고 이유를 말해주는 부분이다. 사정옥은 유연수와 재회하여 오해를 풀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데 간절했기 때문에 유연수의 동행 요청에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응한 만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집을 떠났을 때의 상황을 거론하며, 시가에서 떠났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변례

(變禮)에 해당하기에 구차하게 넘어갈 수 없다며, 만약 유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밝히고, 다시 예를 갖추어 유씨 문중에 입성할 것을 당당히 요구한다.[144] 이처럼 사정옥이 유문으로 다시 들어갈 때도 합당한 절차를 거쳐 복귀에 대한 명분을 획득하는 행동은 유가의 안주인으로 당당하게 복귀하는 명분의 정당성을 일가 동족 앞에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조상 앞에 알리는 행동으로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그녀의 자존적 성격의 체현이라 할 수 있다.

> "… 또 늙은 하인이 나를 따르다 어려움을 겪어 길에서 죽었지만 관을 구할 수 없어 그냥 묻고 말았지. … 묘희의 은혜도 마음에 새겨놓았는데 소식이 끊긴 지 거의 열흘이 되었지."
>
> 마침내 이 뜻을 시랑과 하인에게 전했다. 그러자 하인과 차환을 보내 자신의 재산으로 황릉모를 중수하고 하인의 장례를 다시 치르게 했으며, 임시 여인과 묘희에게 많은 금과 비단을 보내 옛정에 보답했다. (p.142.)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사정옥은 나중에 고진감래(苦盡甘來)하여 유문으로 당당히 복귀하고 나서도 남행 시절에 곤경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을 구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않았는데, 하인의 장례를 다시 치르고 임추영과 묘희에게 많은 금과 비단을 보내어 옛정에 보답하는 이런 모습에서 그녀의 의리를 보아낼 수 있다.

만약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이 유씨 집안의 여주인이자 주체임을 분

---

144) "유한림이 사씨와 무창으로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씨와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씨가 이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요구했던 것은 유한림 개인의 참회와 요청만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한림은 사씨를 가문에서 축출할 때 가문과 사당에 그녀의 잘못을 고했다. 그리고 가문의 동의를 얻어 사씨를 내친바 있다. 유한림이 절차를 통해 사씨를 축출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얻기 위함이었다. 사씨도 이에 상응하여 자신이 유가로 돌아갈 때도 합당한 절차를 거쳐 복귀에 대한 명분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인지한 듯하다. 이것이 유가의 안주인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간파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씨가 유가로 복귀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던 것은 그녀가 명분도 명분이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길희, 앞의 글, pp.296-297.

명히 자각하는 바탕위에서 유가의 '가성(家聲)'을 드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면 『林蘭香』에서 燕夢卿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가?

(A) 운병은 몽경의 말대로…첫째, 함부로 출입하거나 시비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여섯째, 빈궁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선량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중 내외 모두 몽경을 공경하고 사랑한다.[145]

(B) 몽경이 말한다. "이렇다면 공명자통은 도의로 사귀는 벗이고 풍馮, 정丁 같은 사람은 권세나 재리를 보고 사귀는 사이고, 장張, 왕王 같은 이는 오로지 술친구라면, 교감생監生 같은 사람은 한가한 공후의 문객으로 할 일 없이 방간만 떠도는 사람으로, 친구라고 할 수 없지요." 경랑이 답한다. "친구가 아니더라도 유용할 것이다." 몽경은 이에 "무슨 쓸모가 있어요? … 장래 유망한 전도를 위해 마땅히 공북해北海, 孔融과 같은 벗을 많이 사귀되, 이당李唐 시기 명재상 방관房琯처럼 악공에게 연루되는 것을 되짚어보면 복잡한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답하자 경랑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금치 못했다.[146]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燕夢卿이 耿朗과 혼인하고 경가(耿家)에 들어가 정처 林雲屏을 도와 집안을 다스리는 모습과 아내로서 남편에게 현명하고 정의로운 벗과 교제할 것을 간언하는 모습을 그린 부분인데,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그녀의 결단력 있는 일면을 보아낼 수 있으며, 그중에도 특히 남성 주인공 耿朗에게 '유망한 장래'를 위해 간언하는 장면은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온다. 따라서 燕夢卿이 추구하는 것은 '현처(賢妻)'가 되는 것으로, 즉 남편의 수신(修身)과 제가(齊家)를 돕는 것이며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

145) 雲屏又用夢卿之言…一不許私出私人，冥頑生非…六不許侮人貧窮，欺人良善。… 以此家下內外，又都愛敬夢卿。(p.83.)

146) 梦卿道："若如此说，公明子通，乃道义朋友。冯、丁诸人，只可称势利朋友。张、王诸人，只可称酒肉朋友。至于乔监生辈，不过市井帮闲，公侯门下耳，如何算得朋友！" 耿朗道："朋友虽算不得，然亦有用他之处。" 梦卿道："有何用处？ … 将来前程远大，虽广交当如孔北海之然亦思房琯为李唐名相，乃被累于琴工。则此等杂项人断不可接交矣。" 耿朗听毕，不住点头称赞。(p.88.)

으로 낮은 당시 사회에서 그녀는 남편을 유교적 윤리규준과 가치에서 간주하는 진정한 군자(君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 몽경이 살아 있을 때, 경사가 생겨도, 크게 소리를 내어 말하거나 웃지 않았고, 우려가 있어도 시름에 잠긴 티를 내지 않았다. 내내 상쾌한 차림새로, 술이나 차를 재촉하거나 호행난주하지 않았다. 설령 질환에 시달려도 봉두구면하고 더디게 일어하거나 이르게 누울 때가 없었다.[147]

위 인용문은 燕夢卿의 생전을 회고하는 내용인데,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보아낼 수 있다시피 현처의 삶을 지향하는 燕夢卿은 남편을 진정한 군자로 이끌어가기에 앞서 유교적 윤리규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본인의 일신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그녀의 자기절제적인 성격을 보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燕夢卿은 유교적 윤리규준을 이탈한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을 일깨우는데 전념하고 자신의 전부 열정을 바친다.[148] 일후 그녀는 남편 耿朗과의 갈등으로 부부 사이의 불화를 겪으면서 심신의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극심한 울분으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燕夢卿의 비극적인 삶으로부터 그녀의 절제적인 품격과 비굴하지 않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

147) 因想起夢卿在日，遇著可喜的事，從不見他大說大笑；遇著可憂的事，也不見他愁眼愁眉。總然身體清爽，從不見他催酒索茶，胡遊亂走。就是疾病深沉，也不見他蓬頭垢面，遲起早眠。(p.198.)

148) “유교문화를 정성스레 믿는 연몽경은 유교적 윤리규준을 이탈한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을 일깨우는데 자신의 전부 열정을 바치고 이것을 ‘현처’로써 신성하고 천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전념하여 남편을 유교문화에서 간주하는 ‘영웅’이나 진정한 남자로 만들고자 했다.”
“作為儒家文化虔誠的女信徒，燕夢卿把人生的全部熱情投注在對背離了儒家的生存法則的丈夫的‘拯救’之中，她把這一工作當成了‘賢妻’天然神聖的使命。她一心想把自己的丈夫改造成為儒教文化視域下的‘英雄’或是真男人。”
楊明貴, 앞의 글, p.38.

(C) 경랑이 말했다. “향기 가득한 술을 마시며 … 거기에 꽃다운 나이의 경국지색까지 함께 하니 더욱 부러울 것이 없구나!” 이 말을 들은 몽경은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149]

(D) 경랑은 술 여러 잔을 연달아 마시고 웃으며 말했다. “향기 가득한 술을 마시며 … 거기에 꽃다운 나이의 경국지색까지 함께 하니 더욱 부러울 것이 없구나! ” … 술김에 향아와 채운에게 한 것처럼 몽경을 방자하게 희롱하나, 몽경은 말없이 가만있기만 했다.[150]

위에 제시된 두 단락의 인용문 중에서 인용문 (C)는 燕夢卿과 耿朗이 혼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燕夢卿의 효행과 절행(節行)에 감복하여 그녀를 향한 耿朗의 은애의 마음이 한창 깊었을 때 했던 말을, 인용문 (D)에서 다시 꺼내는데 당시 둘 사이의 갈등은 이미 심해졌고 耿朗은 술김에 그녀를 희롱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燕夢卿의 반응이다. 남편의 총애를 받을 때나 갈등이 생겨 남편의 희롱을 당할 때나 그녀는 반응은 항상 유순하고 절제된 모습이다. 특히 남편과의 갈등으로 불화를 겪으면서도 반항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고 순종하는 윤리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비굴하게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는데서 그녀의 외유내강(外柔內剛)적인 성격이 잘 체현되었다.[151]

아울러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사정옥과 燕夢卿은 유교적 이데올

149) 耿朗道：“飲香醪，… 況又國色相對，各在芳齡、志願足矣，又何求哉！”夢卿聽了，低頭不語。(p.87.)

150) 耿朗連飲數杯，因笑道：“飲香醪，… 又國色相對，各在芳齡，志願足矣！” … 于是乘醉便移待香兒、彩雲的謔浪狎邪，以待夢卿，夢卿亦受而不辭。(p.157.)

151) 연몽경의 자아절제적인 모습에는 일정한 이념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양옥영(楊玉英)은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의 낙인(烙印)을 지니게 된다. 연몽경이 받은 교육은 유교적 윤리규준을 그녀의 도덕적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을 결정한다. 또한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은 천연으로 개체적 자아를 억압하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따라서 연몽경의 이념성을 완전 배제시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에 제시된 작품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념적인 일면도 배제시키지 않되, 그녀의 성격 중 자율적이고 절제하며 비굴하지 않는 측면도 보아 낼 수 있다. “每個人必然會帶有他所在時代的烙印，燕夢卿所受的教育決定了儒教自然成為她的道德準繩。而儒教的社會價值取向本身就帶有個體對自我的壓抑的天然屬性。”
楊玉英，「<林蘭香>悲劇精神的建構與解構」, 集寧師範學院學報, 2018年 第4期, p.12.

로기가 지배하는 당시 韓·中 사회의 윤리적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는 전형적 인물로, “덕(德)”을 삶에서 추구하고 지향하는 일체 가치의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씨 집안의 여주인이자 주체임을 자각하고 ‘가성(家聲)’을 드높이는 것을 지향하는 사정옥은 의리가 있고 자존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고 남편을 진정한 ‘군자(君子)’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는 ‘현처(賢妻)’ 燕夢卿은 결단력 있으면서도 외유내강(外柔內剛)하고 절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2.2. 남성 주인공: 유연수와 耿朗

『사씨남정기』의 남성 주인공 유연수는 어릴 적부터 위관청렴(爲官淸廉)한 부친의 가르침 아래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자랐으며 출중한 용모와 뛰어난 글재주로 열다섯 어린 나이에 장원에 급제하고 스물에 한림편수(翰林編修)로 조당에 오른다.

『林蘭香』에서 외모는 준영하지만 자질이 평범한 남자 주인공 耿朗, 국공(國公)의 질손(姪孫)으로,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었지만 우월한 출신 덕분에 양호한 교육을 받아 자랐으며, 열여섯에 과거에 급제하고 허직(虛職) 병부관정(兵部觀政)을 임명받는다.

작품에서 유연수와 耿朗은 모두 가문 어르신의 주선에 혼사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耿朗은 燕夢卿의 절색 용모를 보고나서 그녀와의 혼인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상사병에 심히 앓게 되는데 아들이 걱정스러워 모친 강부인은 상서(尙書)가문 출신인 규수 林雲屛을 며느리로 급히 택한다. 또한 두 사람의 득첩(得妾)으로 보았을 때, 『사씨남정기』의 경우, 가문의 안정화(安定化)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후계 문제를 해결하는 명분으로 첩을 들이게 되는데, 이에 대해 유연수는 암묵적인 태도를 보였다.[152] 『林蘭香』에서

152) “사씨는 유연수에게 첩을 들이기를 권하는데 이때 고모 두부인은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라고 하며 적극 만류한다. … 사씨는 끝내 자신감을 드러내며 의지를 관철시킨다. 결국 사씨는 士族의 후예인 교채란을 첩으로 들이기에 이른다. 유연수는 그다지 기꺼워하지 않지만 끝내 사씨의 의도를 존중하여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耿朗은 여성 주인공 燕夢卿을 측실로 들이기 전에 정실 林雲屛 말고도 첩 任香兒이 있었고 燕夢卿을 들이고 나서도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첩으로 들이는 것으로 보아 耿朗의 취첩(娶妾)은 일반적인 관례에 충실하여 일부다처란 혼인 제도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두 작품의 첫 시작에서부터 남성 주인공의 기본적인 인물 형상은 이미 정해진바 즉 유연수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가장의 모습으로, 耿朗은 전형적인 세가(世家) 귀공자의 모습이다.

그럼 아래에서는 처첩 문제를 대처하는 유연수와 耿朗의 언행을 통해 그들이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인지를 여성 주인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사씨남정기』에서는 교채란의 모함이 유연수의 구체적 의심을 샀기 때문에 사정옥이 내쳐진 것이다. 사정옥을 향한 교채란의 모함은 네 차례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처하는 반응을 통하여 유연수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처음, 교채란의 모함은 사정옥이 탄금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한다는 참언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유연수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다.

> ‘부인이 평소에 투기하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어찌 이런 말을 했을까? 또 부인은 교씨를 예로 대하며 단점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 비록 하인들 사이의 일이라도 그 잘못을 드러나게 지적하지는 않았으니 교씨가 부인에게 잘못을 저질러 그런 것이 아닌가?’
>
> 이유를 알 수 없어 얼마 동안 생각하다가 교씨를 불렀다.

… 그것도 가부장인 유연수와의 타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암묵적 용인에 의해 진행된다.” 황병홍, 앞의 글, pp.85-86.
“다만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 일처일첩을 용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연수는 사정옥의 '진정을 몰라' 의심할 뿐이었다. 유연수로서는 첩을 들임으로써 집안에 분란이 생길까 걱정하였을 뿐이다.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취첩을 그로서는 전혀 마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첩 두는 것이 아직 바쁘지 아니하나 부인이 어진 듯으로 권하니 막기 어렵고, 또한 교씨 그렇듯 아름답다 하니' 진정 흐뭇하여 교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병헌·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인물 형상과 지향」,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09, p.37.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부인이 권했기 때문이네. 일찍이 부인이 자네에 대해 나쁜 말 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 설사 해하려 한다 해도 내가 있는데, 어찌하겠나?"

교씨가 겉으로 사례했으나 분한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 (pp.40-41.)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참언을 들은 유연수는 사정옥 평소의 언행을 떠올리면서 신중히 생각을 정리하고 일단 교채란을 위로한다. 평상시 사정옥의 행실을 보아왔기에 그만큼 신임이 있어 사정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으로서의 당당한 자신감도 드러내면서 자신이 있는데 누가 해칠 수 있겠냐고 교채란을 안심시킨다. 그렇기에 교채란은 더 이상 참소할 틈이 없었고 일단 가만히 있어야 했다.

이어서 교채란은 동청을 부탁하여 사정옥의 필체로 자신과 아들 장주를 저주하는 글을 써서 두 번째 모함을 시도했다. 글의 필체가 사정옥의 것임을 알아본 유연수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다.

한림은 그 필적을 자세히 보며 곰곰이 생각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중략)

한림이 앞에서 그 글을 태워버리고 이어 납매에게 주의를 주었다.

"삼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중략)

한림이 그 필적을 보니 사씨의 손에서 나온 듯했다. 끝까지 밝혀내다간 난처한 우환이 있을까 걱정해 흔적을 태워 없애버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교씨가 지난번에 부인이 투기한다고 말했어도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흉악한 변고가 있으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을까? 부인이 처음에 아들을 얻은 뒤 갑자기 독수毒手를 뻗치니 이는 이른바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푼다는 것이야.'

이후로 사씨를 전과 크게 다르게 대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pp.48-49.)

구체적인 증거물이 눈앞에 있기에 유연수는 낯빛이 흙같이 변해 오래도

록 아무 말 없이 필체를 곰곰이 확인하였으며 속으로 사정옥의 글씨체라는 것을 의심이 들어도 우선 주변 상황과 집안 분위기를 고려해가면서 집안에 난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글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납매를 비롯한 비복들의 입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단지 이 사건을 대처함에 있어서 사대부 가장으로 유연수의 자세와 행위는 합리적이고 침착하다고 할 수 있다.[153] 다만 속으로는 사정옥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를 보였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교채란은 옥지환을 훔쳐내어 증거물로 냉진에게 주면서 모친을 병구완하러 신성에 가 있는 사정옥이 사통하였다고 세 번째 모함을 진행하였다.

> 한림이 어찌 집안에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을 모르겠는가. 유심히 바라보고 매우 이상하여 꼭 다시 봐야겠기에 젊은이에게 부탁했다. (중략)
>
> "이 옥은 정말 좋은 물건이오. 장형은 어디서 이를 얻었으며, 내의에 동심결로 매단 뜻은 무엇이오? 필시 마음으로 아끼는 물건일 것이외다."
>
> (중략)
>
> 한림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을 만약 우리 집안의 물건이라면 저가 얻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만약 다른 집의 물건이라면 옥의 품질이나 모양이 어찌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을 수 있을까? 신성에서 왔다고 했으니 비복들이 훔쳐내 이자에게 판 것은 아닐까?'하며 반드시 전말을 알아내고자 했다. (중략)
>
> '이 비록 의문이 없을 수 없으나 다시 생각건대, 사씨가 어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겠으며, 세상에 어찌 비슷한 물건이 없겠는가?'하고 의심

153) "다만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동청이 서기로 집안에 들어왔다는 변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바로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유연수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유연수가 사씨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동청을 받아들인 일은 훗날 유배를 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다는 점에서 유연수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앞서 언급한 사씨가 두부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교씨를 받아들여 집안의 화근을 키운 것과 동일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씨와 동청을 유가로 들인 것은 집안의 화목을 위협할 '요망한 첩'과 '간악한 문객'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밀어붙여 가내에 끌어들인 부부의 실책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황병홍, 앞의 글, p.88-89 참조.

을 누그렸으나 내심 불안해했다. (pp.53-55.)

자기 집안에 세전하는 구물(舊物) 옥지환이 장진이라고 이름을 속인 냉진의 내의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유연수는 이성적으로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가락지의 출처를 알아내고자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 과정에서 '비복들이 훔쳐내 이자에게 판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사정옥을 애써 신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옥지환의 행방을 확인하며 가락지의 행방이 정말로 불명하자 유연수의 잔존한 믿음이 깨지고 사정옥을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는 교채란과 머물게 됨으로써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와중에 벌어진 마지막 사건, 동청이 납매를 시켜 장주를 죽이고 교채란은 이에 동조하여 누명을 사정옥에게 씌워 유연수가 사정옥을 축출하는 결정에 쐐기를 박게 된다. 즉, 사정옥에 대한 의심은 유연수 천연의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앞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로 점진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林蘭香』에서도 역시 任香兒의 참언이 耿朗의 의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燕夢卿이 냉대(冷待)를 받았다. 하지만 燕夢卿을 향한 任香兒의 참언을 대처하는 耿朗의 반응은 유연수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를 통해 두 남성 주인공의 성격적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향아가 말한다. "부녀자들은 응시도 안 하는데 시문 배울 필요가 왜 있을까요? 연가 언니와 화운한 분이 자가 언니라 다행이지만 모를 외간 남자랑 이었으면 비웃음을 사지 않았겠어요? 연가언니는 세심한 분이실텐데 어찌 이것을 생각지 못했겠어요? … 또한 부녀자들의 글을 경박한 자들이 얻으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경랑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처음 경랑은 부친 대신 죄를 짊어지는 연몽경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존경하고 사모의 정이 생겼고, 다음에 측실로 자청하는 모습을 보며 은애하는 사랑이 생겼으며, 후에는 그녀의 학문과 풍아함에 가의可意의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향아의 말을 들어 보니 또한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는 '여자는 재주와 명성이 있는 것을 제일 꺼린다. 재주가 있으면 자만할 것이고 명성을 얻으면 남을 업신여기니, 이러다가 나중에 처첩들의 불화를 초래할 것이다.'고 가만히 생각했다.[154]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처음 참언을 들었을 때, 아내의 평소 행동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가문의 안정을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 침착하게 판단을 내리는 유연수의 이성적인 모습과 다르게 耿朗은 처첩들 사이를 조정할 임무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任香兒의 말 한마디에 燕夢卿이 부친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는 효행과 일부종사의 절행(節行) 그리고 그녀의 재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사랑의 감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감성에 기초하여 매사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처첩들이 모여 시를 지을 때 燕夢卿이 시를 부채에 적어 시녀에게 선사하고 그 부채가 실수로 耿朗의 사촌동생 耿服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耿朗이 우연히 그 부채를 보고 燕夢卿의 필적임을 알아보고는 耿服과의 관계를 의심한다. 거기에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任香兒는 고의로 부채는 분명히 燕夢卿이 耿服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참언하다보니 耿朗은 의심이 커짐에 따라 가내에서 燕夢卿의 가권(家權)을 빼앗는 등 다방면의 제재(制裁)를 가하고 그녀와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동쪽 칸에 들어가 보니, 변색된 옷 한 장이 걸려 있는데, 추석날에 취중 남김이 분명하다. 이에 간언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 경랑은 안색이 급변하여, 한 잔의 차와 탕도 마시지 않고 바로 앙연히 방을 나간다. 몽경은 이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 옷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

154) 香兒道："我想婦女們又不應考，何必學習詩文？燕家姐姐的和韻詩幸而遇著自家姊妹，倘若是游冶浪子假作，豈不惹人訕笑？燕家姐姐乃細心人，為何想不到此？ … 況且婦女們筆跡言語，若被那些輕薄子弟得了去，有多少不便處！"耿朗聽了，半晌不言語。
不言夢卿得詩，再說耿朗初見夢卿求代父罪，生了一番敬慕之心。次見夢卿甘為側室，又生了一番恩愛之心。後見夢卿文學風雅，復生了一番可意之心。及至聞香兒之言，不免又生出一番不足之心。因想道：婦人最忌有才有名。有才未免自是，有名未免欺人。我若不裁抑二三，恐將來與林、宣、任三人不能相下。(p.73.)

아차리고, "사람의 의심이 이 정도로 많다니!"라고 말하고는 시녀더러 옷을 치우게 하고는 다시 꺼내어 입지 않았다.[155]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耿朗은 취하여 燕夢卿의 옷에 토사물을 묻혀 그녀가 옷을 말리기 위해 곁에 걸어둔 것뿐인데 耿朗은 燕夢卿이 평상시처럼 자신에게 충고를 하려 한다고 짐작하고 화를 내며 얼른 자리를 뜨는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耿朗이 전쟁터에 나갈 때까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 耿朗이 보내온 가서(家書)의 시 속에 오직 燕夢卿의 이름만이 보이지 않아 그녀는 극심한 울분에 숨을 거둔다.

이와 같이 耿朗은 유연수와 완전 다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는데 작가가 논평에서 耿朗을 "성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타인의 말에 잘 동요되어 일생동안 주변에 사람이 없다."[156]라고 하듯이 耿朗은 귀가 얇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157]

아울러 유연수와 耿朗은 처첩 문제를 대처할 때 사리 분별 능력이 약하고 치가(治家)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치가(治家)의 실패로 유배당하고 귀양길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죽음의 위기에까지 몰리는 유연수는 점점 본심을 되찾았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축출된 사정옥을 다시 집으로 들이기 위해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를 갖춰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 부부 함께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점점 성숙한 가장의 형상으로 개과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耿朗은 시

155) "見東套間衣架上搭著一件染過衣服, 便是中秋夜酒污的, 只道夢卿有意又要藉此諫勸, 幡然變色, 茶不飲, 湯不用, 怏怏然走了出去。夢卿看見這光景, 茫然不知所以。乃悟道 : "何人之多疑以至於如此!" 因令侍女將衣收過, 永不穿用。(p.157.)

156) 但性不自定 , 好聽人言 , 以此一生少得人力。(p.12.)

157) 이수민의 연구에서는 "경랑은 도덕윤리 면에서 별다른 결함은 없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 유약하고 남성으로서의 대범함이 없고 우유부단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부인과 화목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은 耿朗의 판단력과 현명함의 부족으로 기인한 의심과 各方面에 자신을 능가하는 부인이 경랑 자신에게 가하는 정신적인 간여를 용납하지 못하는 속 좁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경랑을 '주관의식 결핍형(主觀意識 缺乏型)'으로 분석하였다.
이수민, 앞의 글, 2003, p.11.

종 일관된 모습으로 작품이 종결 지을 때 까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158]

요컨대 유연수와 耿朗은 같은 명문 후예 출신이고 사대부로서 집안일을 다스릴 때는 시비 분별 능력이 약하고 미숙한 일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유연수와 비교할 때 耿朗은 귀가 얇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며 한 가문을 이끌어나가는 가장보다는 전형적인 세가(世家) 귀공자 형상이고 유연수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겸손한 자세로 가문을 이끌어나가는 성숙의 모습을 체현한 가장의 형상이다.

2.3. 적대적 인물: 교채란과 任香兒

『사씨남정기』의 교채란, 『林蘭香』의 任香兒, 두 인물은 모두 적대적 인물로 작품에 등장하며 여자 주인공과 대립 갈등관계를 맺는다. 아래는 두 인물을 단순한 '악인(惡人)'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남녀 주인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성격적 특징을 유추하고 비교해보도록 한다.

『사씨남정기』에서 교채란은 매파가 첩을 구하는 사정옥에게 소개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첫 등장하였다.

> "하간河間 땅 사람입니다. 성은 교喬요, 이름은 채란彩鸞입니다. 본래 사족의 딸이었으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오라비에게 의지하였죠. … 처자가 스스로

158) 유연수에 대해 오경숙은 "조선조 사회의 유교적 가치관이 제시하는 전형적인 인물로서 현실적 자아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나가는 인물 유형"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유연수는 한 인간으로서 선비, 군자, 성인의 단계까지 인격의 완성으로 향하여 성숙하여 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과 경험에 비추어 완성되어 나가는 인간의 길을 적나라하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씨가 이미 완성된 차원의 인간성에서 출발했다면 유연수는 지속적으로 성숙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기에 더 인간적"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숙해가는 가장 형상"이란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오경숙, 「<사씨남정기> 연구」, 『어문연구』 제21집, 어문연구학회, 1991, p.364 참조.

'문호門戶가 이토록 쇠잔하니 선비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이름난 재상가의 첩이 되리라'라고 말했답니다. … 그 여자의 아름다운 자색은 온 고을에 이름났고, 옛사람의 책을 읽고 옛사람의 행실을 본받으며, 여공女工의 재주 또한 능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 (pp.32-33.)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교채란은 몰락한 사족 출신에 재색을 겸비한 여인으로 무난히 후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연수의 첩으로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이름난 재상가의 첩이 되리라'란 말로부터 교채란은 목적성이 강한 인물로, 현재의 가난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의지와 욕망에 충실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유독 임자림만 풀려 나오지 않아 엽안인安人의 마음이 조급해 났다. 좋은 계책이 없을 때, 꽃같이 아름다운 딸을 보자, 그녀를 경가로 보낼 것을 권하였다. 애초에 임자림은 거절하였지만 더 좋은 계책이 없어 따르기로 했다. … 경가에 이르러 풍류하고 우아한 경랑과 덕후한 운병을 본 향아가 마음먹고 둘을 잘 모셔 애써 잘 보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랑의 첩으로 되었다. … 후에 향아가 임재주의 친정 딸인 것을 알고서야 모친 강부인께 고하여 서상西廂 세 칸을 내어 그녀를 안착시켰다.[159]

任香兒는 시정(市井) 상인(商人) 출신으로 부잣집 딸이지만 부친을 구하기 위하여 계책을 꾸며 신분을 숨기고 조당에서 세력이 강한 경가(耿家)에 시녀로 들어가게 되는데, 초면에 耿朗한테 반한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와 빠른 눈치로 耿朗을 모시면서 상대방의 눈에 들어 燕夢卿이 경가로 들어오기 전에 첩으로 된다. 이렇게 任香兒는 정통적인 교육을 받아온 사대부 규수 출신 여인과 다르게 애초부터 예교(禮敎)에 구애하지 않는 진솔한 모

159) 惟任自立不在此例。冉安人見此旨詔，益發心慌。欲另作計議，又無妙法。見自家養的女兒如花似玉，到十分去得，不得已親至監中與任自立商議。自立初不允，後來見勢甚急，只得依從。… 及至到得耿家，見耿朗風雅，雲屏寬厚，便亦自有主義：一心事奉，加意殷勤，不數日就作了耿朗側室。… 後來方知是任財主親女，反倒不好輕待，稟明康夫人，收拾西廂三間，令他居住。(p.38.)

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사정옥과 燕夢卿이 당시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인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절제된 이념형 인물이라면 교채란과 任香兒은 작품의 첫 시작부터 욕망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추구하는 세속형(世俗型) 인물로 등장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비록 두 작품에서는 교채란과 任香兒를 모두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하였지만 그녀들의 악행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았다.

『사씨남정기』에서 교채란은 자신이 유씨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처인 사정옥에게 후사(後嗣)가 없었기 때문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에 애초에는 이에 걸맞게 유연수의 뜻을 잘 받들고 사정옥을 극진히 섬긴다. 그리고 수태하고 십랑에게 진맥(診脈)한 결과 여자의 태기임을 알고 자신의 입지에 대해 불안해한다.

> "상공께서 나를 취한 것은 내가 사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후사를 보기 위해서인데 딸이라면 낳지 않느니만 못하다." (pp.34-35.)

교채란은 유씨 집안 내에서 불안정한 자신의 존재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십랑에게 금은보배를 주면서 술법으로 복중의 태아를 남아로 바꾸어 장주를 낳는다. 이 것은 곧 "서자(庶子)임을 알려주는 것이면서 또한 정도(正道)가 아닌 술법에 의한 권도(權道)의 소생임을 알려주는 것"[160]이기도 하는데 이로부터 교채란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욕망성취를 위한 경제적 계약관계로 맺어지며[161]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성

---

160) 신해진, 「<사씨남정기> 교씨의 인물형상과 의미 -형상의 소종래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11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1, p.42.

161) "이렇게 제일 먼저 교녀와 손을 잡는 이십낭은 서로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암묵적 계약 속에서 관계를 맺는다. 점술가인 이십낭은 자신의 능력을 교녀의 태아 성감별과 성전환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돈'을 얻으며, 이후 교녀가 사씨를 모함할 계교를 물을 때에 그 방도를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다."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85 참조.

전환(性轉換)과 낙태 등 반자연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방도를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가난한 선비의 아내보다 이름난 재상가의 첩이 되고 싶은 교채란은 사족이란 신분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음률을 좋아하여 종종 탄금과 노래를 즐기는데 이에 대해 정처 사정옥이 한마디 하자 교채란은 자신의 지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장주의 뒤를 이어 태어난 적자 인아에 대한 유연수의 편애와 더불어 교채란은 동청과 결탁하게 되며 그녀의 형상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 한림이 옷을 벗지도 않은 채 인아를 껴안으며 말했다.
> "이 아이 이마 위 뼈가 솟은 것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비슷하니 필시 우리 집안을 크게 할 것이야."
> 유모를 돌아보면서
> "모름지기 조심하여 기르거라"
> 하고 다시 인아를 유모에게 맡기고 나갔다.
> 장주의 유모가 장주를 안고 들어가 교씨에게 통곡하며 아뢰었다.
> "한림께서 인아만 사랑하셔서 장주는 보고도 아니 본 듯 하시더이다."
> (p.42.)

장주 유모가 교채란에게 유연수가 정실의 아들인 인아만 어루만져 주면서 각별히 잘 기르도록 당부했고 첩의 아들 장주는 못 본 체하고 지나가 버렸다며 알리는 장면이다. 본디 유교 사회에서 적자에 비해 서자는 별 의미를 지니지 못했는데 유연수의 이러한 차별적인 행동은 오히려 "재바르고 총명해 한림의 뜻을 잘 받들(p.34.)"었던 교채란을 더욱 불안하게 자극시킨다.

이런 시점에 교채란은 동청에 대한 유연수의 신뢰와 사정옥의 적대감을 알아차리고 그이와 결탁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며 자극으로 인해 원래 가려져 있던 그녀의 욕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팽창하며 극대화되면서 나중에는 친자 교살(絞殺)로부터 사정옥을 축출하고 유연수까지 유배시킨다.

"일은 어찌되었느냐?"

"요행이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값을 매우 높게 부르더이다."

"모든 보배를 다 들이부어도 아까울 게 없지."

"보배를 이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매가 교씨의 귀에 대고 몰래 동청의 말을 전하니 교씨가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p.47.)

교채란과 동청은 모두 몰락한 사족 출신으로서, 신분적으로 사회적 존립을 유연수에게 의존한다는 상호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 관계는 성(性)적인 결합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인 결합은 서로에 대한 신뢰나 영혼을 교유하는 '사랑'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성(性)의 교환에 불과한 '공범자적 연대의식 강화'라는 측면과 '성적인 쾌락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다.[162] 이처럼 교채란은 성적 계약관계로 그들과 공범자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채란은 비록 사족 출신이지만 신분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음률을 좋아하여 종종 탄금과 노래를 즐기는 향락적인 생활을 누리고자 한다. 때문에 육체적 대가로 동청과 결탁할 것을 흔쾌히 수긍했고 정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도 유연수가 귀양 떠나자마자 가중의 보물을 챙겨 동청을 따라 부임하며 동청이 패망하자 냉진을 따르고 나중에는 조칠랑이란 가명(假名)으로 기생 생활을 한다.

요컨대 교채란은 욕망적인 인물로 예민하고 민첩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가리지 않으며 계약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든지 자기변형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성격을 소유한 인물이다.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林蘭香』에서 任香兒의 친정은 돈이 많은 상인(商人)이지만 당시 사회는 상인을 가장 말단으로 보고 있기에 사대부가 규수 출신인 燕夢卿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아무런 전

162) 최기숙, 앞의 글, pp.85-86 참조.

제적 조건 없이 그저 우월한 출신과 탁월한 재덕으로만 영입된 燕夢卿과 달리 任香兒는 耿朗에게 반하여 첩으로 되었으나 애초에는 경가의 세력을 빌어 자신의 부친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 온 것이다.

따라서 任香兒는 자신의 출신이 비천해 보였고 이러한 열등감 때문에 耿朗의 총애만으로는 부족함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燕夢卿의 입문으로 자기가 둘째 부인의 자리로부터 밀려나게 되었으니 燕夢卿이 경가(耿家)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회만 생기면 남편에게 참언을 했다.

> 향아가 말한다. "부녀자들은 응시도 안 하는데 시문 배울 필요가 왜 있을까요? 연가 언니와 화운한 분이 자가 언니라 다행이지만 모를 외간 남자랑 이었으면 비웃음을 사지 않았겠어요? 연가언니는 세심한 분이실텐데 어찌 이것을 생각지 못했겠어요? … 또한 부녀자들의 글을 경박한 자들이 얻으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경랑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163]

위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출신 계층으로 말미암아 任香兒는 燕夢卿처럼 제대로 글공부를 배우지 못했지만 시정(市井) 상인(商人) 특성상으로 눈치가 빠르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녀는 耿朗이 당시 사대부 가장으로서 남성중심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燕夢卿이 작시(作詩)하여 벽에 남긴 행위를 이용하여 유교적 덕목을 명분으로 삼아 교묘하게 이간질을 한다.

훗날 비복에게 선사한 부채가 우연히 사촌동생 耿服의 손에 들어가는데, 燕夢卿이 시를 짓고 부채에 적을 때, 분명히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任香兒는 耿朗이 燕夢卿을 오해하도록 거짓말을 써가면서 온갖 기회를 노려 耿朗과 燕夢卿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任香兒는 시정 상인 출신으로 사랑과 혼인의 추구에 있어서는

---

163) 香兒道："我想婦女們又不應考，何必學習詩文？燕家姐姐的和韻詩幸而遇著自家姊妹，倘若是游冶浪子假作，豈不惹人訕笑？燕家姐姐乃細心人，為何想不到此？ … 況且婦女們筆跡言語，若被那些輕薄子弟得了去，有多少不便處！"耿朗聽了，半晌不言語。

예교(禮敎)에 구애하지 않는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눈치가 빠르고 남의 생각을 잘 파악하며 온갖 기회를 노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질을 갖춘 인물이라 할 수 있다.[164]

요컨대 교채란과 任香兒는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세속형(世俗型) 인물로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가권(家權)을 얻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으로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任香兒와 달리 교채란은 자신의 경쟁자가 언제나 확고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커다란 위협을 절감하면서 그런 '가정(假定)'된 불안감에 휩싸여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뚤어지게 나가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나중에는 간통, 친자 살해, 남편 살해 등 인성 잃은 비인간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데에서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4. 조력 인물: 두부인과 田春畹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인물들이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비록 주인공 인물처럼 작중에서 대량 편폭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여성 주인공을 돕고 심지어 위기에서 구출하는 조력 인물로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의 가장 중요한 조력 인물을 꼽자면 바로 시고모 두부인이다. 명철한 사리판단과 확고한 지신태도(持身態度)를 가진 두부인은 유교의 가치관으로 도야된 이상적인 여성인물로, 올바른 판단력과 연륜으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르침이 없도록 유연수를 인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특수인물로, 유씨 집안에서 사정옥에게는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164) "세가대족에 들어간 향아는 상인 출신으로, 속임 수가 많고 투기심이 많다. 그녀의 이러한 소행은 명청시기 인간해방 사조 속 여성들이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으려는 욕구와 개인 권리의 쟁취에 각성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作為嫁入世家大族的商人之女，香兒生性機詐，爭寵善妒。香兒的心機及種種努力展示出明清之際人性解放的思潮中女性不甘壓迫的內心要求和爭取個人權利的覺醒意識。"
任正君·牛景麗, 앞의 글, p.32.

사정옥이 없어진 옥지환 때문에 유연수의 의심을 받을 때 두부인은 지난날 유소사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정옥의 덕행을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나섰고, 그녀를 위하여 옥지환 행방을 두루 탐문하였으나 끝내 알 길이 없자 심난하여 유연수의 집을 왕래하지 않았다. 즉 두부인은 시어머니와 같은 반열에는 있으나 필경 출가외인이었으므로 친정 일에 적극 개입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부임하는 아들을 따라 장사로 떠나기 전 두부인은 유연수를 찾아가 사정옥에게는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보장하니 이상한 말을 절대 듣지도 믿지도 말라며 혹시 눈으로 직접 보더라도 급히 처리 말고 반드시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의논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석고대죄하고 있는 사정옥을 찾아가 추후 만일 난처한 일이 벌어지거든 자신을 찾아오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은 반드시 착한 사람을 보호한다며 액운은 오래지 않아 곧 지나간다고 위로해 준다.

훗날 사정옥은 축출당하는데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라는 두부인의 말을 쫓아 남정의 길에 오르게 된다. 두부인이 사정옥의 곁에 머물면서 그녀를 위해 변호할 때는 유연수는 의심하면서도 고모님의 뜻을 거를 수 없어 가정이 그나마 평온하였으나, 두부인이 떠나자 집안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또한 나중에 유연수와 사정옥이 다시 만나 가정이 회복되면서 두부인도 돌아오는데, 두부인은 끝까지 사정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주는 선역의 보조자이다.[165]

이처럼 두부인은 적당한 연륜과 고모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사정옥과 유연수 사이를 중재하면서 유연수 집안이 평온함을 잃지 않도록 충고와 설득을 하며 사정옥의 덕성과 결백을 믿어주는 강력한 지지자이다.

『林蘭香』에서 燕夢卿의 가장 중요한 조력 인물은 바로 그녀의 시녀 田春畹이다. 작중 田春畹은 생김새부터 하는 말이나 행동, 심지어 분위기까지 燕夢卿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는 시녀로, 燕夢卿이 죽은 후에는 그녀 대신 아들을 정성껏 양육하면서 소저 대신 생

165) 오경숙, 앞의 글, pp.367-368 참조.

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는 인물이다.

田春畹은 燕夢卿의 임종 부탁에 따라 耿朗의 첩이 되는데, 그녀는 燕夢卿의 1년 상기(喪期)가 다 찬 다음에야 비로소 시어머니 康夫人의 명을 받들어 耿朗과 혼사를 이룬다.

耿朗의 첩으로 된 후, 田春畹은 燕夢卿의 말대로 매사에 공손하고 任香兒의 공격과 모함에도 따지지 않고 참아냈으며 재간을 부려 총애를 다투거나 자색으로 남편 耿朗의 어여쁨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아들 耿順을 정성껏 보살피면서 정직하게 양성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 燕夢卿이 살아 있을 때 변명하지 않아 耿朗이 오해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대신하여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耿朗이 燕夢卿과 좋았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둘 사이의 오해를 풀어준다. 그리고 아들 耿順에게는 항상 燕夢卿의 탁월한 재능과 고상한 덕행에 대해 말해줌으로써 친모의 고매한 품성을 계승하도록 타이르고 친모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성을 다 한다.

이렇게 田春畹은 燕夢卿이 살아 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온갖 충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燕夢卿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다는 데서 절대적인 조력 인물이라 할 수 있다.

3. 주제의 비교

3.1. 개인과 가족, 국가의 상호관계

(1) 가족, 국가의 공동체 의식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씨남정기』는 '가(家)'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다룬 작품으로, 사정옥은 유씨 집안의 여주인이자 주체임을 분명히 자각한 인물로써 그 어떠한 화란의 와중에도 스스로를 가누며 천정의 소명

과 운명개척의 의지를 감당해낸 모습을, 유연수는 가문과 나라를 든든히 지켜내는 역량과 함양을 키워가는 합격한 가장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개인의 수신(修身)과 제가(齊家) 나아가서 치국(治國)이란 주제적 관심이 소설 속 '가(家)'와 '국(國)'이란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사정옥과 유연수를 중심으로 하는 작중인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작품의 첫 시작부터 유가(劉家) 가내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것이 바로 가장의 치가(治家)를 돕는 내조(內助)이자 가문의 안정[166]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는 유연수의 모친 최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집 안주인의 부재'이다.[167]

하지만 유씨 가문의 가풍(家風)과 가격(家格)의 유지·계승에 있어서 유연수의 출사(出仕)로만 부족하며 아들의 적합한 배필, 즉 미래 집 안주인의 선택 역시 중대사이다. 따라서 유소사는 며느리 감의 집안과 됨됨이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핀 결과, 청렴·정직한 충신 집안의 규수이자 덕성이 뛰어난 사정옥을 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

이로부터 유연수는 가장으로서 가권을 계승하는 동시에 가문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제가라는 책임을 한 몸에 맡게 되며 "유가적 이념을 지향하지 만 세상 경험이 일천한 유연수, 사정옥 부부의 가문 지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168]

---

166) "<사씨남정기>는 처첩 갈등이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작자의 지향의식은 가문의 안정에 있다고 본다." 장경남, 「壬·丙 兩亂과 17세기 小說史」, 『우리문학연구』 제21집, 우리문학회, 2007, p.215.

167) 유씨 가문에서 집 안주인의 부재가 가문의 안정적 계승과 유지에 불리한 조건이고 유연수의 치가 능력에 대한 시련이라는 점을 아래의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가부장의 치가 능력을 문제 삼기 위해 유연수의 모친 최씨가 유연수를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상황을 설정한다." 박일용, 앞의 글, p.229.
"母親 최씨는 유연수가 강보를 떠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다. 그로 인해 劉家는 안주인의 부재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황병홍, 앞의 글, p.84.

168) 황병홍은 "유연수가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점, 과거 급제 후 스스로 疏를 올려 십 년 동안의 독서 기간을 청했을 때 천자가 '聖賢의 글을 읽으며 致君의 道를 강구하라'고 한 점, 소사가 '忠義를 힘써 닦아 성은에 보답하라'고 한 점"을 밝히면서 유연수는 사정옥과 마찬가지로 유가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로 그의 유학적 소양은 이론적 성격에 가까운 것이라 논한바 있다.
황병홍, 위의 글, pp.84-85 참조.

경험이 아닌 책으로 세상을 배워온 유연수와 시정옥은 가문의 안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후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성이 바르지 못한 첩 교채란을 집으로 들이게 되는데 이는 훗날 유연수, 사정옥 부부가 겪는 모든 시련의 발단으로 된다.

사정옥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유문에서 축출당하여 남정 길에서 온갖 풍상고초를 겪게 되고, 치가에 무능하고 첩에 매혹된 유연수는 기실(記室) 동청까지 잘 못 들여, 가문을 난가(亂家)로 만들어버린 채 유배의 길에서 죽음의 위기에 까지 몰리게 된다.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주체 각자들에 의한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처인 사정옥은 첩인 교채란을, 가부장인 유연수는 기실(記室)인 동청을 집으로 들임으로써 가문에서 내쳐지거나, 조당에서 유배당하게 된다.

작품에서 동청이 조당의 간신 엄숭과 결탁하여 유연수를 귀양시키면서 유가 가문이 무너질 위기에 접하는 와중에 유연수의 귀양길에 나타나는 나라의 상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유연수의 고난과 더불어 백성들 역시 핍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나라의 '가장'이자 주인인 천자는 간신 엄숭을 신임함으로써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는 시련을 겪는다.

나중에 유연수는 일련의 고난을 겪으며 가장으로서 가문과 나라를 든든히 지켜내는 역량과 함양을, 사정옥은 그 어떠한 화란의 와중에도 스스로를 가누며 천정의 소명과 운명개척의 의지를 지켜냄으로써, 유연수 부부는 "가정으로의 복귀와 진정한 의미의 가운 회복을 이루며" 가문을 재기시키며 천자의 경우, 본연의 성심을 되찾음으로써 간악한 무리를 숙청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다.[169)]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씨남정기』에서 유연수의 지위는 가정 내에서

---

169) 황병홍의 연구에서는 사정옥, 유연수, 천자가 선택의 주체로서 모두 잘못한 선택으로 시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시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부는 가정으로의 복귀와 진정 한 의미의 가운 회복을 이루고, 천자의 경우 본연의 자세를 찾음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긍정적 상승효과를 획득한다."고 밝히었다. 황병홍, 앞의 글, p. 104 참조.

만 주어지지 않는다. 그는 가부장인 동시에 황제의 신하이기에 작품에서는 가정 내의 사건이 중심적으로 전개되는 동시에 조정의 사건이 이중적으로 전개된다.[170] 그럼 이러한 이중적 서사에 근거하여 작품에서 나타난 가정과 국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아래와 같이 구조화해 볼 수 있다.

[표Ⅲ-1] 가정, 국가 사이의 상관관계[171]

범주	가정		국가
주체	사정옥(원처)	유연수(남편, 방신)	천자
잘못된 선택	교채란 영입함	동청을 기실로 삼음	엄숭을 신뢰함.
고난	남정과 죽을 위기		기강 문란 백성 고난
결과	가문 재기 및 인물의 성숙		본연으로 복귀

[표Ⅲ-1]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사씨남정기』에서는 상하 수직적인 위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교적 사회질서 속에서 핵심적 권력을 장악하는 윗사람이 본심을 잃는다는 것은 곧 마음 본연의 밝고 옳은 상태가 흐트러지거나 가려져 '덕(德)'을 잃은 것으로, 은폐되어 있던 아랫사람들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질서의 변화 내지 약화 현상을 초래하고 반영한다는 것을 '가(家)'내에서는 유연수를 대표로, 나라의 측면에서는 천자를 대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유연수는 유문의 가장으로, 천자는 나라의 '가장'으로 가장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은 바로 한 가정의 위기뿐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가장의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씨남정기』에서는 궁극적으로 '사정옥'을 대표로 하는 부녀자뿐만 아니라 '유연수'를 포함한 양반사대부에게

170) <사씨남정기>가 '가정 내의 사건'과 '조저의 사건'이 이중적으로 전개되는 '이중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위주로 참고하였다.
이원수, 「<사씨남정기>의 반성적 고찰」, 『문학과 언어』 제3집, 문학과 언어학회, 1982, pp.12-17 참조; 김현양, 「<사씨남정기>의 욕망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pp.97-103 참조; 황병홍, 위의 글, pp.103-106 참조.

171) 위에서 제시한 [표Ⅲ-1]은 황병홍(2013)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까지, 심지어 '천자'로 대표되는 지배층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 사이의 상관성을 보여줌으로써 '가(家)'와 '가(家)'의 결합으로 구성된 '국(國)'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구현하고 있다.

(2) 가성(家聲)의 현양

만약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정옥, 유연수를 중심으로 개인을 비롯한 가정으로부터 나아가서 국가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가족과 국가 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체현하였다면 『林蘭香』에서는 주로 개인과 가족 사이에 주목하여 가장인 耿朗보다 여성 주인공 燕梦卿을 통한 가성(家聲)의 유지와 현양을 체현하였다.

『林蘭香』에서도 역시 작품의 첫 시작부터 경가(耿家)의 문제를 암시하였는데 '집의 안주인 부재'인 『사씨남정기』와 정반대로 『林蘭香』의 문제는 봉건대가족의 핵심인물인 '가부장의 부재', 즉 남자 주인공 耿朗 부친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가부장제 봉건대가족에서 가부장의 부재는 단순히 자식에게 부친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의 상실로 부권을 핵심으로 하는 가족문화의 쇠퇴를 의미하기에 작중 耿朗은 유력하고 현명한 가부장보다는 안일하고 향락에 만족하는 전형적인 세가 귀공자로 자라나게 된다.

이때, 부친을 구하기 위한 효행과 일부종사의 뜻을 굽히지 않는 절행으로 [효녀절부]의 명예까지 한 몸에 안고 경가(耿家)에 들어오는 燕梦卿은 유교적 윤리규준과 가치관을 지향하는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존경할만한 대상으로 가권(家權)을 얻게 되는데 재덕겸비한 그녀는 명석한 두뇌와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가사를 처리하자 가내외의 분위가 청명하고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燕梦卿은 남편 耿朗보다 봉건대가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정신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172]

---

172) 장용(張勇)의 연구에서는 연몽경이 경가 가족에서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 "남성가족문화가 점점 쇠퇴해갈 때, 이를 구원해 나설 책임은 여성에게로 넘어갔으며, 연몽경은 경가의 가업을 다시 진흥시키는 사명을 갖고, 연몽경은 봉건 말세 내리막길에 처해 있는 경가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태세를 보이게 했다. 부친의 부재와, 부권문화가 해체의 기

당부인과 강부인의 명을 받들어 몽경은 국공 경흔의 침상 앞에 가까이 섰다. 국공은 "비록 자네는 우리 집에 시집 왔지만, 나는 종래로 자네를 며느리로만 여기지 않았네. 자네의 마음가짐과 언행이 정직하고 바르니 이 늙은이마저 따르지 못하네. 자네는 항상 근면하고 큰어머님을 협조했으니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줘라!"[173]

위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집안의 어르신 사국공(泗國公) 경흔(耿忻)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임종 당부하는 장면이다. 국공의 당부에서는 燕梦卿의 행실에 대해 긍정하면서 심지어 그녀의 근면함과 명석함은 자신마저 따르지 못한다며 탄복을 자아냈으며 그녀가 부녀자로서 경가(耿家) 집안에서 일으킨 중요한 작용을 인정하면서 耿朗을 잘 내조하도록 당부한다. 이렇게 燕梦卿은 남편 耿朗의 행실에 대해 간언을 하고 경가 가문을 청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작용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경가의 가성(家聲)을 유지하고 드높이는 일은 그녀를 통해 실현한다.

경랑은 지친(至親)과 왕래하는 것만 빼고는 모두 사양하고 집밖을 나가지 않았으며…덕분으로 잡다한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게 응대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가용(가용)도 많이 줄었다. 연말까지 수유부는 명년 동(冬) 3월까지 합하여 총 백은 오백 냥을 절약했다고 경랑한테 고하니 이 모두 몽경의 말을 듣고 불필요한 왕래를 끊은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후로 몽경을 더욱 신뢰했다. [174]

미가 보이는 봉건대가족에서, 몽경은 틀림없이 가족의 정신적 지탱으로 작용하는 책임을 맡았다."
"在男性家族文化日益走向沒落之時，力挽狂瀾的責任落到了女性的肩上，燕夢卿肩負著振興耿家家業的歷史使命，她的到來使得處於封建末世下坡中耿家呈現出中興的勢態。在父親缺位，父文化被解構的封建大家族中，夢卿無疑承擔了家族精神支柱的重任。"
張勇, 앞의 글, p.21.

173) 棠夫人、康夫人令夢卿近立牀前，耿忻道："自汝至我家，我未嘗以汝為媳。汝之立心行事，我所未及也。汝其任勞任怨，以助汝伯母，勿逆我意！"(p.116.)

174) "耿朗公事之暇與至親親友酬酢往來外，即杜門不出…不但省卻多少周旋，亦省卻多少費用。及至年終，需有孚稟稱：算明冬季三個月內，共節剩雜費銀五百餘兩。耿朗知是寡交效驗，益發重信夢卿。"(p.90.)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 것 처럼 燕梦卿의 말을 듣고 불필요한 왕래를 끊은 耿朗은 화를 면하게 되었고 또한 그녀의 주도적인 관리 하에 경가 상하의 분위기가 물처럼 맑고 청렴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耿朗도 燕梦卿이 안주인으로서 가문의 가풍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공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녀를 따른 것이었다.

> 소마마는 "둘째 부인 방의 차환자매들은 능력도 뛰어날 뿐 성정까지도 너그럽고 대범하니 정말 훌륭하오. 심지어 채숙도 부인 방에 가서 모시다 보니 전보다 훨씬 예뻐졌네."라고 하자 윤마마는 "금에 가까이 하면 금이 되고 옥을 가까이 하면 옥이 되듯이 심지어 대들보로 쓰이는 철도 수를 놓는 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이야 더욱 그렇지"하며 답했다.[175]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 비복들의 수다 내용으로부터 보아 낼 수 있는데 燕梦卿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모시는 차환이 새로운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燕梦卿이 안주인으로서 그녀의 행실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가 상하 비복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끌어갈 건지, 더 나아가서는 가문의 가풍의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와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체현하고 있다.

그리고 燕梦卿이 경가 가문에서 일으키는 작용은 생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녀를 제사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온 천하의 사람들이 그녀를 추모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끊지 않았으며 그녀를 제사하는 사람은 경가 일족 상하에 구애되지 않았고 그녀의 덕성과 미명에 찾아와 제사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수 백 여명이 넘는 것이었다. 제사의 성대함은 당시 젊은 사족 여성한테 지낼 수 있는 보통의 정도가 아니었다. 심지어 전문 사당까지 내놓아 그녀를 참배할 정도로 燕梦卿의 풍채와 덕성으로 인해 경가의 가성(家聲)까지 현양되었다.

---

175) 索媽媽道："正是。二娘房內姊妹無一個不好，又有本事，又大方，又和氣。連彩菽都益發出落了許多。"
尹媽媽道："挨金似金，挨玉似玉，鐵打房梁還可作繡針，何況是個人？"(p.98.)

요컨대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는 여성은 집 안주인으로서 단지 남성의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집안을 지탱하는 한 중심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문을 유지 계승함에 있어서 개인, 가족 사이의 연관성을 극명히 제시하고 있다.

3.2. 삶에 대한 신념과 이념

(1)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신념

한국 고전소설의 구성형태에 있어서 한 가지의 특징은 선과 악을 대립시켜서 사건을 구성한 다음, 반드시 종국에는 선(善)이 승리하는 것으로 사건 자체를 마무리 짓는 심판종결구조(審判終結構造)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많은 경우 유교적 도덕 기준에 따라 반도덕적인 것을 모두 악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176] 그래서 선으로 표방된 사람은 반드시 종말에는 행복이 온다는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원리에 따라 고(苦)와 감(甘), 흥(興)과 비(悲)를 대립시켜 선인(善人)에게는 고진감래(苦盡甘來)로 부(富)와 귀(貴)가 함께 따르고, 악인에게는 흥진비래(興盡悲來)를 적용시켜 징치를 주었다.[177]

이러한 특징을 『사씨남정기』에서는 유연수를 정점으로 이루어진 사정옥과 교채란의 중심적인 대립 관계로, 사정옥은 처이면서 선인의 전형으로, 교채란은 첩이면서 악인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사정옥과 교채란의 대립은 처첩 갈등이라는 대립적 성격과 아울러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176) 한국고소설연구회, 「構成論」,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5, p.253 참조.
177) 박상석의 연구에서는 韓·中 양국의 '선악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한국고소설의 선악이야기에는 실존 인물을 등장인물로 한 <임경업전>, <임진록>과 같은 사실(史實)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 외에는 주인공의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한 편도 없다며 한국의 '선악 이야기'의 특수성을 '선인과 악인의 극명한 구분', '남녀 주인공 인물됨의 완벽함'의 규범, '주인공 측의 원만한 결말'의 규범이 한국 고소설의 선악이야기에서 특수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박상석, 「고소설 선악이야기의 서사규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56-63 참조.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178]

이 외에 『사씨남정기』에는 또 자연적인 것을 선(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조작적인 것을 악(惡)하고 추(醜)한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전제된다. 때문에 교채란이 주술적인 방법으로 태아 성감별(性鑑別)이나 성전환(性轉換)하는 것을 반인륜적이고 반자연적인 행위로 악한 것으로 조명된다.[179]

따라서 우리는 『사씨남정기』를 기본적으로 "사씨의 남정기"로, 즉 '선인' 사적옥이 겪는 고난의 역정과 그 귀환의 서사로 읽을 수 있다. 작중 사정옥은 교채란, 동청, 냉진의 연대 모음으로 여러 번 위기에 처하지만 시부모님의 현몽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남정을 떠나 임추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황릉묘(黃陵廟)에서 묘희에게 구원되어 수월암(水月庵)에 의탁하는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기꺼이 감내하며 운명의 몫을 받아들이는 순응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운명개척의 의지로 남편을 구원하고 유씨 가문을 재기하며 결국 모든 것이 원래적 삶의 자리로 귀환하는 것으로 자신이 덕성을 실천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나중에 사정옥의 훼절 음해의 빌미가 되었던 잃어버린 옥지환이 다시 유가(劉家)에 자연스럽게 귀환되면서 사정옥의 결백함이 밝혀지고 유연수는 다시 예(禮)를 갖춰 사정옥을 정실로 맞이하였으며 사정옥의 천거로 임추영을 첩으로 들이면서 잃었던 아들을 되찾아[180] 유문은 무한한 번영을 이루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교채란과 결탁한 인물들로 악의 물이에 편입되는 인물은 주로 이십랑, 동청, 냉진, 납매 설매 등이다. 이십랑은 이미 수년 전에 옥사에 연루되어

178) 이상구, 앞의 글, 2000, p.375.
179) 최기숙, 앞의 글, p.90 참조.
180) 최기숙의 연구에서는 "임추영이 유연수의 첩으로 되는 경위는 그녀가 전일 사정옥을 구원한 것이 인연으로 작용하며, 또한 유연수와 사정옥의 아들 인아를 돌보고 있었던 관계로, 그녀의 유가(劉家) 편입은 유연수과의 부부관계라는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정옥과 인아와도 각각 지기지우(知己之友), 모자(母子)의 우호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임추영의 유가(劉家) 편입 의미는 유연수의 첩이라는 개인적인 관계만이 전제되었던 교채란과의 처지는 상이하다. 임추영은 이미 유연수의 첩이기 전에 사정옥과 인아 모자의 구원자였으며, 인아의 양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추영의 편입은 필연적인 귀결이다."라고 논하면서 <사씨남정기>가 "사필귀정"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었다. 최기숙, 앞의 글, p.91.

처형되고, 납매는 동청과 정을 통하다가 회임하니 교채란의 투기로 살해당한다. 그중 설매는 개과한 인물로 양심이 불안하여 죄책감에 유연수에게 사실을 자백한 후 자결한다. 여기에서 일후 유연수의 완전한 회심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녀의 실토는 일단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원래는 교채란에 의한 죽음의 위협 때문이었다.[181] 동청은 냉진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는다. 냉진은 교채란과 지내던 중 재물절취가 발각되어 역시 죽음에 이른다. 최후에 교채란은 조칠랑이라는 기생으로 전락하여 지내다가 유연수 부부에게 행적이 발각되어 문책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이로써 악(惡)의 화려한 펼침은 교채란의 죽음으로 종식되고 징치되는 한편, 선(善)을 지켜온 사정옥은 고난 끝에 그 보상을 받음으로써 '인과응보, 사필귀정(因果應報, 事必歸正)'의 서사 논리가 완결되고 주제 사상이 한 번 더 강조된 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인과응보, 사필귀정(因果應報, 事必歸正)'의 주제는 사정옥의 유씨 가문의 귀환 과정을 비롯하여 그 이 후 가문의 재편성 과정 및 악인의 징치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씨남정기』 서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체계화되면서 구현되었다.[182]

『林蘭香』에서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결말에서 燕夢卿은 [사국절효부인(泗國節孝夫人)]으로 추봉 받았고,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준 인물에 대한 징벌로, 任香兒은 34세, 耿朗은 40세에 둘은 모두 일찍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었으며, 그들과 달리, 燕夢卿에게 충심을 다한 田春畹은 정실 계모로 적처(嫡妻)의 자리에 올라 70세까지 살았고, 燕夢卿의 아들 耿順은 국공(國公)의 자리를 물러 받아 99세 고령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이 역시 '인과

181) 신재홍, 앞의 글, p.204.

182) 우쾌제의 연구에서는 <사씨남정기>가 '권선징악(勸善懲惡)'적인 주제의 소설로 작품의 사고 구조를 플롯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작품에 보면 사씨나 유한림의 경우는 먼저 버림받은 자가 되어 추방을 당하게 되나 최후엔 다시 부름을 받아 이전보다 더 한층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교녀나 엄승상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일시적인 승리자가 되어 우선은 영화를 누리게 되나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라고 논하면서 선과 악의 대립으로부터 보편타탕한 대립 상태의 인간관계식을 추출함으로써 한국 고전소설의 '二値的思考' 특성에 대해 밝히었다. 우쾌제, 「<사씨남정기> 연구」, 『한남어문학』 제1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72, p.64.

응보, 복선화음(因果應報, 福善禍淫)'의 논리를 따르고 있기에 두 작품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2) 입신(立身) 및 생사 이념

앞장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정옥과 교채란 사이의 처첩 갈등을 극명한 '선인'과 '악인'의 대결로, 반드시 종말에는 '선(善)'이 승리하여 '선(善)'으로 표방된 사람에게는 고진감래(苦盡甘來)로 행복이 오고, '악(惡)'은 필히 패배하는 것으로, 악한 사람에게는 흥진비래(興盡悲來)로 징치를 내려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원리에 따라 여성 주인공 사정옥이 원만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었다면 『林蘭香』에서는 여성 주인공 燕夢卿이 일찍 죽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주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을 보이기도 한다.

『林蘭香』에서는 『사씨남정기』처럼 처첩 간의 극명하고 첨예한 선악 대립의 갈등을 부각하기보다는 전반 서사의 중심을 일찍 죽은 '효녀절부' 燕夢卿의 비극적인 운명을 부각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燕夢卿은 지혜롭고 현명한 대갓집 규수 출신으로 부친에 대한 효행으로부터 일부종사의 뜻을 굽히지 않는 절행(節行), 그리고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베어내는 희생적인 행위까지, 이 모두 작가의 이상적인 여인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녀의 비극적 운명은 유교적 이념 대(對) 현실의 패배를 의미하며 작자는 燕夢卿의 죽음을 빌어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는 동시에 자신이 굳건히 신봉하던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당대 현실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면서 삶의 가치의 실현, 즉 입신(立身)과 생사에 대한 깊은 고민을 작품을 통해 털어놓은 셈이다.[183] 그리고

183) 섭춘연(聶春艶)의 연구에서는 인생의 몽환감에서 표현된 작품의 비극의식은 작자가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발현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절망적인 사상 경향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되며, 사상적 측면으로부터 작품의 현실적 정신을 한층 깊게 체현하였다고 밝히었다.
"清前期一些世情小說尤其是<林蘭香>以人生的夢幻感所表現的悲劇意識，表現了作者對現實的絕望。這一悲觀的思想情緒實際上表現了作者對現實的一種清醒的認識，在更為深

燕夢卿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만약『林蘭香』에서 작자의 이상적 인물로 부각된 燕夢卿의 죽음으로 전반 작품이 끝났다면 이 작품의 주제가 봉건적 유교이념의 비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燕夢卿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녀 田春畹을 작품의 후반부에 전적으로 등장시켜 그녀 대신 이루지 못한 것들을 완성하되 원만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부터 작자는 유교적 이념으로 입신할 신념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아낼 수 있다.

> 몽경이 말했다. "암매한 일들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명할 것이니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자신만 위해 변명하다가 서방님의 체면이 깎이는 일은 아내로써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184]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오해를 받는 燕夢卿에 대해 불평을 느낄 때 그녀가 답하는 말이다. 작품에서 燕夢卿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다 못해 심지어 살짝 과묵한 편이기도 하기에 그녀의 비극에는 다소 성격의 문제도 없지 않다. 이러한 그녀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작가는 논평에 '오직 삼강오상을 위해 자신을 억누른다.[185]'라고 평가하면서 燕夢卿의 비극적인 삶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유교적 윤리규범에 얽매어 이에 집착하고 윤리규준을 융통성 없이 경직하게 받아들이는데 있다고 보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답답함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燕夢卿이 죽고 나서 그녀의 시녀 田春畹이 대신하여 작품의 후반부에 전적으로 등장한다. 田春畹은 생김새부터 하는 말이나 행동, 심지어 분위기까지 燕夢卿과 비슷하여 작가는 작품의 첫 시작에서 이미 '뿌리

刻的思想層面上體現了作品的現實精神。"
聶春艷,「論清代前期白話小說現實功利性和道德化的創作傾向」, 湖北師範學院報(哲學社會科學版), 2011年 第4期, p.114.

184) 梦卿道："暗昧事体，如何分辨得？必须日久自明…若必口巧舌能，就使辨得乾净，然令丈夫怀羞，自己得志，亦非为妇之道，…" (p.177.)

185)"屈身都只為綱常。"(p.166.)

가 남아 있으니, 난초는 시들어지지 않으리[186]'라고 하면서 田春畹을 燕夢卿의 분신이자 환생으로 보면서 복선을 남겼고 심지어 작자는 직접적으로 '춘원은 몽경의 후신이다.'[187]하면서 그녀는 작품의 후반부에 활약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가각 자기절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중한 燕夢卿과 달리 田春畹은 '단아한 모습과 유려(流麗)한 모습을 겸하였으니'[188] 더욱 유연한 성격과 융통성 있는 자세로 燕夢卿의 단점을 극복함으로써 그녀를 대신하여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완성해 나가며 나중에 원만한 결말로 끝을 맺는 것인데, 이로부터 작자는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입신할 의지를 田春畹이란 인물과 작품 속 그녀의 성공적인 삶을 빌어 더욱 확고하게 표현하였다.

즉 田春畹이라는 인물 속에는 燕夢卿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작자의 진지한 반성이자 또한 타협으로 이념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노력에 대응한 결과, 당시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유교적 이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얻어낸 사고의 결과물 중용(中庸)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만큼[189]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상에 입신하는 기저에 여전히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를 田春畹이란 인물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신하고 강조된 것이다.

또한 작품에서는 인생의 생사(生死)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주인공 燕夢卿의 비극을 비롯하여 죽음의 문제를 많이 다룸으로서 입신이란 세속적 측면에 관심이 보이는 것만큼 죽음에 대한

---

186) 宿根尚在，國香不泯。(p.11.)
*宿根(숙근): 전세(前世)에서부터 이미 정(定)해진 기근(飢饉).
*國香(국향): 난초(蘭草)를 달리 이르는 말.

187) "春畹是夢卿的後身" (p.261.)

188) "端莊流麗，兼而有之。" (p.19.)

189) 양옥영(楊玉英)의 연구에서는 전춘원의 인물 설정과 작품의 비극성에 대해 논했는데 연구자는 전춘원을 살아 돌아온 연몽경으로 볼 수 있다며 둘은 서로 분신의 사이로 사실상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작가가 전춘원을 연몽경의 '후신'으로 등장시킨 것에는 실패에 대한 배척의 심리로 정신상의 나약함과 행동상의 위축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또한 전춘원 형상에는 유교의 '중용사상'이 들어있다고 밝히었다. "田春畹這個形象可以說是還魂後的燕夢卿，兩人實則是二而合一的關係。為悲劇人物設立後身，就是一種排斥失敗，害怕犧牲的心裡，反映出精神上的軟弱和行動上的退縮。作者創造出這個'後身'的形象，飽含著儒家'中庸'的理念。" 楊玉英, 앞의 글, p.13 참조.

한탄으로 인생여기(人生如寄)의 주제를 체현하고 있다.

『林蘭香』은 총64회로 구성되었는데 그중에서 21회가 직접적으로 '죽음'을 포함한 서사이고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은 더욱 많다.[190]

더구나 작품의 결말 부분에 가서 비록 任香兒와 耿朗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하여 일찍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은 것으로 인생의 끝을 맺었지만 소위(所謂) 착한 인물인 田春畹도 70세 고령에 세상을 떠났으며 심지어 燕夢卿의 아들 耿順까지도 은둔의 생활을 하다가 99세에 생을 마친 것으로 나중에 이 작품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남김없이 하나하나 죽음으로 전부 퇴장하여 경가(耿家) 가문이 희곡 속의 이야기로만 남은 것으로 보아 느닷없이 흘러가는 짧은 인생에 대한 한탄으로 삶에 있어서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으로 '인생여기'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191]

아울러 『林蘭香』에서는 燕夢卿의 비극적 운명을 통하여 봉건적 유교 이념이 여성에게 가져다준 막대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지만 그것보다 작품에서는 그녀의 후신이자 환생으로 田春畹이란 인물을 통하여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입신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죽음에 관련된 서사를 계속하여 떠올리며 나중에는 모든 생명의 죽음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인생여기(人生如寄)의 주제로 결국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생사의 이념을 체현하고 있다.

---

190) 양명귀(楊明貴)의 연구에 따르면 <林蘭香>에는 '성묘'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전반 서사적 골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면서 작중 '묘소'는 전형적인 죽음의 이미지로 소설의 주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었다.
"在<林蘭香>的文本敘事中，'上墳'這一儀式性的場景敘述在作品中反覆出現，它幾乎撐起了整部作品的敘述框架。'墳場'作為最經典的死亡意象直接成為小說題旨的隱喻。"
楊明貴,「中國近世敘事文學死亡敘事研究」, 陝西理工學院 碩士學位論文, 2010, p.81.

191) 장용(張勇)의 연구에서는 <林蘭香>의 주제를 생명의 의미에 대한 추궁으로 보고 있는데 연구자는 작품에서 모든 인물들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작품은 모두의 죽음으로 마무리함으로서 삶의 비극적 주제를 체현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書中所有人物最終難逃死亡的命運，小說以全體死亡作為結局， 展示了個體走向生命的必然消逝，構建了人類生命無情流逝的悲劇。
張勇, 앞의 글, p.27-28 참조.

Ⅳ.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실제

본 장절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진행했던 예비조사, 실험 수업을 거쳐 얻은 학습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교육현장에 나타나는 학습자 반응 양상들을 분석 정리한 후, 이러한 결과물들을 시사점으로 삼아 교육 방안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목표

본 연구는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고전 작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습자의 고전 읽기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한국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고전문학 교육에서 흔히 작품의 일부 인용문과 요약된 줄거리를 제공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TOPIK 5, 6급 고급 단계의 대학교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수·학습 방안은 기존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씨남정기』의 전문(全文)을 정독(精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통 중국인 한국어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중국에서 대학교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로 이미 중국의 어문(語文) 교과목을 통해 문학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온 경험이 있기에 문학 텍스트의 구조적 형식을 분석하거나 작품에 표현된 정서를 감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문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고 일정한 문학적 감상 능력과 문학적 사고력을 구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비록 교육되는 작품에 간혹 외국 작품이 수록되어 있더라도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문학 작품에 비해 미미하고 중국

작품 위주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중국인 한국어 고급 단계 학습자의 문학 능력은 중국문학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교육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중국문학에 대한 이해 능력을 목표어 문학 즉 한국문학을 감상하는 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192]

아울러 중국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사씨남정기』교육에 있어서 비교 연구의 이론을 도입하여『林蘭香』이란 작품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문학교육에서 지향하는 바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학의 정체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반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비판적 안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사씨남정기』와『林蘭香』의 비교 교육은 단순히 텍스트에 대한 비교·분석 작업으로만 완성될 수 없다.

리쾨르(Ricoeur)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과 같은 이해(understanding)의 차원과 자기 자신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전유(appropriation)를 포함하는 이해(comprehension)의 차원"[193]을 해석과 이해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았다.

때문에『사씨남정기』와『林蘭香』의 비교 교육은 1차적인 텍스트의 비교·분석적 이해로 인지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韓·中 작품의 비교 학습을 통하여 세계문학의 일원인 한국문학을 가일층 이해함으로써 시야를 넓혀가고 나아가 삶의 지평을 확장하며 이러한 문학교육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문학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텍스트

---

192) 송휘재는 일반 텍스트의 정보가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것과 달리 문학 텍스트에 담긴 정보는 감성적, 다의적, 상상적이며 또한 비논리적인 특성을 구명하면서 문학 텍스트의 다양한 형식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첫째, 각 장르의 특징과 같은 문학 형식을 인식하는 능력, 둘째, 인물의 성격, 줄거리, 구조, 배경, 주제 등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구조 형식을 분석하는 능력, 셋째, 은유, 비유 등과 같은 문학어의 사용과 문학적 기술, 반어, 풍자 등과 같은 표현된 정서 그리고 서술 시점 등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송휘재,「외국어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읽기 교수법 전략」,『외국어로서의 독일어』제11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2, p.248 참조.

193) P.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김윤성·조현범 옮김,『해석이론』, 서광사, 1998 참조.

에 대한 분석적 읽기가 전제되어야 하며, 분석적 읽기가 뒷받침될 때에야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공감적이고 내면화된 작품의 비평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타자로서 텍스트를 객관적 실상으로 바라보며 이해하는 비교·분석의 작업과 고전소설이란 제재를 수용함에 있어서 같은 장르의 韓·中 작품 비교를 통하여 현재적 의미를 지향하는 비평적 이해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교육을 위한 세부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학습을 통하여 『사씨남정기』의 핵심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학습을 통하여 『사씨남정기』의 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학습을 통하여 『사씨남정기』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林蘭香』과의 비교·학습을 통한 『사씨남정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공감적·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작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2. 실험 수업 및 학습자 반응 양상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예비 조사와 실험 수업을 걸쳐 시행하였다. 실험은 중국 L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Ⅱ) 5, 6급을 통과한 고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는 학습자들의 한국 고전 텍스트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고 고전문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고,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작품 정독(精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과 같은 장르의 중국 작품 『林蘭香』과의 비교 읽기를 통해 『사씨남정기』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교육을 위해 진행된 실험 수업의 간단한 개요와 실험 수업을 거쳐 수집된 자료의 제시와 함께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에 대해 살피고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최종 교수·학습 방안에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1 실험 수업

2.1.1 예비 조사[194)]

예비 조사는 본 실험 수업 전에 진행되는 사전 조사[195)]로, 활동지와 간단한 면담으로 이루어졌는데 학습자들의 韓·中 고전소설에 대한 관심도를 체크하고, 한국 고전 텍스트에 대한 독해 능력을 파악하며 실험 수업의 시행 방향에 대한 조사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결과를 한마디로 종합해 보았을 때, 대다수 학습자들은 고전문학이 한국어교육에서 가지는 의의를 긍정하고 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많이 읽어보지 못했다고 한다.[196)]

---

194) 예비 조사는 중국인 고급 단계 학습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습자 이름은 정보 보호를 위해 (a), (b), (c)…로 표기하였다. 자료 전사(轉寫)에 있어서 한국어 문법적 규칙에 맞게 오류만 수정했고 전사의 기호는 【실험 명칭-선택 작품-학습자】로 표기하였다.

195) 구체적 조사는 활동지와 면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활동지는 현대어로 옮긴 『사씨남정기』의 삽화 텍스트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독해 능력을 파악하였고 면담은 韓·中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도를 체크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제시한다면 ①교육받았거나 읽었거나 혹은 제목이라도 알고 있는 한국 고전소설 나열, ②한국 고전소설을 읽고 싶은지의 여부, ③한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고전소설(문학) 교육이 필요한지(이유, 교육 가치), ④어떤 중국 고전소설을 읽었는지(읽은 작품 나열, 읽었던 연령 때 제시), ⑤중국 고전 작품을 읽기 좋아하는지(읽고 싶은지),⑥나라와 장르의 제한이 없이 최근에 읽어본 소설 작품이 있는지(있으면 제목 제시), ⑦제시된 문장(『사씨남정기』 현대어)에서 모르는 부분(단어나 어휘 등)을 표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96) 하지만 학습자들이 영상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전 원작을 찾아 읽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면담을 통하여 근래 학습자들이 즐겨 읽는 소설에 대한 대답으로, 요즘 중국에서 궁궐이나 대가족의 여러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 집단들이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남성 (보통은 황제나 왕 혹은 대가족의 가부장)을 둘러싸고

또한 학습자들의 고전 텍스트의 독해 능력을 대략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어로 옮긴 『사씨남정기』의 삽화(유연수와 사정옥의 혼담 과정)가 실린 활동지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표시하게 한 다음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의 활동지를 통해 한국 고전소설에서 사용되는 고유어 어휘에 대해 일정한 생소함을 느끼고 한자어 어휘에 대한 장악도 빈약한 수준임을 알아 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삽화에서 사용한 어휘와 문장의 성격에 대해 추측해보고 삽화에서 어떠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지를 요약해보라고 한 결과 학습자들은 텍스트 맥락의 대략적인 파악에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밑줄 그은 어휘의 뜻을 잘 모르겠고 제시된 문장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 문장이 무슨 장면을 알려주고 있는지는 몇 번 읽어보면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다. 청혼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소설 장면이다.

【예비 조사(면담)-『사씨남정기』-실험대상 (n)】

이것은 우리가 배운 한국어와 같지 않다. 모르는 단어가 많고 이해도 잘 안 된다. 결혼이랑 관계있는 장면이다. 먼저 거절하고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알려주는 문장인 것 같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다.

【예비 조사(면담)-『사씨남정기』-실험대상 (s)】

이 문장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지금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아닌 것 같다. 제가 보았던 한국 역사극과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중국의 사대명저(四大名著)처럼 예전 시대의 소설인 것 같다. 여기에서 남자가 청혼을 하는데 처음에 여자가 거절하고 노력 끝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썼다.

【예비 조사(면담)-『사씨남정기』-실험대상 (t)】

치열하게 다투며 갈등하는 소설들이 대세를 이루며 이러한 장르의 소설과 이에 근거하여 개작한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모으면서 학습자들이 원작을 찾아보고 읽어보기도 한다는 회답을 얻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가르칠 작품이 가정소설 장르로 다소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결혼 장면을 그리는 소설의 한 단락 같고 모르는 단어가 좀 있지만 추측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말들과 좀 다르고 글자는 다 읽어내지만 뜻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다. 그런데 문장의 기본 뜻은 알 것 같다. 결혼하려는 남녀들의 집 사이에 오고 가는 과정을 그리는 장면이다.

【예비 조사(면담)-『사씨남정기』-실험대상(x)】

예비 조사에서 보아 낼 수 있다시피 학습자들의 고전 텍스트 독해 능력은 기대했던 것보다 저하하고 텍스트의 기본 의미를 상하 문맥과 알아볼 만한 관건적인 어휘에 근거하여 추론해 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씨남정기』 정독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과 『사씨남정기』를 같은 장르의 중국 작품 『林蘭香』과의 비교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2.1.2 실험 수업

『사씨남정기』 정독 수업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과제의 형식으로 『사씨남정기』 원문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표기하여 오도록 하였고 작품 전문을 크게 남녀 주인공의 소개 및 혼인 과정, 교씨를 첩으로 들이고 사씨가 축출 당함, 사씨가 남행을 떠남, 유연수가 유배당함, 유연수 부부의 상봉 및 결말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교사와 함께 일주일에 한 부분을 정독하였다.

고전 텍스트에 대한 생소함을 좁히기 위해 현대어로 옮긴 『사씨남정기』 텍스트를 선정하였고 거기에는 관건적인 한자 어휘를 한문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작품 이해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매번 수업이 끝나고 학습자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그룹 토론의 형식으로 서로 교류하였으며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습자들의 작품 이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 줄거리 작성 활동을 수행하였다.

본격적인 실험 수업에서는 우선 작품의 구조, 갈등, 인물, 주제등과 같

은 구성요소에 대한 문학지식의 도입으로 학습자들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배우고 쌓아온 문학지식을 활성화 시켰다.

다음 작품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예를 들면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중 주요인물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작품의 핵심 갈등, 중심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사상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을 대조하면서 읽은 후 두 작품의 비교를 바탕으로 『사씨남정기』에 대한 이해를 적어오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어서 수행한 과제를 먼저 그룹 내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피드백의 형식으로 학습자들과 함께 두 작품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귀납하면서 『사씨남정기』에 대한 학습자들의 전반적 이해를 도왔다.

그 다음으로, 교사가 제시한 토론 문제를 둘러싸고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학습자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작품 비교 학습에 대한 검증과 평가로 전반 학습이 끝난 후 1대1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작품 수용 상황을 파악하였다.

2.2 학습자 반응 양상

본 절에서는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교육을 위해 진행한 실험 수업에서 수집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비교 학습의 과정에 드러난 학습자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7]

197) 실험 수업은 중국 L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Ⅱ) 5, 6급을 통과한 고급 단계 학습자를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습자 이름은 정보 보호를 위해 (ㄱ), (ㄴ), (ㄷ)…로 표기하였다. 자료 전사(轉寫)에 있어서 중국어로 진행한 일부 면담(한국어로 표현이 잘 안 될 경우, 중국어로 표현)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본문에 인용했고 각주에 학습자가 발표한 내용을 중국어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어로 반영된 자료의 전사에 있어서는 한국어 문법적 규칙에 맞게 오류만 수정했다. 전사의 기호

2.2.1. 작품 비교 학습의 효과

작품 비교 학습 과정에서 수집된 실험 수업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교육현장에서 힌트로 노출된 문학지식의 계시를 받아 자신이 그동안 중국 문학교실에서 배우고 축적한 문학 능력을 토대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작품을 비교할 수 있고 비교를 위한 기본 분석 틀과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항에서는 비교 학습을 통하여 소설 이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토대로 되는 부분 작품의 갈등, 인물,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제시하도록 한다.

(1) 인물 관계 비교를 통한 갈등 이해[198)]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학습에서 작품의 갈등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보다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언급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물 사이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이해했다.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놓인 적대적 인물 사이의 처첩 갈등을 밝히었다.

※완전히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교를 통해 『사씨남정기』의 처첩 갈등을 선인과 악인의 대립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첩의 소행 때문에 주인공이 고생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작품의 갈등을 선악 갈등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두 작품의 이야기 내용이 비슷하다. 모두 가정문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한 남편

는【실험 명칭-선택 작품-학습자】로 표기하여 제시했다.

198) 중국의 문학교육에서는 모순을 갈등(葛藤)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으로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상 갈등을 모순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갈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을 둘러싼 여성들의 싸움을 그린 작품이다. 두 작품에서 출현한 인물과 인물 간의 모순도 비슷하다. 특히 『林蘭香』보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선량하고 착한 처 사정옥과 나쁜 첩 교채란 사이의 모순을 뚜렷하게 그리었다.

【실험 수업(과제)-『사씨남정기』VS『林蘭香』-학습자(ㄱ)】

위에서 제시된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자(ㄱ)는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을 비교하여 읽으면서 중심인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작품의 갈등을 여성 주요인물 사이의 대립 관계로 이해한 것을 보아낼 수 있다. 또한 『사씨남정기』의 "착한 처"와 "나쁜 첩"이라는 반응에서 작품의 처첩 갈등을 선인과 악인의 대립으로 인식하면서 처첩 갈등을 비롯한 선악의 대립으로 갈등을 이해하는 양상을 보아 낼 수 있다.

주요 모순은 거의 여자 주인공을 투기하는 첩에서 기인된다. … 두 작품에서 첩은 똑같게 여자 주인공을 투기하고 싫어하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실험 수업(과제)-『사씨남정기』VS『林蘭香』-학습자(ㄷ)】

학습자(ㄷ)는 역시 인물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갈등을 이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여자 주인공을 투기하는 첩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두 작품의 처첩 갈등을 똑같은 쟁총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을 보아 낼 수 있으며 또한 첩의 존재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고 언급하면서 부부 갈등의 원인을 첩의 이간질로 귀책하며 작품의 갈등을 파악했다.

처음 『사씨남정기』만 읽었을 때에는 사정옥을 유교적 예교에 순종하는 여인으로 읽었고 그와 대립적 존재로 교채란을 욕망의 인물로 이해했는데 『林蘭香』과 비교하여 읽은 후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와 교씨는 모두 욕망의 인간인 것 같아요. 다만 욕망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중략)

또한 교채란의 파멸은 인간의 정직한 도리에 어긋나는 부정당한 욕망의 추구 때문이에요. 교채란과 비교할 때 任香兒는 다른 것보다 燕夢卿과 남편의 총애를 다투는 질투심을 가진 인물일 뿐 욕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199]

【실험 수업(면담)-『사씨남정기』VS『林蘭香』-학습자(ㅈ)】

학습자(ㅈ)는 사씨남정기의 인물에 대한 이해를 서술하면서 간접적으로 작품의 갈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즉 작품을 비교하여 읽기 전에는『사씨남정기』의 갈등을 이념에 순종하는 사정옥과 욕망의 인물인 교채란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아 낼 수 있고『林蘭香』과의 비교를 통하여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서 갈등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물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따라 인물 사이의 갈등 관계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을 합리한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채란의 파멸을 그녀의 악행에 주목하여 상리에 벗어난 정당하지 못한 욕망 때문이라고 밝히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을 통하여 작품 교육에 있어서 비교 읽기가 학습자의 작품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적극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2) 중심인물에 대한 비교와 공감적 이해

『사씨남정기』와『林蘭香』의 비교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작품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에 대한 비교와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작중 인물에 대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반응 양상은 아래와 같다.

두 작품의 여주인공은 모두 몰락한 사족 출신이고 지금에 와서 보아도 재능이

199) 而且喬氏走向滅亡也是因為她的不正當欲望超出了常理，相較於喬氏，任香兒只能算是和燕夢卿爭奪丈夫寵愛而引發的嫉妒心，而算不上真正意義上的欲望。

많은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둘은 모두 봉건적 예교를 엄격히 준수하고 자기의 개성보다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 여성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두 여주인공은 성격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둘은 모두 여성의 지위가 낮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서 태어났고 살았지만 燕夢卿은 너무 내성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 작품을 읽으면서 좀 답답하게 느꼈을 때도 있었어요.

반대로 사정옥은 燕夢卿보다 기백(氣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씨남정기』는 사정옥의 성공기인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생존하는 환경에 적극 적응하고 야망이 있는 여성인 것 같아요. 봉건적 가정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고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실현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사정옥의 행위는 燕夢卿보다 더욱 현대인에 가깝고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힘없는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수호한 데에서 긍정적이고 생각되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실험 수업(토론 발표)-『사씨남정기』VS『林蘭香』-학습자(ㅁ)】

실험 수업 때, 학습자들에게 현대적인 시각으로 두 작품을 비교해보고 평가해보라고 하였는데 학습자들은 거의 모두 두 작품의 여자 주인공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중 위에서 제시한 학습자(ㅁ)가 가장 대표적이다. 학습자는 사족 출신인 여성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燕夢卿과 비해 사정옥이 제한된 조건에서 일정한 능동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고 이러한 현실 대응방식은 지금에 와서도 현대인이 따라 배워야 하고 교육받을 만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해를 펼쳤다. 이는 현대적인 시각으로 고전작품을 수용하였고 고전문학의 현대적 의의를 발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은 모두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목을 통하여 보아 낼 수 있어요.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여성 인물에 주목하게 되면서 작품을 읽게 되었

어요.

두 작품에 대한 비교 학습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 인물들의 혼인 부분이었어요. 일단 두 작품에서 혼인의 주도권은 남성이 아닌 여성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들의 혼인에 대한 태도도 당시 시대를 앞섰다고 보아요.

『林蘭香』에서 자신의 행복보다 부친에 대한 효행이 먼저기에 燕夢卿이 스스로 혼인을 미룬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지만 굳이 남자 주인공의 첩으로 시집간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일부종사의 관념이라는 것에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첩이지만 任香兒은 다른 것보다 남편 耿朗을 사모하는 감정이 앞섰기에 첩으로 되었고 燕夢卿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출발점은 달라요.[200]

하지만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이 상대방 가정의 현명함을 의심하여 혼인을 거절한 것과 교채란의 '선비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이름난 재상가의 첩이 되리라'란 말에서는 현대 여성처럼 혼인에 대한 자신의 원칙과 요구등과 같은 독립적인 사고 의식이 보였는데 이를 『林蘭香』의 인물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진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험 수업(면담)-『사씨남정기』VS『林蘭香』-학습자(ㅅ)】

다음으로는 여성의 혼인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인물들의 행동과 표현에 대해 평가한 학습자(ㅅ)의 반응 자료인데, 구체적으로 우선 학습자는 燕夢卿과 任香兒가 남편 耿朗과의 혼인을 비교함으로써 任香兒의 선택이 사랑에 기반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燕夢卿가 스스로 첩으로 자청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닌 유교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사씨남정기』와 비교해봄으로써 사정옥과 교채란이 혼인을 이루는 과정에 독립적인 선택과 사고를 거쳤다는 행위를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200) 燕夢卿為救父舍棄自己的幸福和婚姻讓人著實感動，給我留下了深刻的印象。但是, 她選擇成為耿朗側室的原因僅僅是因為他們曾經有過壹紙婚約，秉承壹女不侍二夫的觀念，而不是出於愛情，這點讓人遺憾。反而, 任香兒是因為愛慕耿朗而成為他的妾，他們的出發點是不同的。

『사씨남정기』의 사정옥과 대응되는 『林蘭香』의 인물 燕夢卿 둘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燕夢卿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명분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녀의 고통의 근원은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 있지만 사정옥은 종래로 남편의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정실부인의 지위만 견고하면 모두가 괜찮아 보였어요.[201]

【실험 수업(면담)-『사씨남정기』VS『林蘭香』-학습자(ㅈ)】

학습자(ㅈ)는 욕망의 차원에서 사정옥과 燕夢卿을 비교하였는데 사정옥과 비교할 때 燕夢卿이 남편과의 불화로 고통을 받고 좌절하는 모습과 사정옥이 남편과 갈등할 때의 표현을 비교함으로써 두 주인공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해한 셈이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인물에 대해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또한 고전소설이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 때문에 학습자들도 자연스럽게 인물에 집중하여 인물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작품 비교를 통한 주제의 재발견

작품은 모두 처첩 간의 모순을 위주로 이야기를 펼쳤고 착한 여자 주인공이 악한 첩 때문에 고생하며 특히 『사씨남정기』에서는 심지어 남자 주인공 유연수까지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집에 여자를 잘 못 들인 후과를 제시하면서 첩을 취하는 행위를 허락하는 제도의 단점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실험 수업(과제)-『사씨남정기』VS『林蘭香』-학습자(ㅂ)】

학습자(ㅂ)는 작품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으로 두 작품이 모두 처첩 갈

---

201) <謝氏南征記>的謝氏和<林蘭香>的燕夢卿兩者既有相同部分又有不同的地方。燕夢卿自始至終沒有表現出對名分的在意和執著，令她痛苦的根源是和丈夫的不睦，而在『謝氏南征記』裏，謝氏從來沒有因為得不到丈夫的愛而感到悲傷，只要她的正室地位穩固壹切就沒有問題。

등을 그리고 있음을 밝히었고 특히 『사씨남정기』에서 첩의 악행 때문에 남편 유연수까지 유배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첩을 잘 못 들인 데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하면서 작품이 첩을 들이는 행위를 허락하는 축첩제도의 단점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갈등과 주제를 연계시켜 작품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은 비슷한 이야기 구조와 인물 구성을 갖고 있지만 다루는 주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중략)

처음 『사씨남정기』만 읽었을 때에는 사정옥을 유교적 예교에 순종하는 여인으로 읽었고 그와 대립적 존재로 교채란을 욕망의 인물로 이해했는데 『林蘭香』과 비교하여 읽은 후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와 교씨는 모두 욕망의 인간인 것 같아요. 다만 욕망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중략)

때문에 『사씨남정기』의 주제는 부부 사랑의 유지보다는 봉건적 질서 내에 욕망의 실현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욕망을 중심 주제로 하였고 『林蘭香』은 봉건적 예교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부부 관계에 반영하여 표출한 것으로 "정(情)"을 주제로 하였다고 생각해요. 단지 욕망을 주제로 다루는 것으로만 보았을 때, 『사씨남정기』는 『林蘭香』보다 현대인의 삶과 더 가까이 하고 현대성을 지니고 있어요.[202]

【실험 수업(면담)-『사씨남정기』VS『林蘭香』-학습자(ㅈ)】

학습자 (ㅈ)는 작중 인물이 지니고 있는 욕망의 측면에서 인물의 행동과 반응에 주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사씨남정기』는 욕망을 주제로 하고 『林蘭香』은 정(情)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사씨남정기』를 단독으로 읽을 때와 『林蘭香』과 비교하여 읽을 때 가져온 자신의 작품 이해의 변화를 면담을 통해 말하였는데 이는

202) 所以，我认为<谢氏南征记>讲述的不是封建家庭内部的夫妻感情的维系，而是在探究封建秩序之下个人欲望的追求与实现，　而<林兰香>就不同，它讲述的是封建礼教和现实生活之间的矛盾，作者把这种矛盾反映在夫妻关系的维系上，所以该作品是以"情"为主题的。所以至少在探讨人性的欲望这个层面上，<谢氏南征记>的主题更贴近现代人的生活更具有现代性。

단순한 작품 읽기보다 같은 장르의 작품을 비교하여 읽고 교육하는 효과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실험 수업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비교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고, 비교를 위한 기본 분석 틀과 전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작품의 비교 학습을 통해 『사씨남정기』에 대해 공감적 이해와 감상을 할 수 나아가 자신만의 작품 해석과 평가를 내릴 수 있음이 확인된다.

2.2.2. 작품 비교 학습에서 나타난 문제점

앞장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을 비교 학습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으로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은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학습을 통하여 작품의 갈등, 인물, 주제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를 했고 특히 두 작품 중심인물의 운명과 삶의 선택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공감하고 재해석했으며 내면화하는 단계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아래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공통으로 보인 한계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학습자들은 작품에 대한 비교를 통한 『사씨남정기』의 깊이 있는 이해를 이루지 못했다. 소설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작중 인물에 집중하여 이해 대한 비교와 분석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어 인물 이해에서 효과적이었지만 작품의 갈등과 주제에 대한 파악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작품의 갈등에 대한 학습자들의 비교 학습의 반응은 거의 이야기 내에서 갈등관계를 맺는 주인공 사이의 대립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 사이의 갈등 관계가 맺어지는 근원에 대해 분석하지 않는다. 갈등의 주체는 사람이다. 소설에서 인물이 핵심인 것만큼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인물의 사이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작품의 핵심 갈등을 끌어내어 파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학습자들이 작품의 인물, 주제 등을 심도 있게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둘째, 주제의 파악에서 학습자들은 도식적으로 두 작품의 공통적인 부분 즉 봉건적 가부장제, 혼인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반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칠 뿐이다. 사실 이러한 주제는 거의 모든 고전 작품이 공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큰 주제로서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작품에 파고들어 작품의 갈등 양상, 인물의 언행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비교와 검토를 통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들은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통합하여 대조·비교하면서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즉 작품의 각 구성 요소들을 분리된 상태로 단독으로 꺼내어 비교 분석하면서 작품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습자들이 작품의 구성 요소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비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을 대조·비교하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상호텍스트의 유의미한 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힘들다. 즉 앞장 학습자 자료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두 작품을 비교 학습하는 과정에 학습자들은 단순히 작품 내용상의 공통점을 위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문학 작품에 대한 경험을 활성화시켜 유용하게 한국 문학의 이해에 작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즉 이러한 비교 학습의 과정에 단순하게 학습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문학능력, 배경지식 혹은 경험지식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교사의 적절한 제시와 지식전달이 필요하다.

3.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방법

본 장절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수업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난 학습자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3.1.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읽기 자료 선정

한국고전소설을 교육할 때 가장 토대로 되는 부분이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교수·학습에서 활용하는 읽기 텍스트 자료의 선정 즉 교육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실제 교육현장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문학을 학습하는데 배분된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작품의 예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작품성과 계속하여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겸비한 한국문학사적 위상과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도 학습자 수준에 적절치 않으면 작품 읽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활용에 있어서 좋은 교수·학습 제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읽기 텍스트를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으로 교사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학습자의 실제 한국어능력 수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적합한 읽기 텍스트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Ⅱ) 5, 6급을 통과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또한 실제 실험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에 근거하여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고급을 통과한 학습자일지라도 현대어로 옮긴 고전 작품을 읽는 데 역시 일정한 곤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에게 읽기 텍스트 자료 제공에 대한 수정 보완 방안으로 현대어 텍

스트와 함께 한문으로 옮긴 『사씨남정기』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학습할 한국작품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어로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거리감과 난해감(難解感), 부담감을 줄이도록 한다. 이러한 韓·中 텍스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생소하거나 모르는 어휘, 관용 표현, 문화 요소를 접할 경우 한국어와 한문을 대조하며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텍스트 이해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3]

또한 비교 교육하는 대상 『林蘭香』을 학습자에게 읽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韓·中 양국은 역사적으로 공동문화권을 향유해왔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문화교류를 진행해왔던 나라로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상 등 측면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중 특히 역사-사회적 현상[204]의 반영으로 문학의 장르, 표현, 모티프, 인물 유형, 주제, 사상 등 표현의 유사성이 그렇다.

비록 韓·中 두 나라의 문학 장르는 세부적인 차이가 종종 존재하지만 일단 『사씨남정기』는 가정소설로, 『林蘭香』은 세정소설로서 두 작품은 같은 통속인정소설 계열에 속하는 유사한 장르로서의 일반적 특성을 지닌다.[205] 여기에서 『林蘭香』이란 작품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기왕 중국의 문학교육에서 세정소설 계열의 작품을 계속 취급해왔고 또한 작품의 편폭이 적당하여 한국 작품 『사씨남정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을 전제로 교사의 제시 하에 학습자들에게 작품의 핵심 갈등, 중심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

---

203) 외국 문학 교육을 위한 대비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모어로 번역이 된 외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번역된 문학 작품의 읽기를 통해서 문학의 내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외국 문학 작품의 언어적 표현이나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지혜·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제131집,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10, p.556.

204) 우한용, 「문학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서 문학능력의 개념, 교육 방향」,『문학교육학』 제28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p.15.

205) 비교할 대상 작품을 선정할 때 문학적 주제(추상적 이념이나 인물), 문학 장르(문학양식), 문학 운동(시대나 문예사조), 문학 관계(문학 이외의 지적 활동), 문학적 수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김학동, 앞의 책, 1984, pp.55-56.

는 주제 사상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고하면서 편중성 있게 읽히는 것은 가능함을 실험 수업을 통해 인증되었다.

3.2. 교수·학습 과정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

실제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은 대부분 중국의 어문(語文) 교육을 통하여 문학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상당한 지적 능력과 감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왕 중·고등학교에서 받은 문학교육 과정을 살필 때, 한국문학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기에 이 학습자들은 자국어 문학교육을 통해 이미 상당한 문학 비평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결핍하여 실제 수업에서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06)]

하지만 중국인 성인 학습자들은 중국어 문학 교육을 통하여 문학 일반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기에 문학 상식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은 보통 어린 학습자들보다 상당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미 구성에 관한 경험이 많고 의미 구성 능력 또한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에 의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제시한 후 학습자들이 읽기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게 하는 문학교육의 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은 문학교육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피하기 위해서 이상구는 문학교실에서 교사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자라는 역할을 탈피하여 인지적 모델 구축의 안내자, 토의 학습의 촉진자, 개별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 상

206) 중국 중·고등 필수 교과목의 교재인 [어문(語文)]에는 총 9개 나라의 47편 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한국 작품이 단 한 편도 없다. 남연,「한중 현·당대 문학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97-202 참조.

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담자, 정보 조력자, 수업의 기획·조정자 등 다섯 가지 측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었다.[207]

외국어 학습자들은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수용할 때, 무엇보다도 특별한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 바로 자국어 독자와 같지 않은 사회·문화적 또는 심리적으로 특수한 것일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문학교육 수법을 위한 많은 연구자들이 보여주듯이 장르적 지식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지식들이 보편성을 지니는 동시에 특수성도 갖추고 있다.[208]

만약 작가와 독자가 서로 다른 스키마를 소유하고 있다면, 작가가 의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독자에게 왜곡되어 수용되거나 수용이 불가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학 텍스트의 읽기 과정에는 필요한 배경 지식이 반드시 작동시켜야만 한다는 전제하에 문학 텍스트를 외국어로 읽는 독자에게는 외국 문화와 문학의 장르에 관한 배경지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만 외국 문학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문학 교육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문학 텍스트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함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보통 배경지식을 가리킨다. 교사는 읽기 전 도입 단계나 읽기 과정에 학습자들에게 작품 이해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설명해 주거나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보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지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① 작품 창작 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
② 작가에 대한 기본 소개
③ 작품의 일반적 장르상의 특징
④ 작품 속에 나타나는 해당 민족이나 집단, 나라의 특수한 문화 개념

207)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p.180.
208) 송휘재, 앞의 글, pp.250-253 참조.

아울러 교수·학습 과정에는 학습자들의 읽기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면서 교육하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채워 주는 목적으로 적절한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작가소개 및 작품의 배경지식에 대한 도입 활동으로 『사씨남정기』과 비슷한 장면이 담긴 사극 드라마 〔장희빈〕(1995) 에피소드 25의 '장희빈이 임금의 탄금 요구를 거절하며 인현왕후를 참소하는 대목'과 '인현왕후가 후궁 장희빈을 말로 경계하는 대목'을 보여 주면서 학습자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영상매체를 빌어 고전문학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

〔활동 1〕『사씨남정기』 속에 역사 속 인물이 숨어 있다?

(1) 영상을 보고 『사씨남정기』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

(2) 사극 드라마 속 인물과 『사씨남정기』의 인물 설정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드라마 영상을 빌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역사 속 인물과 소설 속 인물을 연관 짓게 하고 작가 김만중이 바로 드라마 속 숙종시대의 인물임을 제시하면서 작가에 대한 소개와 배경지식의 도입을 완성한다. 이러한 과정에 학습자들에게 조선 숙종시대와 대응되는 당시 중국의 시대적 배경까지 언급하면서 학습자들은 관련된 중국의 사회 상황 및 지식까지 떠올리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배경지식의 활성화는 작품의 비교 학습과 이해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활동 설계

이 항은 학습자의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앞서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제안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들은 앞장과의 통일성 및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씨남정기』와 『林蘭香』 비교 교육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여성 주인공은 _____과 _____이라 부르고, 남성 주인공은 _____와 _____이라 하며 그들의 첩이자 여성 주인공을 시기하는 인물은 _____과 _____이다.

2. 두 작품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중심인물 중에서 나는 _____와 _____를 문제적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 『사씨남정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적 인물을 작중 기타 중심인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林蘭香』과 비교해 봅시다.

4.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 인물과 기타 중심인물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갈등 상황과 핵심 문제는 무엇인지를 비교해 봅시다.

	인물 관계	갈등 상황	핵심 문제
『사씨남정기』			
『林蘭香』			

희곡과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갈등이 플롯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

내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양상을 드러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물들 사이의 대립, 자아와 세계와의 상충, 인물 내부의 감정이나 가치관의 충돌을 통하여 플롯에서의 긴장감을 유발한다.[209)]

따라서『林蘭香』과의 비교를 통해『사씨남정기』교육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를 읽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중심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작품의 갈등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품의 갈등 관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갈등 상황의 설성과 해소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갈등 상황에 놓인 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학습 활동 1-4번에서는『사씨남정기』와『林蘭香』의 중심인물 관계를 비교·대조해봄으로써 인물들 사이의 갈등 관계에 대해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두 작품 인물 관계를 결정하거나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그 이면에 담긴 핵심 갈등을 끌어냄으로써『사씨남정기』의 핵심 갈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활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林蘭香』과의 비교를 통해『사씨남정기』의 핵심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사씨남정기』의 인물 관계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인물 관계를 추출하고 비교하도록 하여『사씨남정기』의 핵심갈등을 파악하기 위한예비 작업을 거치도록 한다. 이후 학습자가 분석한 인물 관계에 근거하여 이러한 인물 관계를 작품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빌어 부각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인물 관계를 결정 짓는 핵심 갈등이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도출한다.『林蘭香』과의 비교를 통해『사씨남정기』의 핵심갈등 도출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한 두 작품의 중심인물들의 인식과 대응 방식을 비교해봄으로써 인물들의 성격적 특징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작중 인물들의 구체적인 표현 즉 말과 행동을 비교해봄으로써 인물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다음 단계의 학습에 연결 고리를 마련한다.

---

209) 한용환, 앞의 책, p.22.

5.『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갈등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들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아래의 표를 채워보며 함께 생각해봅시다.

	『사씨남정기』	『林蘭香』
지문	"첩의 평소 행동이 무상無狀하여 상공께서 이처럼 의심하시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상공께 달려 있으니 뜻대로 처분하세요. 옛 시에 '현인군자賢人君子는 모함하는 말을 믿지 않고, 모함하는 자를 승냥이와 호랑이에게 던진다고'했습니다. 집안에 분명 교묘히 모함하는 사람이 있으니 상공께서는 살피십시오." (p56.)	동쪽 칸에 들어가 보니, 변색된 옷 한 장이 걸려 있는데, 추석날에 취중 남김이 분명하다. 이에 간언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 경랑은 안색이 급변하여, 한 잔의 차와 탕도 마시지 않고 바로 앙연히 방을 나간다. 몽경은 이 광경을 보고 어쩔 바를 몰랐는데, 그 옷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의 의심이 이 정도로 많다니!'라고 말하고는 시녀더러 그 옷을 치워라 하고 다시 꺼내어 입지 않았다.[210]
	사정옥	燕夢卿
성격		
*두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이 남편의 오해를 받는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그녀들의 성격적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가?		

	『사씨남정기』	『林蘭香』
지문	'부인이 평소에 투기하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어찌 이런 말을 했을까? 또 부인은 교씨를 예로 대하며 단점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 비록 하인들 사이의 일이라도 그 잘못을 드러나게	처음 경랑은 부친 대신 죄를 짊어지는 연몽경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존경하고 사모의 정이 생겼고, 다음에는 몽경이 측실로 자청하는 모습을 보며 은애하는 사랑이 생겼으며, 후

	지적하지는 않았으니 교씨가 부인에게 잘못을 저질러 그런 것이 아닌가?' 이유를 알 수 없어 얼마 동안 생각하다가 교씨를 불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부인이 권했기 때문이네. 일찍이 부인이 자네에 대해 나쁜 말 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반드시 비복들 사이에 참언이 있어서 한 순간 노기를 이기지 못한 것일 게야. 비록 그런 말이 있었더라도 본성이 온화하여 자네를 해하려는 마음은 결코 없을 테니 만에 하나라도 의심하지 말게. 설사 해하려 한다 해도 내가 있는데, 어찌하겠나?" (pp.40-41.)	에는 몽경의 학문과 풍아함에 가의可意의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향아의 말을 들어 보니 또한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자는 재주와 명성이 있는 것을 제일 꺼린다. 재주가 있으면 자만할 것이고 명성을 얻으면 남을 업신여기니, 이러다가 나중에 처첩들의 불화를 초래할 것이다."211)
	유연수	耿朗
성격		
*두 작품에서 비슷한 갈등 상황에 놓인 남자 주인공이 처첩 관계를 대처하는 차이점에서 어떠한 성격적 특징을 보아낼 수 있는가?		

	『사씨남정기』	『林蘭香』
지문	"내가 용모와 자태에서 사씨와 짝할 수 없고, 솜씨 또한 저에 미치지 못 하지. 게다가 처와 첩이란 차이마저 있어. 다만 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저는 아들이 없어서 내가 상공의 공경을 받았지. 허나 이제 저가 아들 인아를 낳았으니 장차 그 아	"나는 누구인가? 낭군의 곁에서 아들이나 딸 하나 낳고 천시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또한 낭군의 사랑을 오래오래 받아야만 조롱당하지 않을 것이오." 향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니 경랑은 "이런 말을 왜 이제 와서야 하는가? 혹 새로운 사람이

	이가 이 집주인이 될 것이야. 이제 내 아이는 어디에 쓰겠어? 사씨 또한 비록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풀지만 화원에서 꾸짖으며 한 말은 분명 시기였어. 한림에게 한 번 참소하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이 사씨에게 두텁게 치우쳤으니, 나의 앞길을 어찌 걱정하지 않겠어?" (pp.42-43.)	들어와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냐?"라고 물었다. 향아는 "두려워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란 겉만 보고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오, 게다가 나는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라, 혹 말 실수를 해서 미움을 사고 당신까지 나를 위해 변명하지 않으면 이 집에 내가 살아남을 자리가 더 이상 어디 있겠어요?"라고 하니 경랑이 말하였다. "너는 돈을 주어 사온 것도 아니고, 친정도 작은 집안이 아닌데 어찌 이런 대접을 받겠느냐?" 향아가 답하였다. "나는 팔려온 신세는 아니나, 필경 낭군이 직접 취해 들여온 것이 아니다 보니, 내 괴로움은 나만 알고 다른 이는 모를 터이다."212)
	교채란	任香兒
성격		
*두 작품에서 처첩 갈등에 대한 적대적 인물의 인식과 이를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점에서 그녀들의 어떠한 성격적 특징을 보아낼 수 있는가?		

6. 갈등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대응 태도와 방식을 비교하면서 인물의 성격이 구체화되는 표현(말과 행동)을 적어 봅시다.

210) "見東套間衣架上搭著一件染過衣服，便是中秋夜酒污的，只道夢卿有意又要藉此諫勸，幡然變色，茶不飲， 湯不用， 怏怏然走了出去。夢卿看見這光景，茫然不知所以。乃悟道："何人之多疑以至於如此！"因令侍女將衣收過，永不穿用。" (p.157.)

211) "耿朗初見夢卿求代父罪， 生了一番敬慕之心。次見夢卿甘為側室， 又生了一番恩愛之心。後見夢卿文學風雅， 復生了一番可意之心。及至聞香兒之言， 不免又生出一番不足之

	대응 태도 및 방식 비교	구체화 표현
사정옥 VS 燕夢卿		
유연수 VS 耿朗		
교채란 VS 任香兒		

7.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인물들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들의 성격적 특징을 유추해 봅시다.

8.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물들의 말과 행위를 중심으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등장하는 기타 부차적 인물들을 자유롭게 비교 분석해 봅시다.

9. 두 작품 속 같은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대처 방식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에 대해 비교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고, 만약 "내"가 이러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말해 봅시다.

心。因想道：婦人最忌有才有名。有才未免自是， 有名未免欺人。我若不裁抑二三， 恐將來與林、宣、任三人不能相下。”(p.73.)

212) 香兒道：“我是何人？ 在妳身邊能生一男半女，不落人眼下就是萬幸，還須要長得你的歡心，方不受人作弄。” 一邊說著，淚珠兒滾下枕來。耿朗道：“這些說話，如何今日方才提起？ 莫不是怕新來人欺侮？“ 香兒道：“怕亦無益。只是知面不知心，我的嘴又快， 一時間言差語錯， 犯著忌諱，你若再不替我分解， 教我如何存身？“ 耿朗道：“你又並非銀錢買來，娘家又非小戶，如何會有變更？香兒道：“我雖不是買來，究與娶的兩樣。自家苦

『林蘭香』과의 비교를 통해『사씨남정기』인물의 성격 및 특징을 유추하기 위한 활동은 5-9번인데,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의 행위 및 대응 방식 탐구, 인물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었다. 즉 인물이 어떠한 갈등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물들이 주어진 제약된 상황을 수용 혹은 극복해나가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총적으로는 갈등 상황에 처한 두 작품의 중심인물이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비교 탐구함으로써 인물의 기본적인 성격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앞의 내용을 종합하는 것으로, 갈등 상황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 및 태도가 궁극적으로 형성하는 인물상은 무엇인지를 비교 탐구하고, 학습자가『사씨남정기』의 인물상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씨남정기』의 인물의 성격 및 특징은 III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갈등 상황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과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함으로써 적극 대응해나가는가 혹은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갈등 상황에 대한 수용으로 순응해나가는가에 따라 인물이 형상화되고『사씨남정기』와『林蘭香』두 작품에 등장되는 주요인물 성격상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인물이 자신이 처해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의 구체적 표현으로 말과 행동의 비교를 통해『사씨남정기』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분석해 낼 수 있고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인물의 성격을 유추하기 위하여 5번 활동과 같이 갈등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대응 방식의 구체적 표현인 말과 행동에 대해 살핌으로써 이에 반영된 인물의 성격을 유추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물의 성격에 대해 분석을 하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형 인물들의 표현, 즉 말과 행동을 비교하여 그들이 어떠한 성격을 지닌 인물인가를 비교하면서 분석한다. 다음 5번 활동을 시범으로 학습자들이 6번 활동에서 자주적으로 작중 인물들이 지닌 성격적 특징의 구체화된 표현

処自家知曉。”(p.71.)

말과 행동을 찾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어서 이상의 활동에서 제시된 인물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두 작품의 중심인물 외에 기타 부차적 인물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이상의 활동을 거쳐 인물의 성격적 특징에 대한 비교와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들이 놓인 갈등 관계에 자아를 대입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인물을 평가하도록 한다.

10.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인물, 갈등의 전개 및 해소 방식, 작품의 결말 등을 비교하면서 두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11.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을 비교·학습하면서 작품에서 권장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오늘날에도 계속 계승할 수 있거나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계시에 대해 말해 봅시다. 12.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을 비교·학습을 통하여 두 작품의 긍정적인 면과 드러나는 한계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마지막 작품 비교를 통한 주제 파악 활동으로 앞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갈등과 인물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과 갈등 양상, 그리고 작품의 결말에 주목하여 작품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면서 두 작품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작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상의 이동(異同)을 구명함으로써 서포 김만중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씨남정기』의 주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습자가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 학습을 통한 작품의 공감적, 비판적 이해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작품의 사회적 배경과 현실을 고려하면서 현대적 안목을 가진 학습자가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작품 속 서사 세계에 대해동의하거나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동의하지 않거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구해봄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 『사씨남정기』를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비평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서 권장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오늘날에도 계속 계승할 수 있거나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계시에 대해 말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에 대한 비교·학습을 통하여 두 작품의 긍정적인 면과 드러나는 한계에 대해 평가하게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단계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한국 고전문학 교육으로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를 통한 교수·학습 내용 및 방안의 마련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교육에서 관건적 일환을 이루는 문학교육의 중요성이 이미 충분히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한국문학 교육현장을 볼 때 여전히 결여된 부분이 많다. 특히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문학 교육의 분야가 그렇다.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설치된 전공과목 및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어휘·문법 중심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이 영역별로 분리되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영역별 교육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주로 광고, 신문 기사 혹은 여러 기능적 응용 설명문이나 현대문학 작품의 발췌문이다. 간혹 한국문학을 다루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더라도 고전작품은 한정된 극소수 편목의 일부만 실려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수·학습 대상이 한국과 문화권을 공유해온 중국인 한국어 고급단계 학습자라는 것과 최근 20대 학습독자들이 문학 읽기에서 보이는 실제 취미를 고려하여 한국의 정전(Canon, 正典)이자 오랫동안 향유해 온 인기 작품 조선조 가정소설 서포 김만중(西浦 金萬重, 1637~1692))의 『사씨남정기』를 고전문학 교육의 적합한 교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작품에 대한 학습독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비교문학에서 유사성의 대비연구 방법을 차용하여 교수·학습 방안 설계를 목표로 하는 『사씨남정기』와 중국 명청(明清)시기 작품 『林蘭香』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비교문학(比較文學)에서도 비(非)영향연구의 관점에 근거하여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이 공시적으로 창작된 유사현상이 존재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한국의 가정소설과 중국의 세정소설(世情小說)의 개념

에 대한 비교와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서사 측면에서 가지는 공통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서 비교의 전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물, 갈등, 주제가 문학교육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들을 비교의 항목으로 선정하는 의미를 밝히었다.

다음, Ⅲ장에서는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갈등, 인물, 주제에 대해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갈등의 비교에서는 두 작품의 처첩 갈등과 부부 갈등에 대해 비교했는데, 『사씨남정기』에서는 후사(後嗣)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처첩 갈등을 다루었고 『林蘭香』에서는 쟁총(爭寵)의 처첩 갈등을 부각하였다. 부부 갈등의 경우, 『사씨남정기』에서는 가권(家權) 문제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면, 『林蘭香』에서는 남녀 주인공 사이의 이념과 성격문제가 핵심 요소로 된다. 갈등의 극복과 해결로 보았을 때, 두 작품은 모두 여성 주인공의 인고(忍苦)와 희생(犧牲)의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林蘭香』의 경우, 『사씨남정기』처럼 남자 주인공이 갈등의 궁극에까지 몰리지 않았기에, 전자는 갈등 극복에 실패하고 후자는 남자 주이공의 깨달음과 함께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는다. 둘째, 두 작품의 인물에 대한 비교·분석인데 여성 중심인물 사정옥과 燕夢卿은 모두 유교적 윤리규준과 가치관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성격적 특징으로 보았을 때, 사정옥은 의리있고 자존적이고, 燕夢卿은 외유내강(外柔內剛)하고 절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사씨남정기』에서 남자 주인공 유연수는 합격한 가장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준 가부장의 형상이고 『林蘭香』의 耿朗은 전형적인 세가(世家) 귀공자 형상이다. 여성 주인공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물 『사씨남정기』의 교채란은 욕망에 물젖은 형상으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파멸로 나아갔고 『林蘭香』의 任香兒는 시정(市井) 출신으로 남편의 총애를 다투는 질투심이 강한 여성이지만 자기감정에 충실한 진솔적인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조력 인물은 여성 주인공을 돕고 지지해주는 인물로 『사씨남정기』의 두부인과 『林蘭香』의 田春畹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였고 마지막 주제의 비교와 분석에서는 두

작품이 공통으로 개인과 가족, 국가의 상호관계 및 삶에 대한 신념과 이념을 다루었지만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데 보이는 차이점을 위주로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실험을 거쳐 얻은 학습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현장에 나타나는 양상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작품 비교를 통해 학습자들은 인물 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갈등을 이해하였고, 중심인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작품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졌으며, 비교 전후 작품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제를 재발견하였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물들을 시사점으로 삼아 韓·中 고전소설 『사씨남정기』와 『林蘭香』의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문학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 대상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서 비교문학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유사현상 대비의 방법을 적용하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소설 교육에서 새로운 시도로 작품의 유형을 풍부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1. 자료

김만중 지음, 류준경 옮김,『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隨緣下士(淸) 著, 鄭福田, 王槐茂 主編,『林蘭香』, 北京: 金城出版社, 2000.

2. 국내 단행본

구인환·구창환 공저,『문학개론』, 삼영사, 1981.

구인환 외,『문학교육론』, 三知院, 2008.

김귀석,『朝鮮時代 家庭小說論』, 국학자료원, 1997.

김동리,『소설작법』, 청운출판사, 1966.

김상욱,『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김상욱,「전형성의 이해와 소설교육」,『小說敎育倫』, 평민사, 1995.

김종철,「한국 고전문학의 이해」,『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1』,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국어교육연구소 · 언어교육원 공편, 아카넷, 2014.

김윤식·김현 공저,『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학동,『比較文學論』, 새문사, 1984.

송진영,『明淸世情小說硏究』, 한국학술정보, 2005.

우쾌제,『고전소설의 탐구』, 국학자료원, 2007.

윤여탁,『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윤여탁,『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3.

윤호병,『비교문학』, 민음사, 2005.

이봉채,『소설구조론』, 새문사, 1992.

이상구,『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이재선·신동욱 공저,『文學의 理論』, 學文社, 1990.
이혜순 편,『比較文學Ⅱ: 論文選』, 中央出版, 1981.
이혜순 외,『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태학사, 2002.
조남현,『소설원론』, 고려원, 1991.
최시한,『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최시한,『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 지성사, 2010.
한국고소설연구회,「構成論」,『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5.
한국역사연구회 편,『한국사 강의』, 한올아카데미, 1990.
한용환,『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01.
현길언,『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길사, 1994.

3. 국내 논문

고정희,「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한국한문학연구』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김경미,「<사씨남정기> 작중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김귀석,「<사씨남정기>의 정실, '사씨' 연구」,『인문과학연구』제18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김종철,「소설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소설교육 -<사씨남정기>의 경우」,『국어교육』제101집, 한국어교육학회, 2000.
_____,「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국어교육』제112집,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
김현양,「<사씨남정기>의 욕망의 문제」,『고전문학연구』제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김혜진,「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김흥규,「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국어국문학회 편,『대학의 국문학교육』, 지식산업사, 1993.

남 연,「한중 현·당대 문학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등 정,「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구운몽> 교육 연구 -중국 소설 <續黃粱>의 주제 비교를 중심으로」,『겨레어문학』제56집, 겨레어문학회, 2016.

박길희,「<사씨남정기> 여주인공 사씨의 성격 재고」,『남도문화연구』제20집, 순천대학교, 2011.

박상석,「고소설 선악이야기의 서사규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박일용,「<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고소설 연구』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사재동,「<사씨남정기>의 몇 가지 문제」,『고소설연구논총』, 다곡 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8.

송진영,「世情小說의 名稱에 관한 고찰」,『기전어문학』제17집,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5.

송하춘,「<사씨남정기> 재고」,『어문논집』제17집, 민족어문학회, 1976.

송휘재,「외국어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읽기 교수법 전략」,『외국어로서의 독일어』제11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2.

신재홍,「<사씨남정기>의 선악구도」,『한국문학연구』제2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신해진,「<사씨남정기> 교씨의 인물형상과 의미 -형상의 소종래를 중심으로」,『고전과 해석』제11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1.

양민정,「<춘향전>과 <쿤팬의 이야기>의 애정담 및 여성의식 비교 연구」,『외국문학연구』제6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

양승민,「<금병매>를 통해 본 <사씨남정기>」,『古小說 硏究』제13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오경숙,「<사씨남정기> 연구」,『어문연구』제21집, 어문연구학회, 1991.

오지혜·윤여탁,「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국어교육』제131집,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10.

우쾌제,「<사씨남정기> 연구」,『한남어문학』제1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72.

_____,「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열녀전>의 전래와 수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우한용,「문학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서 문학능력의 개념, 교육 방향」,『문학교육학』제28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_____,「소설 텍스트 중심으로 본 문학능력과 한국어교육」,『한국어와 문화』제7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0.

이금희,「<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서포의 여성관 -양면성을 중심으로」,『국어교육』제69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0.

이상구,「<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배달말』제27집, 배달말학회, 2000.

이상일,「<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선악 대립의 구조와 비평적 가치화 방법」,『국어교육연구』제42집, 국어교육학회, 2008.

_____,「고전소설의 인물 이해 교육 연구 -인물 정보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수민,「世情小說中의 夫君形象 小考 -否定的인 夫君形象을 중심으로」,『중국학연구』제26집, 중국학연구회, 2003.

이승복,「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사씨남정기>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문학치료연구』제1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이원수,「<사씨남정기>의 반성적 고찰」,『문학과 언어』제3집, 문학과 언어학회, 1982.

_____,「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_____,「남북한 <사씨남정기> 연구의 경과와 전망」,『한국문학논총』 제39집, 한국문학회, 2005.

이인화,「한국어교육 교재의 문학작품 수록 양상 분석」,『국어교육』 제166집, 한국어교육학회, 2019.

이재영,「조선조 고소설의 서사전략과 이데올로기 연구 -<사씨남정기>,<옹고집전>,<배비장전>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장경남,「壬·丙 兩亂과 17세기 小說史」,『우리문학연구』 제21집, 우리문학회, 2007.

장 미,「심층적 갈등 중심의 플롯 이해 교육 연구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병헌,「<사씨남정기>의 인물 형상과 지향」, 한국현대소설학화·한중인문학화·아주대인문과학연구소 공동기획 학술대회, 2009.

정병헌·박일용,「<사씨남정기>의 인물 형상과 지향」,『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09.

정보미,「플롯 중심의 고전소설 교육 연구 -17세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정출헌,「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배달말』 제27집, 배달말학회, 2000.

조병한,「홍루몽의 사회학적 분석」,『부산사학』 제11집, 부산사학회, 1986.

주운학,「혼사장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조선조 애정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증천부,「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심청전>을 대상으로」,『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7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4.

지연숙,「<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민족문학사연구』 제17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0.

최시한,「가정소설의 구조와 전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최기숙,「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축취영,「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연암소설과 <유림

외사>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_____,「중국대학 한국어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허생전> 교육 연구 - 허생과 <유림외사>의 왕면의 비교를 중심으로」,『고전문학과 교육』제2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11(a).
_____,「중국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양반전> 교육 내용 연구 -<범진 향시 급제(范進中擧)와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학』제8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1(b).
황병홍,「<남정기>의 구조와 의미 -유연수의 성격분석을 바탕으로」,『동아시아고대학』제30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황인교,「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이화어문논집』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2000.

4. 국외 단행본 및 논문

Canale, Michael & Swain, Merrill,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980.
Denis Jonnes, *The Matrix of Narrative-Family Systems and The Semiotics of Story*, Mouton de Gruyter, 1990.
Peter Barry, *Beginning theory: an introduction to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한만수[외] 옮김,『현대문학이론 입문』, 시유시, 2001.
P.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김윤성·조현범 옮김,『해석이론』, 서광사, 1998.
Shlomith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옮김,『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Robert Stanton, *An Introduction to Fic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Yves CHEVREL, *La Littérature comparée*, 박성창 옮김,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2002.

蔡美花, 「중국의 조선-한국학의 현황과 발전 과제, <東北亞文化共同體視域下的朝鮮-韓國文學研究)>, 『2017년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학술회의 논문집』,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2017.

蔡美雲, 「<林蘭香>與中國士人的"棄婦"情節」, 『明清小說研究』 第2期, 江蘇省社會科學院, 2005.

陳 洪, 「<林蘭香>創作年代小考」, 『明清小說研究』 第3期, 江蘇省社會科學院, 1988.

成海霞, 「明清長篇小說"家庭矛盾"之解析」, 大慶師範學院學報, 2009年 5月 第2期.

方漢文, 『比較文學基本原理』, 蘇州大學出版社, 2005.

韓 石, 「略論中國古代家庭小說類型的興起與演進」, 南京師大學報, 2010年 11月 第6期.

何新岭·蔡美雲, 「情與理的衝突與消解 -<林蘭香>對女性生存之道的思考」, 陝西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5年 5月 第2期.

李受珉[韓], 「封建"淑女"的理想化與世俗化 -以燕夢卿、林黛玉、薛寶釵的悲劇命運為中心」, 『紅樓夢學刊』 第3期, 中國藝術研究院, 2001.

劉春玲, 「<林蘭香>人物形象研究」, 濟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劉 銘, 「<林蘭香>的成書年代考論」, 阿壩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9年 第1期.

聶春豔, 「性別角色轉換與文本深層內涵 -解讀<林蘭香>」,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年 第5期.

_____, 「論清代前期白話小說現實功利性和道德化的創作傾向」, 湖北師範學院(哲學社會科學版), 2011年 第4期.

秦曉梅, 「清前中期世情小說中的公子形象」,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任正君·牛景麗, 「<林蘭香>中任香兒形象的文化解讀」, 『天中學刊』 第3期, 2013.

史 式 지음, 김영수 옮김, 『청렴과 탐욕의 중국사: 중국 관료 열전』, 돌베개, 2007.

王向遠,『比較文學學科新論』, 1962, 문대일 옮김,『비교문학의 열쇠』, 한국학술정보, 2011.

楊　淼,「清代長篇家庭小說妾婦形象研究」, 新疆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2010.

楊明貴,「中國近世敘事文學死亡敘事研究」, 陝西理工學院 碩士學位論文, 2010.

_____,「論<林蘭香>死亡敘事的悲劇意蘊」, 湖北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年 第4期.

楊玉英 ,「<林蘭香>悲劇精神的建構與解構」, 集寧師範學院學報, 2018年 第4期.

張顯清,『嚴嵩傳』, 中國科學院圖書館, 2014.

張　勇,「<林蘭香> -文人化的世情之作」,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朱莉華·唐愛明,「恪守禮教下的人生悲歌 -以<林蘭香>中的男性形象為例」, 綏化學院學報, 2017年 第5期.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Classical Novel "*Sassinamjeonggi (사씨남정기)*" aiming at Chinese Learner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Chinese Novel "*Lin Lan Xiang (林蘭香)*" -

YU ZHILI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aching program of "*Sassinamjeonggi(사씨남정기)*" for Chinese learners by comparing it with "*Lin Lan Xiang(林蘭香)*".

The long-stand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resulted in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literary works of the two countries. However, under the different social culture background, the two countries' narrative structure is also different. Therefore,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and study of works with similar themes in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students can find bot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literature and get to understand them, so a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Chinese literature.

"Family" is the epitome of society, so family novels not only reflect the social reality, but also have the literariness. So this thesis chooses Korea family novel The "*Sassinamjeonggi(사씨남정기)*" as the main object of study, compares it with Chinese novel "*Lin Lan Xiang(林蘭香)*" and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haracters, contradictions and themes in the two novels. Fina lly, a teaching program has been worked out based on the result s of the comparative study and the student feedback. The main a ims of the teaching are first , to improve the students' 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novel, and se cond, to cultivate students' ability of self-reflec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works through comparative education, so as to probe into the value of works.

Keywords: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perspectives of c omparative literature, <*Sassinamjeonggi(사씨남정기)*>, <*L in Lan Xiang(林蘭香)*>, conflict, characters, themes and ideology